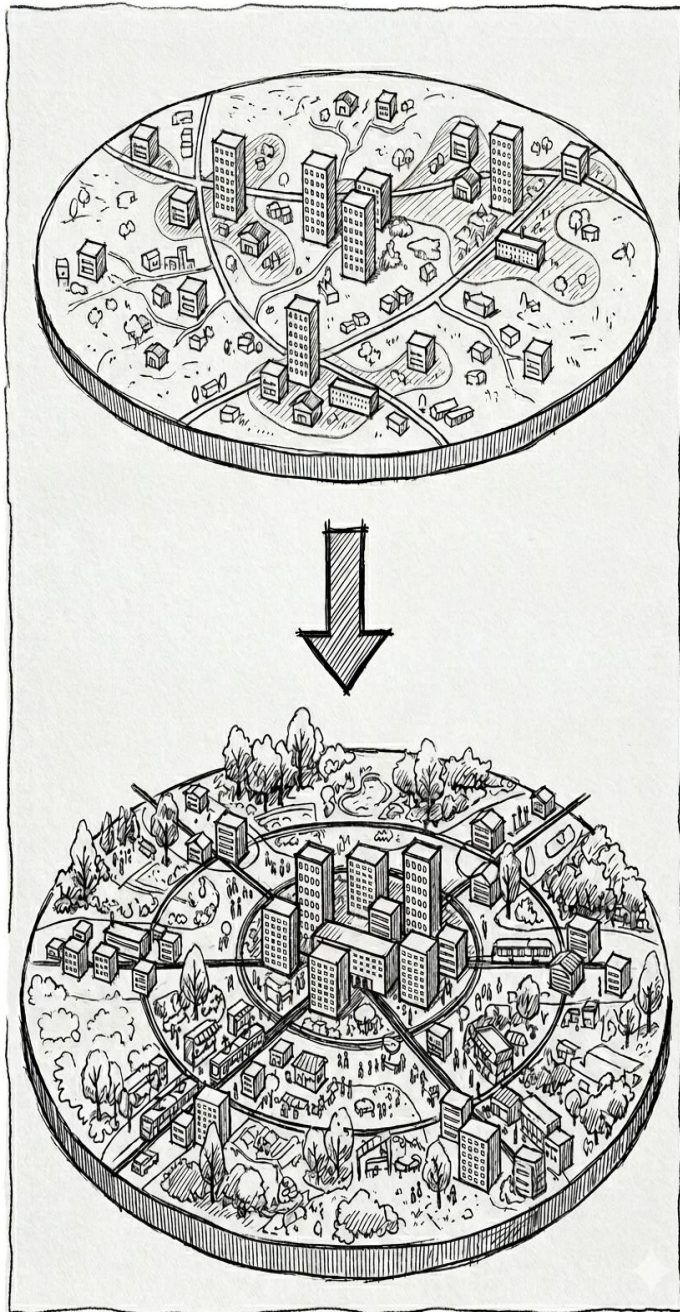


모으고 잇기 리빙랩, 밀양 · 안동

인구감소 시대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전환 정책 제안 백서



발행처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04월 03일

연구책임자

조기혁

공동연구자

김정섭, 이승호, 엄현주

연구진

김동현, 권지혜, 김성범, 김준성, 김철현, 김헌경, 나혜민, 류민지, 박종진, 배찬희, 신재원, 원진호, 이효리, 장동우, 정지웅, 주다정, 한민주, 한상욱

협력기관

밀양소통협력센터, 안동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디자인

김헌경, 배찬희, 신재원, 이효리, 한민주

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right-sizing 기술 기초 연구실)

저작권

CC-BY-4.0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꿉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의 기초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right-sizing은 ‘인구감소시대의 중소도시는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성장과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은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도시 간 인구 유치 경쟁은 국가적 관점에서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환이 없다면, 도시는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함께 악화되는 문제들을 겪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도시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어떻게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탐색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시민 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밀양과 안동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며, 도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구체적인 정책 아이টে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기초연구를 통해 각 지역이 지역 맥락에 알맞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백서의 사용법



흰 배경의 페이지는 요약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요약본으로,
바쁜 의사결정자가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회색 배경의 페이지는 상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의 과정, 방법, 근거 자료,
사진 등을 담은 상세내용으로,
공직에 계신 실무자나 지역
활동가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목소리 카드,
미래신문, 시민 워크숍에서
사용한 ChatGPT 프롬프트
등 본 연구의 원자료와 부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구 요약

1-1. 연구의 배경: 위기의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대응?	8
1-2. 연구 필요성	9
1-3. 압축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4대 사업군 제안	10
1-4. 결론: 공간적 압축이 아닌 도시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1

2. 리빙랩 과정

2-1. 리빙랩 프로세스 내 시민, 전문가, 연구진의 역할	13
2-2. 대상지 선정	14
2-3. 밀양의 현황(인구, 교통)	15
2-4. 밀양의 현황(공실, 외곽개발)	16
2-5. 안동의 현황(인구, 공실)	17

2-6. 안동의 현황(외곽개발)	18
2-7. 현장관찰	19
2-8. 우연한 참여	20
2-9. 시민워크숍	24
2-10. 전문가 워크숍	32
2-11. 페스타	37

3. 리빙랩 참여 시민 통계

3-1. 밀양 리빙랩 시민 참여자 기본 정보	45
3-2. 밀양 리빙랩 시민 참여자 거주지	46
3-3. 안동 리빙랩 시민 참여자 기본 정보	47
3-4. 안동 리빙랩 시민 참여자 거주지	48

목차

4. 도시의 과거-미래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4-1. 밀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분석	50
4-2. 안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분석	53

5.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업 및 우선순위

5-1.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총 11개의 사업 아이템	57
5-2. 밀양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58-60
5-3. 밀양 페스타 개별 사업 아이템 피드백	61
5-4. 각 사업별 밀양 시민의 반응, 수용 조건, 충족되는 욕구 정성 분석	73
5-5.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총 13개의 사업 아이템	77
5-6. 안동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78-80
5-7. 안동 페스타 개별 사업 아이템 피드백	81
5-8. 각 사업별 안동 시민의 반응, 수용 조건, 충족되는 욕구 정성 분석	95

6. 연구 결과 및 시사점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00-102
------------------	---------

1. 연구 요약

연구 배경, 필요성, 결론

1-1. 연구의 배경: 위기의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인구 자연 감소

2024년 합계출산율 0.75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72년 인구는 매년 자연 감소가 지속되어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감소(중위 추계) 예상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인구의 사회적 감소 심화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 문화 활동 등 사회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인재 유치가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있다.

인구 감소는 지방 도시의 뉴노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사회적 감소의 이중적 영향이 중첩된 비수도권 도시에서 인구 감소는 뉴노멀로 자리 잡아 왔으며, 고령화 심화로 유출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여 인구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AI 시대, 산업 유치 중심의 발전 전략의 효과 미비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장 등이 유치되어도 자동화된 공정과 로봇(physical AI)의 도입으로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인구 빗자루 쓸어담기 → 국가적 낭비

현장의 활동가들은 인구 감소 도시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주변 도시 인구 끌어오는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빗자루 쓸어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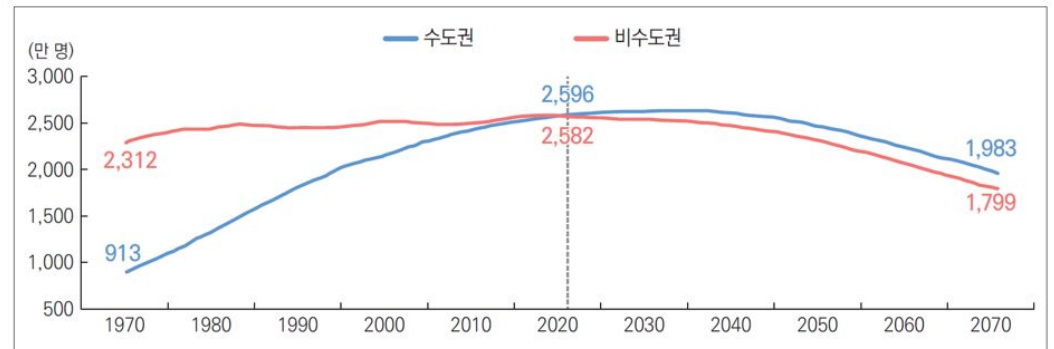
인구 감소 도시는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생존할 것인가?

본 연구는 Right-sizing(도시 규모 적정화) & 직주락(職住樂) 균형을 통해 ‘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그 전략으로 제안한다.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1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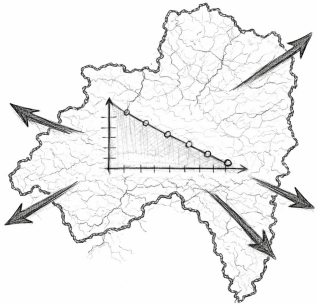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1970~2070) >



통계청 (2020.06)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전망

1-2. 연구 필요성

인구 감소 시대, 성장 중심 도시 관리의 한계



대한민국의 중소 도시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정책과 계획이 전제로 삼아야 할 구조적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 관리 및 계획 체계는 여전히 성장과 확장을 암묵적 목표로

설정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기능 집적을 전제한 계획 논리가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제와 현실 조건 간의 괴리는 도시 정책의 방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와 재정 여건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기존과 유사한 개발 방식과 시설 공급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도시의 실제 작동 조건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그 결과 도시 정책은 무엇을 유지하고 조정하며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상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산된 도시 구조 속에서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은 저하되고, 교통·의료·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시스템은 점차 불안정해진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중소 도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삶의 질 저하로 즉각 체감되며, 도시에 대한 신뢰와 정주 의지를 약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청년층과 가구 단위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도시 미래 판단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



기존의 행정 중심 도시 관리 체계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행정은 제도와 절차에 의해 움직이며, 통계적 지표나 물리적 변화가 가시화된 이후에야 정책 개입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활 불편, 서비스 공백, 관계망의 약화와 같은 징후들은 정책 의제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대응은 늘 사후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시의 미래를 행정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변화된 조건에 대한 적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민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도시가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는지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주체이며, 어떤 변화가 삶의 질을 위협하는지, 어떤 조건이 유지되어야 도시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행정의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인식과 판단이 반영되는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 참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나 정책 수용성 제고의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판단 장치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미래는 행정이 미리 설계해 제시하는 청사진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현재의 도시 상태를 공유하고,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가며, 선택과 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참여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리빙랩 접근



본 연구는 도시의 현재 상태와 변화의 맥락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상상하고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경험적 언어와 전문가의 계획적 언어를 연결하고, 추상적인 비전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우선순위로 전환하는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협의의 결과가 일회성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계획, 사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본 리빙랩은 인구 감소 시대 중소 도시에서 시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때 미래 비전 형성과 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참여 기반 도시계획이 선언적 가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압축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4대 사업군 제안

대부분의 인구 감소 도시에서는 도시 외곽에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구와 일자리를 유지하는 확장적 도시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도시의 외곽 개발은 외부 순유입을 촉진하기보다는 도시 내부에서의 수평적 이동을 유발하여 구시가지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도시 기능 분산에 따른 도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곽 개발 중심의 도시 관리 전략을 벗어나 도시 기능을 거점과 축을 중심으로 모으고 주요 중심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압축-네트워크형’ 도시공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생활권 내에서 편리한 교통 서비스와 연계되어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휴 공간을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이용하는 등 인구 감소 시대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우연한 참여와 시민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 등 리빙랩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정책 제안들은 4대 사업군으로 구성된다. 압축 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압축 핵심과 이동·순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생활·돌봄 및 유휴 공간의 재이용을 통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공간 전환 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압축 핵심 Compact Core

도시 활동을 모으는 기능 축 설정과 거점 공간 조성

압축 핵심 과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핵심축을 선정하고 무분별한 외곽 개발 및 확장 억제 중심의 도시 관리의 틀을 구축하며, 압축 도시 사업을 유도할 앵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포괄한다. 기존 인구 감소 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교통 체계, 개발 패턴을 고려하여 도시 맥락에 적합한 전략이 채택된다. 도시개발 한계선과 같은 면적인 압축 유도 장치, 순환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전략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보행축이나 복합 시설로 전환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도시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신 모빌리티 서비스와 무료 대중교통 도입

이동·순환 과제는 편리한 교통으로 도시 곳곳을 연결하여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도심 활력 회복을 유도하는 사업들이다. 인구 감소 도시의 주요 생활권과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도시 활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연계된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을 통하여 농촌 지역에서의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형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 Life & Care

생활권 단위 보행 친화적 도시서비스 재배치

생활·돌봄 과제는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등 도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에서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도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인구 감소 도시의 주요 생활권 단위로 의료, 돌봄, 평생교육, 문화 활동을 모으고 연계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도시 생활·돌봄 서비스와 보행 친화적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편리한 이동과 신체 활동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활성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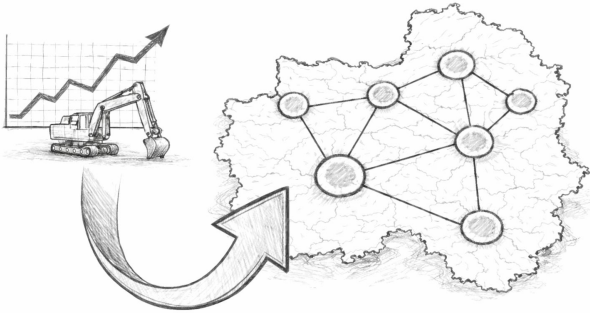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유휴 공간의 참여적 전환을 통한 시민 활동 활성화

공간 전환은 빈집, 빈점포, 폐교 등 도시 내 유휴 공간을 시민이 함께 혹은 주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동과 가치 생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다.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포용적인 도시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폐교, 이전적지 등을 시민들을 위한 생활·돌봄·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만남과 활동을 유치할 수 있다.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방치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 창업, 문화 등 새로운 활동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1-4. 결론: 공간적 압축을 넘어 도시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성장·회복’에서 ‘운영·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 감소 도시 Right-sizing의 출발점은 인구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일시적 위기나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 상태이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인구 감소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인구 증가와 같은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장·회복의 희망 회로를 반복 재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Right-sizing은 인구 감소 도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한다. 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 질문이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현재 조건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정하며,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이는 도시를 다시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전략이 아니라, **감소를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전환적 사고**에 가깝다.

따라서 Right-sizing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인구·재정·공간 조건이 달라진 이후의 도시를 전제로 한 관리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 감소 도시의 압축 도시로의 전환은 이러한 Right-sizing의 하나의 효과적인 실현 수단이 된다.

압축은 물리적 축소가 아닌 기능과 관계의 재구성

인구 감소 도시의 압축 도시로의 전환은 흔히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으로 오해되지만, 그 본질은 물리적 규모의 축소에 있지 않다. 핵심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되어 온 공간, 시설, 생활권, 서비스 범위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렬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면적을 줄이거나 인프라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 이동, 활동의 작동 범위**이다. 이동권의 확보는 모든 구조적 재편의 전제 조건이다. 도시 내 각 생활권 내 거점 공간과 축을 중심으로 도시 서비스를 재배치하고 **무료 대중교통과 신교통수단**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하면 시민들의 도시 서비스로의 접근 기회가 희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 감소라는 수요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비용 효과적인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도시 활력 창출이 가능하다.

인구감소도시의 활력은 인구 규모 자체보다 **활동 밀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적은 인구라도 생활과 활동이 응집되어 있다면 도시 서비스의 핵심 구조는 유지될 수 있지만, 분절된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인구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핵심 생활권 단위로 생활·돌봄 정주기반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하고, 생활권 내 외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며, 생활권 간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서비스가 연계될 때 도시민의 생활과 활동이 응집되어 지속 가능하게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압축도시에서 시설과 인프라는 ‘얼마나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요컨대, 인구 감소 도시의 압축 도시로의 전환은 축소 정책이 아니라, **기능과 관계를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재편 전략**이다.

참여적 거버넌스와 점진적 정책실험을 통한 실행

인구 감소 도시의 압축도시로의 전환은 단순한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니라 인구, 산업, 복지, 공간, 교통, 재정 문제가 복합된 도시 운영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각 과별로 분절된 행정 체계와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는 압축도시 전환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에서는, 장기적 관리와 점진적 조정을 전제로 하는 압축도시로의 전환 과정은 쉽게 ‘실패’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압축도시로의 Right-sizing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구현되는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관리되는 실행 체계**를 요구한다. 즉, **‘사회 실험-피드백-조정’의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시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 가깝다.

따라서 인구 감소 도시의 압축 도시로의 전환의 성패는 계획의 정교함이나 제도의 완결성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 간 협업 구조, 유연한 제도 해석, 학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리빙랩 기반의 참여 혁신 모델**은 이러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실행 구조를 지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참여 혁신 모델에서 시민은 도시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직접 구상하는 하나의 집단지성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전문가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정부는 제안된 사업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실행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실험과 참여가 일상이 되어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고 인구 감소 도시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시작될 수 있다.

2. 리빙랩 과정

현장 관찰 - 우연한 참여 - 시민워크숍 - 전문가 워크숍 - 페스타

2-1. 리빙랩 프로세스 내 시민, 전문가, 연구진의 역할

연구진 →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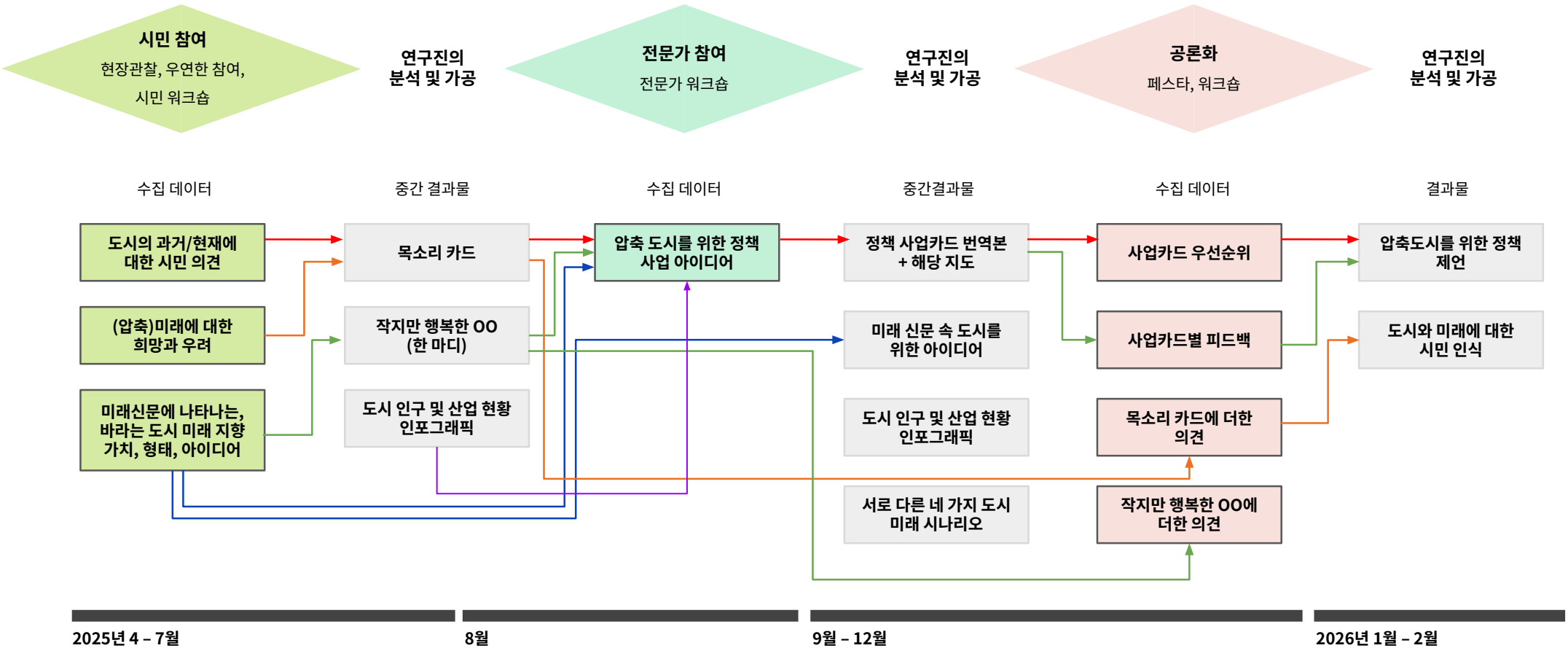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맥락에 대한 이해로부터 창발적 참여를 이끌어 다양한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상을 구축하는 과정을 견인

시민 → 전문가

전문가가 시민의 희망을 반영해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압축의 경로를 논의

전문가 → 시민 → 연구진

전문가가 도출한 전략/정책에 시민이 최종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연구진이 이를 분석해 최종 제언으로 가공



2-2. 대상지 선정

현장 기반 대상지 탐색

본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진은 각 지역의 **활동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의 접촉과 미팅**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공간적 범위와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우선 도시 유형화와 데이터 기반 진단을 통해 1차 후보 도시군을 도출한 후, 실제 **현장 협업 가능성과 지역 맥락**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동가 및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팀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 각기 두 개 도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설계하였으며, **한 도시에서의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순차적 구조**를 채택하였다. 초기 대상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가까우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로 도시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포항, 구미, 밀양, 진주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협업 가능성을 재검토하며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장 활동가 중심의 인터뷰 진행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준정부기관의 센터장,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관리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초기 인터뷰 대상으로 삼고,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추천을 받는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대상지 탐색은 블로그, 뉴스, 유튜브 등 공개 채널을 활용해 지역 활동 이력을 조사하고, 왜 해당 인물을 인터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 팀 내 공유·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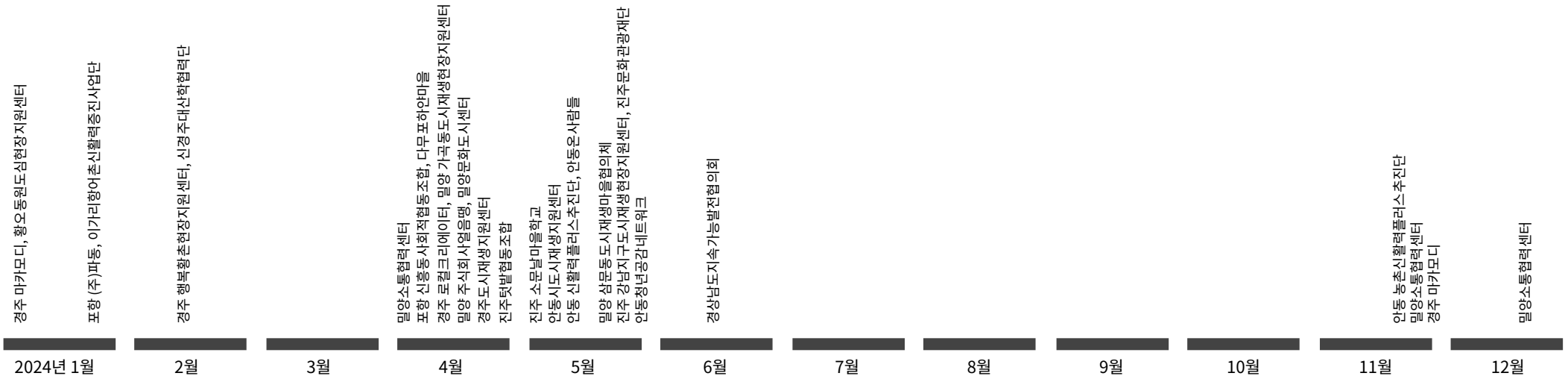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팀은 단순한 행정 협조 가능성뿐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 실천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인터뷰 스테디는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토픽 가이드의 반복적 수정과 내부 워크숍, 조사 매뉴얼 공유 등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연간 진행되었다.

참여적 거버넌스와 정책실험을 위한 대상지 선정

2024년 말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기관들에 대해 연구진 내부에서 현장 실험과 시민 참여형 워크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고, 각 기관을 방문하여 단계적 협의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밀양과 안동으로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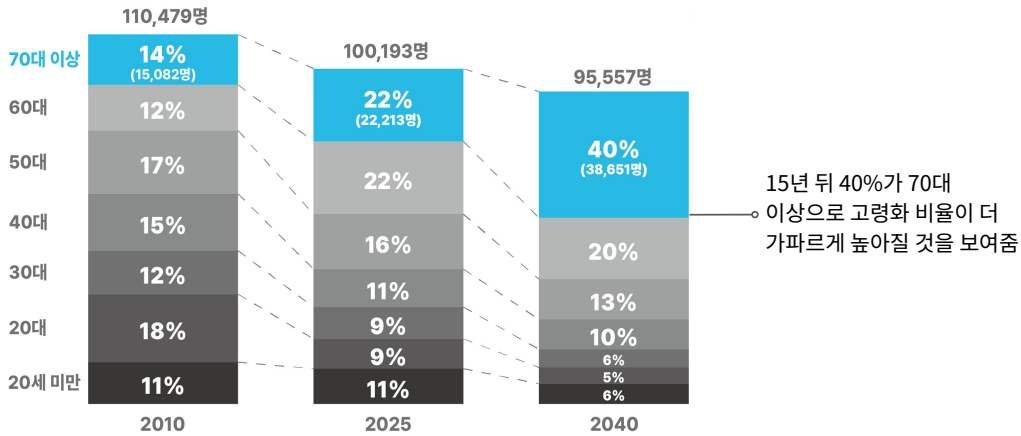


안동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2-3. 밀양의 현황(인구,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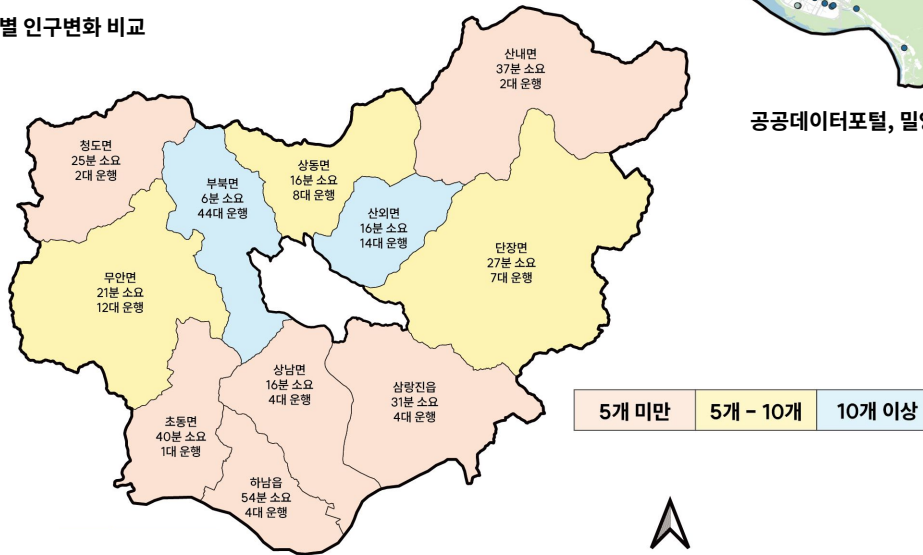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2040년에는 70대 이상이 40%



KOSIS 장래인구추계(2010, 2025, 2040) 밀양시 연령별 인구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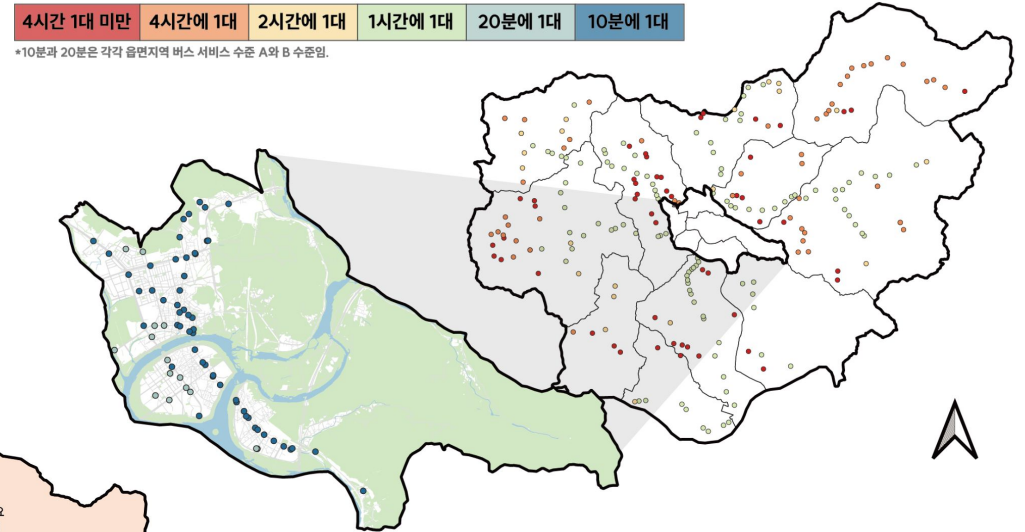
동지역과 맞닿아있는 상남면·삼랑진읍은 거리는 가깝지만 이동시간과 버스운행대수 모두 열악하고 큰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시내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시간과 하루 운행대수를 나타냄



카카오맵, 밀양시 버스정보시스템(2025)읍면에서 시내로 향하는 노선 수

발이 묶이는 교통약자,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사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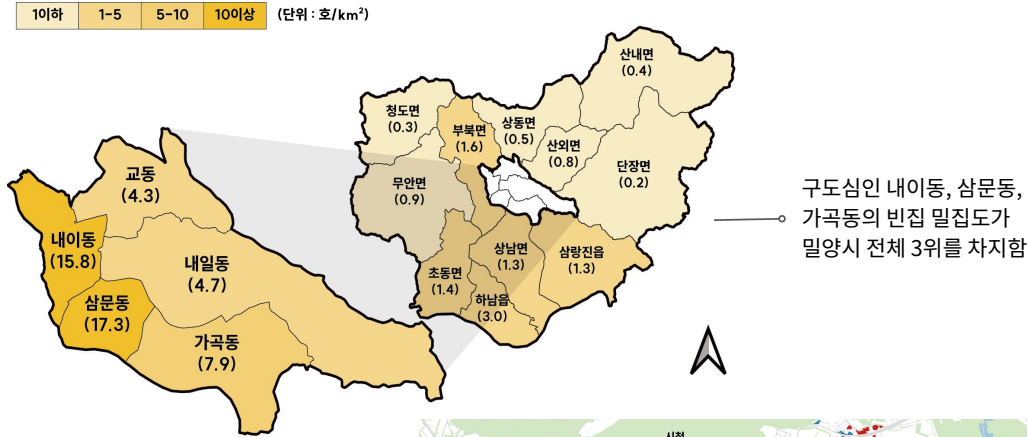
공공데이터포털, 밀양시버스정보시스템(2025) 밀양시 시간당 버스 간격

교통, 내이동, 내일동에도 1시간에 1대씩 다니는 구역이 있음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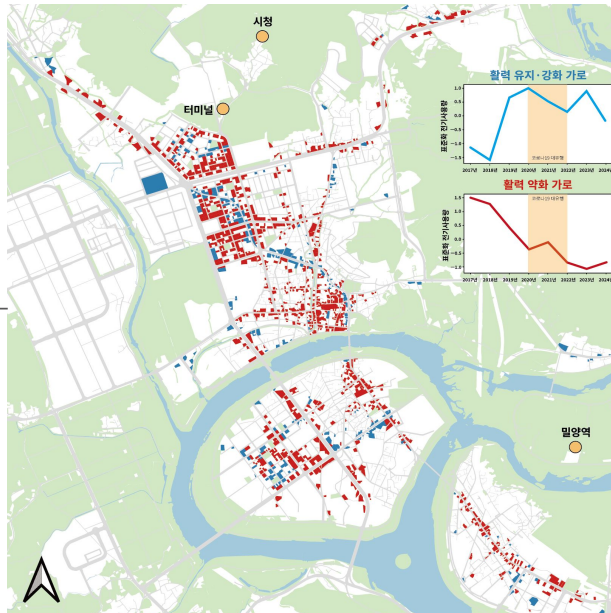
2-4. 밀양의 현황(공실, 외곽개발)

빈집이 늘어나는 시내, 활력 잃은 상업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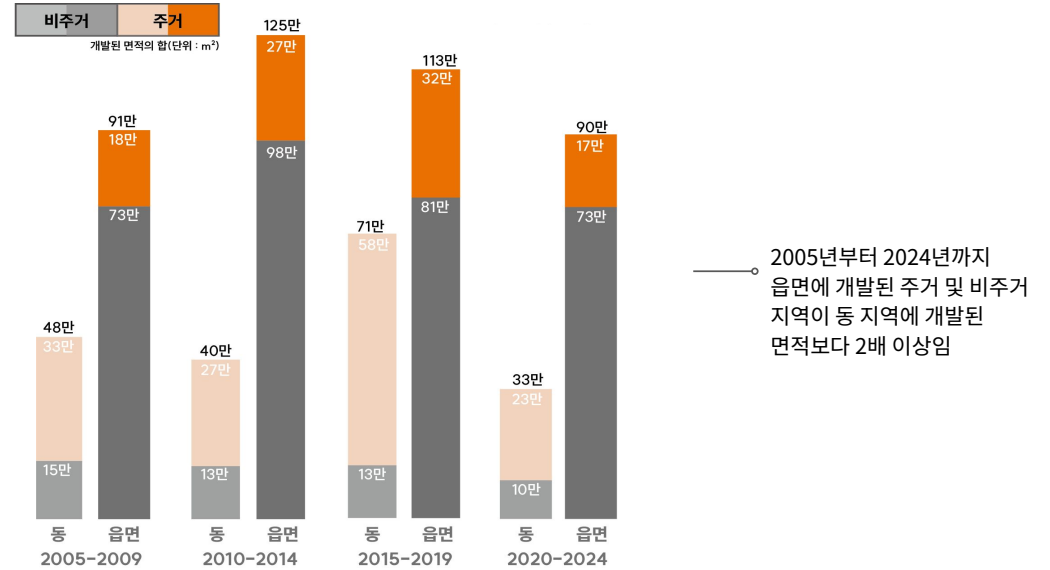
밀양시 빈집실태조사(2021)
밀양시 동, 읍면지역 빈집 현황

2017년 대비 2024년의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상가는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빨간색)



건축HUB 건물에너지정보(2017-2024) 상가 전기에너지 사용량 분석

도심 밖 확산 개발, 비어 있는 산업단지



건축HUB 건축물대장(2005-2024) 밀양시 동, 읍면지역 개발면적 비교

외곽에 위치하는 국가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내이3지구 및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가 비어있는 곳이 많음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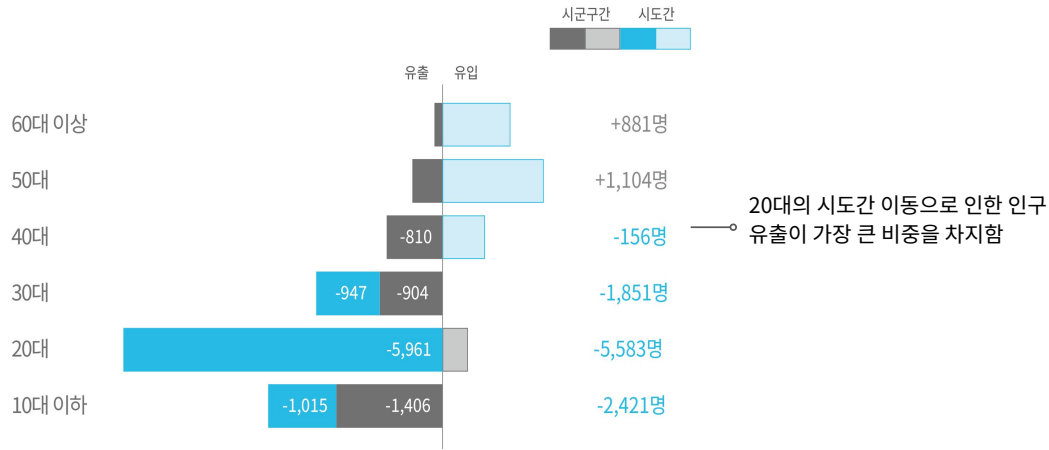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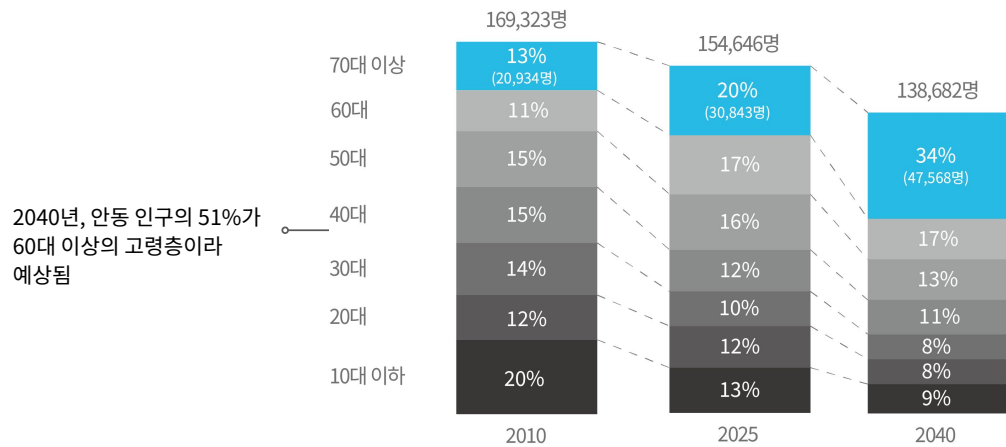
내이 3지구, 나노산단 배후주거지

2-5. 안동의 현황(인구, 공실)

20대는 떠나고, 고령층이 머무는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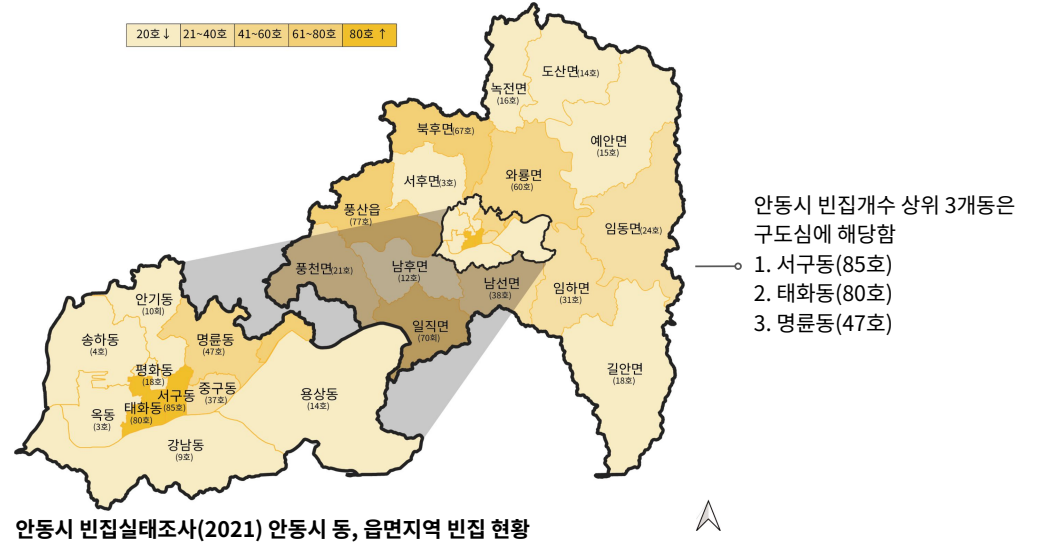
KOSIS(2015-2024) 안동시 연령대별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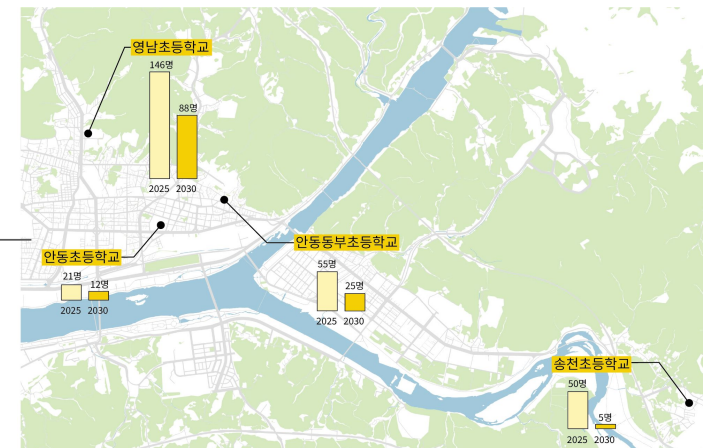
KOSIS 장래인구추계(2010, 2025, 2040) 안동시 연령별 인구변화 비교

2040년, 안동 인구의 51%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 예상됨

도심 속 빈집,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



2030년 초등학생 수가 절반이상 감소할 예정임
* 2025년 정원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나이에 포함될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추정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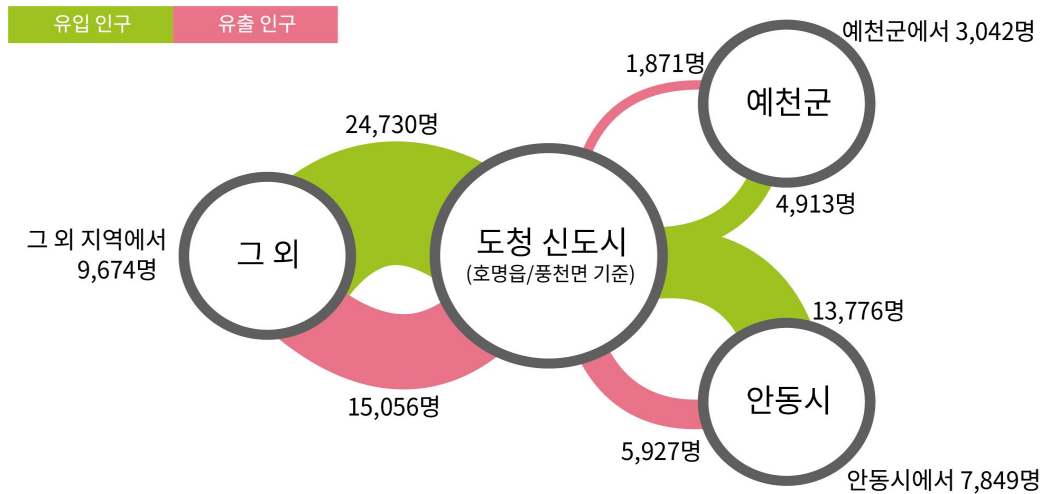
KOSIS, 학교알리미(2025)안동시 2030년 예상 초등학생 수

2-6. 안동의 현황(외곽개발)

비어 있는 땅, 유입이 끊긴 신도시와 사람이 빠져나가는 구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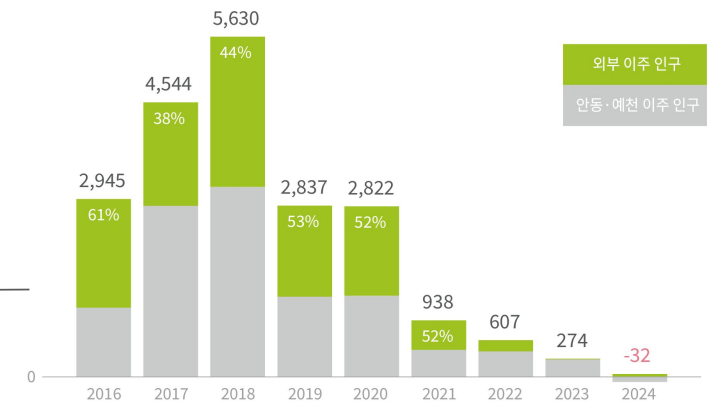
카카오맵(2024) 도청 신도시 단계별 조성부지 구역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6-2024) 지역 간 인구이동

외부지역에서 도청신도시로 새롭게 유입된 인구는 47%
 절반 이상의 인구가 안동, 예천 지역민이 이주하여 오히려 구도심의 활력 감소 현상 발생함

2021년 이후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고 2024년부터는 떠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6-2024) 도청신도시 순이동

2-7. 현장관찰

지역 맥락을 이해하고 스며들기 위해

연구진은 리빙랩 시작에 앞서 밀양과 안동의 맥락을 이해하고 도시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 각 도시의 여러 지역을 걸어 다니며 현장을 관찰하고, 우연히 만난 시민분들과 도시와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밀양: (1) 중심 주거 지역 5동 - 가곡동,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2) 도시 외곽 주요 주거 지역 삼랑진읍, 하남읍

안동: (1) 중심 주거 지역 5곳 - 원도심 일대(서구동, 중부동 등), 용상동, 강남동, 옥동, 도청 신도시 (2) 도시 외곽 주요 관광지 - 도산면 하회마을, 길안면 서원 일대



현장 관찰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2-8. 유연한 참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민과 함께

유연한 참여란 정책 과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뿐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시민을 만나 도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론이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찾아 간담회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축제 등에서 밀양과 안동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2045년의 미래 압축 도시에 대한 상상을 함께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밀양: (1) 느린 물결 마켓, (2)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안동: (1) 안동 신시장 팝업, (2) 월영장터



압축 미래 카드 (시민들이 압축된 20년 뒤의 미래 도시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2045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담은 카드)



유연한 참여 현장 사진

2-8-1. 우연한 참여에 활용한 대화 도구: 압축 미래 카드

짧은 시간 빠른 상상과 인터뷰를 위해

2045년의 '압축된 도시'를 상상해 보자는 제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낯선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하기에 쉽사리 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우연한 참여'를 통해 만난 시민들에게 압축 도시가 된 2045년의 밀양과 안동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카드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아 남아있는 초등학교 부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 시민들이 다소 즉각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압축 도시 미래상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동의나 비동의가 아닌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치로 활용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카드 형식

압축 미래 카드 앞면에는 시나리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제목과 요약, 뒷면에는 가상의 인물이 압축된 도시로 인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쉽게 들고 다니며 대화할 수 있도록 A4 용지에 뽑아 반으로 접어 활용하였으며, 우천 시를 대비해 코팅해 제작하기도 했다.



코팅된 압축 미래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초등학교

2045 시내에만 초등학교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시외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 가족들이 시내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이 생겼어요.

초등학생

전에는 학교 가려면 아침 7시에 나와야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잘 수 있어서 좋아요.

학부모

시외에 있는 학교를 없앴다고 할 때 공산주의나 그랬죠. 그래도 정부가 물어붙이고, 옮겨야 하는 가족들에게 주어 지원도 있어서 가능했죠. 근데 도저히 못 떠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차로 시내까지 데려다줘요.

교사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밀도 높은 교실에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그래도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가 되니까 토론 수업도, 체육대회도 준비할 수 있어요.

앞면

뒷면

밀양

2045 밀양 유일한 상권

유동인구,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신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권을 모두 모았어요.

밀양 토박이

한 15년 됐나... 삼문동도 하나 건너 임대 불고, 밀양 상권이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신 상인회 만들어서 전통시장까지 싸 싸 유머서 밀양 시내 상권을 한 곳으로 다 모으려고 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되더라구요.

신 상인회장

활기를 유지하려면 공실이 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신 상인회가 직접 건물주와 협상해서 월세를 조율해요. 건물주도 대부분 이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고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

완전 감질이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이어왔는데 그걸 한순간에 없앤다는 발상을 했는지.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해도 안되지.

앞면

뒷면

병원

2045 밀양 유일한 병원 거리

밀양 대부분의 병원이 없어지고, 한 기업이 운영하는 병원 거리가 생겼어요. 젊은 부부와 어르신들이 그 주변으로 이주를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

집에서 좀 멀어도 믿음만한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까지, 병원 백화점이지. 프랜차이즈 같아서 좀 그렇긴 해도 진료과목이 하나씩은 있어서 안심이에요.

밀양시 주무관

인구 줄면서 병원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애 낳으려면서 산과도 없고, 소아청소년과는 문 닫고, 밀양 인구 빈이 60대가 넘는 거 아시죠? 그걸 착안해서 노인 과를 크게 열게 해 주되 소아과와 산과를 소규모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죠. 특히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필수 진료과목 하나씩은 갖춰요.

의사

고향에 돌아와서 개업할까 했는데 한 회사가 관리하는 병원 거리가 있으니까, 엄두도 못 내죠. 의도가 좋아도 한 기업에 사실상 독점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앞면

뒷면

2045년 밀양의 압축된 도시에 대한 가상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3가지 압축 미래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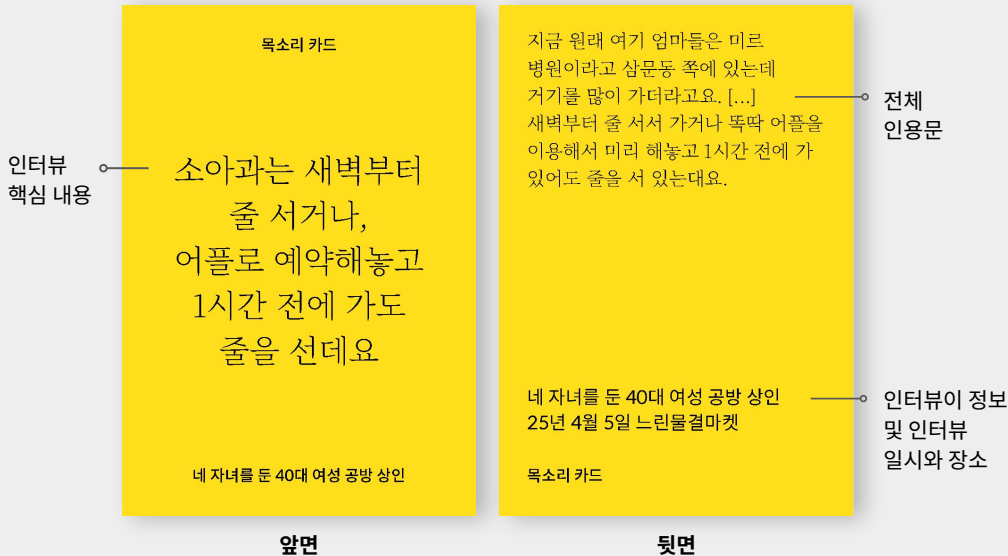
2-8-2. 우연한 참여 결과물: 목소리 카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우연한 참여’를 통해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목소리 카드를 제작하였다. 목소리 카드 내용은 인터뷰 음성 녹음을 모두 글로 옮겨 전사해 ‘밀양/안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2045년에 압축된 도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일부를 발췌하여 카드 형식의 짧은 글로 담았다.

카드의 앞뒷면

목소리카드 앞면에는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뒷면에는 인터뷰 원문과 함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앞면의 핵심 내용은 50자 이내, 뒷면에 인터뷰 인용문은 180자 이내로 제한하여 가공하였다.



목소리 카드의 사용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목소리 카드는 총 3가지 활동에 사용되었다. (1) 리빙랩 시작에 앞서 밀양과 안동의 맥락을 이해하고, 리빙랩 과정에 들어갈 활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함께 목소리카드를 읽고, 논의를 진행, (2) 전문가 워크숍 시작 전 전문가들이 지역 맥락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 (3) 밀양과 안동 페스타에 목소리 카드를 전시하여 시민들이 읽고 공감되는 목소리에 추가로 자신의 목소리를 덧붙일 수 있는 활동

연구진 파일럿 워크숍



밀양/안동 페스타



밀양/안동 전문가 워크숍



2-8-3. 목소리 카드 예시

모든 목소리
카드 보기



노란색 카드

밀양/안동의 현재와 과거 맥락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p>목소리 카드</p> <p>텃새 같은 것도 많아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p> <p>세 자녀를 둔 40대 남성 학부모회장</p>	<p>텃새 같은 것도 많아요. [...] 저희도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어느 지역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긍정적 의미의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 좀 너무 같혀 있거나 달혀 있지 말고 열고 소통을 했으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p> <p>세 자녀를 둔 40대 남성 학부모회장 25년 4월 5일 노린물결마켓</p> <p>목소리 카드</p>	<p>목소리 카드</p> <p>도서관도 실만한 곳이 아니고, 강변말고는 안전하게 느낄만 한 공원이 없거든요</p> <p>나이동 거주 30대 여성 공공기관 직원</p>	<p>목소리 카드</p> <p>밀양은 도서관도 거의 독서실처럼 가는 사람들이 많고, 되게 여유롭게 쉬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원도 딱히 강변말고는 좀 안전하게 느끼고 개방되어졌다고 느껴지는 공원이 많이 없거든요.</p> <p>나이동 거주 30대 여성 공공기관 직원 25년 4월 5일 노린물결마켓</p> <p>목소리 카드</p>	<p>목소리 카드</p> <p>도청 쪽에 24시간 병원 없어서 불편하죠. 장사하고 새벽에 애 토하거나 하면 비몽사몽에 애 태워서 나와야 되는 게 힘들죠</p> <p>도청신도시 거주 50대 남성 상인</p>	<p>목소리 카드</p> <p>도청 쪽에는 지금 24시간 하는 그런 병원이 없잖아요. 애가 아프면 차를 타고 안동으로 나와야 한다고요. 안동병원에, 성소병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 장사하고 새벽에 그러면서 애가 아프 갖고 막 토하거나 이러면 놀라서 테리고 가야 되고 막 비몽사몽에 애를 태워서 나와야 되는 게 힘들죠.</p> <p>도청신도시 거주 50대 남성 상인 25년 5월 11일 월영장터</p> <p>목소리 카드</p>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파란색 카드

2045년 밀양/안동의 미래 압축 도시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

<p>목소리 카드</p> <p>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축소하는게 비용 효율적이니까 애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p> <p>나이동 거주 4-50대 남성 농업기술 종사자</p>	<p>목소리 카드</p> <p>저도 이렇게(압축도시) 결국은 될 것 같아요. [...]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커졌던 인프라를 점점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적인데. 애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p> <p>나이동 거주 4-50대 남성 농업기술 종사자 25년 4월 5일 노린물결마켓</p> <p>목소리 카드</p>	<p>목소리 카드</p> <p>농사 짓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학교를 밀집해 버리면 출퇴근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p> <p>타지 학교 다니는 20대 여성 대학생</p>	<p>목소리 카드</p> <p>안동은 농사 짓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 그렇게 (압축 시나리오처럼) 밀집해 버리면 그분들은 출퇴근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 이번에 산골 갔을 때도 [...] 간이 집 지어준 게 좋은 이유가 호텝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할 때 좋긴 했는데 농사하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밥 먹으러 잠깐 왔다가 또 가야 되고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영상을 봐가지고.</p> <p>타지 학교 다니는 20대 여성 대학생 25년 5월 11일 월영장터</p> <p>목소리 카드</p>	<p>목소리 카드</p> <p>신시장이 20년 후에 바뀌면 뭐해, 지금 바뀌어야지. 집 앞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다 쿠팡으로 시켜 먹는 시대인데</p> <p>노모 간병 위해 광명에서 오신 50대 여성</p>	<p>목소리 카드</p> <p>(신시장이) 언제 바뀌대요? 그때 바뀌면 뭐 해 지금 바뀌어야지 [...] 요즘 다 온라인으로 거래하죠 [...] 집 앞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쿠팡으로 시켜 먹는 시대인데 [...] 저도 벌써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죠 [...] 2045년에 이런 일(신시장의 변화로 다시 활성화되는 일)은 없어요</p> <p>노모 간병 위해 광명에서 오신 50대 여성 25년 5월 11일 월영장터</p> <p>목소리 카드</p>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2-9. 시민워크숍



연령과 배경 구애 없는 참여를 통한 미래신문 생성

참여디자인 방법을 바탕으로 기획된 시민 워크숍은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신이 사는 도시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2045년의 미래 신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활동은 익숙 않다. 이를 유의하여 참여자들이 단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상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글쓰기나 그리기와 같은 창작 역량이 특출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마치 보드게임과 같은 재료와 순서로 제공되었다. 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시민들이 생활하는 곳 근처에서 별도의 사전 교육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약 140분)의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워크숍 말미에 미래 신문 기사와 사진을 생성하는 데는 ChatGPT의 맞춤화(customization) 기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 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합의를 이루고 소통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적용된 프롬프트는 우측 상단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양과 안동에서 총 16회 진행된 시민 워크숍에는 총 21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물로 생성된 총 52편의 미래 신문 기사는 추후 압축 미래 도시 전략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밀양: 총 119명 참여, 생성된 미래 신문 총 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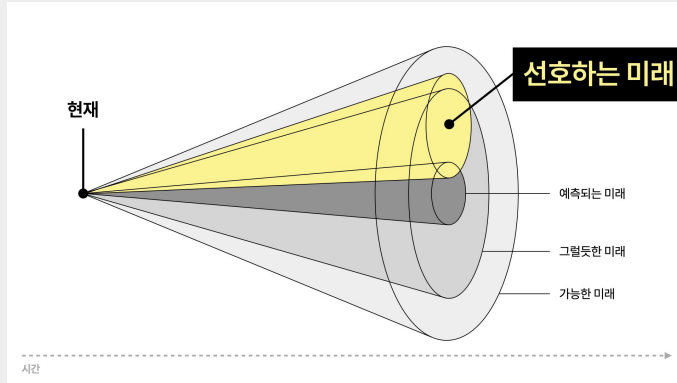
안동: 총 93명 참여, 생성된 미래 신문 총 20개



시민 워크숍 현장

2-9-1. 시민워크숍 기획 의도

시민이 함께 상상하는 미래, 작지만 행복한 도시



Futures cone: Joseph Voros, "A Generic Foresight Process Framework", 2003 (국문 재구성 UNIST NewDesignStudio)

도시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필수 시설과 서비스가 최소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파국적인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도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높은 확률로 일어날 예측되는 미래(projected future)이다. 우리는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적으로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위한 전환을 숙의하고, 변화를 구현하는 토대로 활용한다.

연구진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구상한 미래상에 관여하는 가치, 조건과 제약 등 해당 도시의 고유한 맥락을 얻기 위해 질적이고 창발적인 접근을 취했다. 밀양과 안동에서 삶의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워크숍에 초청해 대안적인 미래상을 공동 창작했다. 약 140분 분량의 워크숍에서 참여자는 도시에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고, 보드게임형 토의 도구를 사용해 협력적으로 도시의 앞날을 상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해 팀별 선호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세부 운영 순서

보드게임 형식의 재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은 팀 안에서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이 적힌 카드를 꺼내며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 진행 순서와 세부 규칙은 점진적으로 수정 및 개선되었다. 협력 기관과의 1차 파일럿 테스트, 연구진 내부의 2차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밀양의 첫 번째 시민 워크숍 세션을 거치며 전반적인 틀이 다듬어졌다.



도입(30분) 아이스브레이킹

개인 준비

- 참여자는 각자 워크숍 활동 중 사용할 별명 선정
- 사전 과제로 생각한 "20년 후에도 남아있기를 바랄 만큼 당신에게 의미 있는 지역의 장소"를 카드에 작성
- 20년 후 가장 충족하고 싶은 가치(육구)를 각자 선정

사회자 도입

- 연구 프로젝트 소개
- 워크숍의 목표, 순서, 원칙 등을 설명



활동 1(60분) 팀 자유 토의

- 보드게임과 같은 규칙을 따라 토의를 진행
- 함께 선정한 미래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20년 후에 필요한 장소와 활동을 상상
- 각 장소를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상상
- 랜덤하게 뽑히는 와일드카드에 대응해 (improvisation) 상상을 확장



활동 2(30분) 아이스브레이킹

- 활동에서 나눈 대화를 ChatGPT의 순차적인 질문에 따라가며 입력
- 생성된 기사와 이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문 기사 내용을 완성



마무리(20분) 팀별 발표와 소감

- 차례대로 팀별 결과물을 공유
- 워크숍 종료 후 추가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참여자는 퍼실리테이터와 짧은 인터뷰 세션 진행

2-9-2. 보드 게임과 같은 활동 타일들

게임 타일
모두 보기



각자 의견 적은 타일을 추가하며 확장되는 팀 토의

워크숍 참여자들은 네 명에서 여섯 명까지 한 팀을 이루고, 2045년 미래의 도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팔말 두 개를 골랐다. 개발 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니프(Manfred Max-Neef)가 제시한 9개의 인간 기본 욕구 이론을 활용한 가치 목록은 5번 목차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팀에서 선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 도시 상상을 목표로 보드게임 형식 토의에 임했다. 장소 카드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적어 테이블에 꺼내고, 지도 카드를 중심으로 장소를 모았다. 이곳에서 우리 팀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활동 카드에 적어 공유했다. 타일들이 많이 만들어져 팀 토의가 충분히 확장되었을 때, 시내버스와 같이 필요한 이동 수단을 고안하는 것으로 토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워크숍 흐름은 개인의 경험과 욕구와 가치가 반영된 장소성(Relph, 1976)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 상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기점으로, 인간 중심의 욕구(Max-Neef, 1992)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팀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때 성장 기제(정필립 외, 2015)와 같은 암묵적이고 지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다원적인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희망제작소의 노란 테이블(박형숙, 2014)에 영감을 받아 육각형 모양의 카드를 제작해, 참여자 간 의견을 손쉽게 더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가치팔말

20년 후 압축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 두가지를 토론을 통해 선택

2 장소카드

사전과제로 선정한 '20년 후에도 남아있길 바라는 나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적어 토의 활동 시작

도심 생활 필수 시설, 빈 카드를 제공해 원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상상을 보조

3 지도카드

각 도시 주요 읍면동, 가까운 도시, 빈 카드를 제공해 미래의 압축 도시를 상상하며 토론하는 단계에 활용



4 활동카드

빈 카드만을 제공하여 도시에서 벌어질 일들과 내가 해낼 활동 등 자유로운 상상을 보조

5 와일드카드

토의의 전제를 뒤엎고, 상상을 확장하기 위해 활동 후반부에 '예측이 어려운 미래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와일드카드를 랜덤하게 제공

노란색 카드는 사회 전반 경제적 기술적 변화, 분홍색 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의미

2-9-3. 밀양 시민 워크숍 사진



밀양 시민 워크숍 1회차 - 밀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최근 10년 내 밀양으로 이주한 주민을 중심으로 모객



밀양 시민 워크숍 2회차 - 밀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최근 10년 내 밀양으로 이주한 주민을 중심으로 모객



밀양 시민 워크숍 3회차 - 밀양에 오래 거주한 중장년층(55-65세)을 중심으로 모객



밀양 시민 워크숍 4회차 - 밀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모객



밀양 시민 워크숍 5회차 -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장애 당사자와 복지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모객



밀양 시민 워크숍 6회차 - 밀양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의 제안으로 다수의 10대 학생 모객

2-9-4. 안동 시민 워크숍 사진



안동 시민 워크숍 1회차 - 안동 소재 대학 졸업 후 정착한 2030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모객



안동 시민 워크숍 3회차 - 안동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4050 중심으로 모객



안동 시민 워크숍 4회차 -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복후면 액션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면 단위 거주자 (10대, 40~70대) 모객



안동 시민 워크숍 5회차 -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임동면 액션 그룹을 중심으로, 귀촌한 4050 농업 종사자 모객



안동 시민 워크숍 7회차 - 청소년, 청년(10~30대) & 생태에 관심 있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모객



안동 시민 워크숍 8회차 - 용상동 소재 방과후 돌봄 시설을 통해 10대 학생과 그 학부모 모객

2-9-5. 시민이 묘사한 미래도시

독창적이고 고유한 공동 상상

시민 워크숍 참여자들은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이웃과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소개했다. 각자 팀에게 중요한 가치를 고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의 모습과 변화를 함께 상상했다. 다음은 워크숍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묘사한, 팀이 원하는 미래 압축 도시 설명이다.

2025년 7월 17일 밀양여고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작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 발견되는 도시

2025년 6월 22일 안동 임동면 로컬푸드 무인카페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도시

2025년 5월 29일 안동 복합문화공간 안락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잠시 쉬어가는 곳

2025년 5월 21일 밀양시문화센터 열두달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들어날 AI 기술과 주변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넓은 도시

2025년 7월 9일 밀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2025년 5월 21일 밀양시문화센터 열두달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나이가 많은 젊은 공동체가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도시

2025년 6월 29일 밀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소도시의 여유로움과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2025년 7월 13일 안동 마늘어울림센터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자급자족형 생태도시

2025년 5월 29일 안동 복합문화공간 안락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국제적인 도시로 외국여행객들의 한달 살기 체험도시로 각광받는 도시

2025년 7월 17일 밀양여고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밀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

2025년 6월 29일 밀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나를 외지로 내몰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도시

2025년 6월 22일 안동 임동면 로컬푸드 무인카페에서 만난 시민 참여자

많이 개발되지 않고 한적하고 여유로움이 유지되는 도시

2-9-7. 시민 워크숍 결과: 안동 미래 신문

안동 미래신문
초기



Local Futures
2045년 6월 12일

기후난민과 노년의 이주자가 뒤섞인 '젊은 안동'의 아침

2045년 6월의 한 아침, 안동 평화동의 상업 센터 앞에는 경장을 치러잡은 택시를 여러 신들이 줄을 서 있다. 75세 청년 시골, 구역을 위한 연결 준비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육동의 기후난민 보호소에서 또 다른 이들이 출발 준비에 분주하다. 병원 건물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차량에 올라간다. 이들은 대부분 전국의 수재, 화재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다. 도시는 이들의 편견이 사라진 새로운 터전이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북후면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정에서는 등굣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한편 체육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베틀민턴을 치고 있다. 그 옆 강장으로는 육천에서 출근해 온 아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간이 편의점 앞은 간단한 시골로 하루를 준비하는 이들이 보인다. 과거 농촌이었던 이곳은 이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도시로 변모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또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도시는 여전히 사람을 존중한다. 여가를 즐기며, 생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애정으로 연결하는 도시, 안동은 더 이상 과거의 조용한 도시가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두가 변할 수 있으며, 기술과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젊은 도시로 진화했다.

다들 주먹이 줄지는 안기동에서는 아깝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예술의 전당으로 문화 체험을 하러 간다. 예술의 전당은 안동의 심장이자 교육의



안동 시를 잇는 미래 도시 교통 시설

중심이다. 수상동 놀이공원과 잔디공원은 주말이면 도시 외곽에서 온 방문객들로 붐비며, 병원은 난민과 고령 시민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치유 공간으로 재장비되었다.

citizen

대중교통을 포기할 것인가, 마을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

도시 비전의 칼럼에서 교차 상대에 빠진 도시, 안동의 시험대

안동은 지금 두 개의 도시로 갈라져 있다. 하나는 고도화된 기술, 창조적 일자리, 차별화된 공간 특색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심지다. 다른 하나는 교통수단이 사라진 외곽, 점점 좁아지는 생활권 속에 고립되어 가는 마을이다. 그 경계에서 안동은 지금, 하나의 결단을 마주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포기할 것인가, 마을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지방의 풍경을 풍토로 바꾸어놓았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고령자와 청년 모두 임금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서 평생 구직이 앞설 가능성이 되었다. 이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안동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켰다. 각 동네는 저마다 고유한 가능성과 매력,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구조를 창출해왔다. 지식 공유 중심의 기업 허브가 된 육천동에서는 경원의 지이 넓은 중앙년들이 지식과 자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용상동은 리빙랩의 수백명원으로 헬스나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태화동은 누구나 일 수 있는 '비용 없는'의 상황이 되었다. 이곳에는 옛 안동의 기억을 나누는 산책길과 드론장이 생겨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연스레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전면 중단 위기는 돌발 상황은 이 균형을 흔들었다. 외곽 마을에서 도시로 접근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농촌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립되었다. 일부는 개인 자가용이나 공유 전기를 택한 대안으로 삼았지만, 비용 부담과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 내부에서는 극심한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단단한 행정의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나칠 것 없이 미래 도시를 꿈꾸는 안동 시민들이 안동시 비전을 대안(미래)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제는 시민 스스로 이용을 책임질 때입니다!" 안동 2대역주 씨

"대중교통은 수익모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프라이자 핵심. 포기하는 순간, 외곽은 사라지고 도시는 조각날 거예요!" 태화동 주민 B씨

간직한 채 변화에 대응하려는 안동의 철학기도 직결된다. 안동은 일찍이 안동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삶을 살피며 유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는 도시를 수립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 비전은 공간을 넘어 시민들 전체를 살피는 기운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전이 교차 상대에 빠져 있다. 안동의 정체성의 시민 참여, 그리고 창조적 가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 구조를 상상해야 한다. 안동의 진짜 위기는 교통이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기자 김재현

Local Futures
2045년 8월 17일

다문화·다성명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 안동 세계가 주목하는 2045년 안동의 새로운 변신

2045년의 안동은 더 이상 전통이란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잠시 머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창조하고 참여하며 보호받는 다문화·다성명 공존의 도시로 재탄생했다. 창조, 보호,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도시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

안동이 이처럼 변모한 배경에는 기후위기, 초고령화, 로봇농촌과 반러동들 급증이라는 격변이 있었다. 과거 낙후된 농촌이었던 도산면에는 지금, 고향차 돌봄을 로봇이 함께 수행하는 '호크백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호크백 마을은 네덜란드의 차메노인 친화 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차메 어르신들도 AI와

한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이뤘었다. 버스킹 무대와 미술병원의 '아무디대전지'는 정서적 안전망의 핵심 공간이다.

한편, 송천동은 인동대학교 인근에 공공 토론공간과 지식사정이 통합된 '열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안동의 소리 플랫폼의 데이터와 결합되어 도시의 문화적 결실에 영향을 준다. 도시의 모든 활동은 체온과 움직임에 감지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박물관·동원관·서클원이 주마다 돌아가며 활용되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창조와 공존, 그리고 심과 회복을 품은 참여형 압축 도시

잠시 머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창조하고 참여하며 보호받는 다문화·다성명 공존의 도시로의 재탄생



시민 지난 9월, 사랑과 돌봄, 시골을 로봇으로 이루어진 안동의 지사비비 가족이 안동마을을 방문 할 당시 가족용 휴게용의 시골마을에서 가족사진을 찍었다.

함께하는 자인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도시에 도전한 김서현 씨의 일제. 지금 안동은 세계 속 한국인들이 있는 힘과 재능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2045년의 안동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창조와 공존, 그리고 심과 회복을 품은 '참여형 압축도시'로 진화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조, 로봇과 비러동들이 함께하는 보호, 그리고 물리적 디지털 공간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가 이 도시의 미래를 탄탄히 만들고 있다.

정연우 기자

Local Futures
2045년 7월 3일

NO.10
안동일보

병원 옆 체육관, 장을 보며 복지를 묻다: 사라졌던 중심이 되살아나다

민서윤 기자

동네마다 생긴 '가정마트'는 단순한 유통시설을 넘어 복지센터와의 협업체로 작동한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복지상담도 받고, 요양원 친구를 다시 만난다.

요양원 친구들 다시 만나기. 기차, 마트, 주민이 모두 행복하길 위하여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부러 자랑할 대상과 같다. 어떤이든 활력이든 이음하는 시민까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저상형 차량들은 병원, 가정마트, 주차지, 운동시설 간의 관계를 뒀고, 한 번 걸음은 단독주택 옆으로 이동했다. 한 번 걸음은 더 나은 공간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이동했다. 모든 속에서 도시의 관계 안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이동했다. 모든 속에서 도시의 관계 안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이동했다. 모든 속에서 도시의 관계 안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이동했다.

2045년 이후, 인구 감소의 상회 붕괴로 폐허처럼 변해버린 안동 신시의 일부, 그 화려했던 건넌 도산에 다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2045년, 안동 중구동과 서구동에는 병원 옆 체육관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장이 서던 공간은 이제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재활 공간과 노인용 스포츠 코스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었다. '병원 옆 요양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푸르게 변했다. 그곳에서 내기 여는 배드민턴을 배우고,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복지상담도 받고,

김영순(78) 씨의 약한, 아기가 생기는 관계는 대안보다 사라지고 각 동네마다 생긴 가정마트는 단순한 유통시설을 넘어 복지센터와의 협업체로 작동한다. 노인이 많이 자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이 있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복지상담도 받고,



병원, 체육관, 복지센터, 가정마트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오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의 모습

안동일보
2045년 7월 13일(월)

기술과 연결로 다시 선 안동

정연우 기자

송하동은 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AI 기반의 원격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들은 집에서 진료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드론을 통한 생리품 및 약품 배송이 일상화되어 있다. 용상동은 약품 배송을 기반으로 수백명원과 주거안전 공동체를 기반으로, 도산면은 전통문화 관광지로서 도산시원이 그 중심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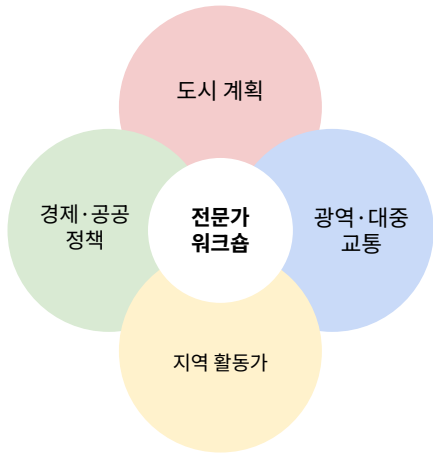
이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안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한다. 안동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순환버스 시스템이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며, 하와이와 연결되고, 도산면까지는 관광객을 위한 수상버스와 육상버스가 동시에 운행된다. 도정신도시와 풍산읍, 송하동은 출퇴근길과 야간 상권 이용을 고려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운행되는 직행버스 교통망으로 연결된다. 중구동을 비롯한 중심지와 용상동은 차전기도로로 건설과 이용을 같이 고려한 길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혁신은 단지 하드웨어의 변화만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고, 살게 된 관계가야말로 안동의 진정한 변화다. 기술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고, 거지는 그 연결을 지탱하게 했다.

"우리는 도시, 함께 배우는 도시로 돌아왔다." 2045년 7월의 어느 저녁, 안동 태화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시민 대안, 오늘날 안동이 걸어온 길을 응축했다. 안동은 도시의 혁신을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계층과 기술 인프라의 융합이 있었고,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태화동에는 헬스센터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과 걷기 대안 함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센터가 들어섰고, 중구동은 다문화 3세대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동은 전환을 선택했다. 풍산읍에는 AI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귀농 시스템이 보편화 되어, AI 농업기술센터가 세워지고, 농민은 고밀도 노동이 아닌 도시와 연결된 배움의 현장이자 일터로 탐방되었다.

안동의 이러한 혁신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계층과 기술 인프라의 융합이 있었고,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태화동에는 헬스센터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과 걷기 대안 함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센터가 들어섰고, 중구동은 다문화 3세대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동은 전환을 선택했다. 풍산읍에는 AI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귀농 시스템이 보편화 되어, AI 농업기술센터가 세워지고, 농민은 고밀도 노동이 아닌 도시와 연결된 배움의 현장이자 일터로 탐방되었다.

2-10.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 기획 의도

모고-잇기 리빙랩의 전문가 워크숍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기존의 성장 중심 도시 전략을 넘어 ‘어떻게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밀양과 안동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수집된 도시 인식과 생활의 불안, 미래에 대한 기대를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 관찰과 시민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미래 도시상과 가치 인식을 전문가 논의의 핵심 재료로 활용한다. 워크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45년을 기준으로 한 미래 압축 도시의 모습(snapshot)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제감하는 문제와 욕구를 도시 전략의 전제로 삼는다.

전문가 워크숍의 핵심은 이러한 미래 도시상을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압축 경로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도시계획, 교통, 공공정책, 경제, 지역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패키지를 제안하고, 중요성·현실성·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워크숍은 단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여러 선택지를 비교·토론하는 구조를 취하며, 결과물은 이후 공개 행사와 토론을 통해 시민과 공유되어 후속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전 논의

2025년 7월 중순

프로젝트 발표 및 도시 현황 공유

연구진 ↔ 전문가 간 질의응답

전문가 간 소개



워크숍 1일차

2025년 8월 말

시민의 목소리와 비전 확인

미래 압축 도시 비전 초안 작성

지역 탐방 및 추가 논의



워크숍 2일차

2025년 8월 말

미래 압축 도시 비전 개선

단·중·장기 압축 경로 제안

전체 논의



2-10-1. 밀양 전문가 워크숍 결과물

밀양 사업
아이템 보기



정책 변화의 골자를 사업 카드 형식으로

전문가들은 1박 2일 동안 밀양 원도심에 묵으며 바로 그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이 음성, 비디오, 포스터 등 여러 형식의 매체로 전달되었다. 전문가 참여자들은 팀별 토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 전문가들은 정책적 개입을 개별 사업 형식으로 구체화해 공유했다. 이를 종합하여 해당 도시의 압축 경로가 의논되었다. 특히 리빙랩 협력 기관의 주요 관계자는 지역의 맥락에 대한 전문가로 초청되어 토의 과정에서 실제로 밀양의 맥락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인지 의견을 더했다.

참여 전문가 (가나다순)

- 강은지 (다크매터랩스 코리아 대표)
-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동현 (UNIST 박사후연구원)
- 김정섭 (UNIST 교수)
- 김준우 (대구대학교 부교수)
- 김희경 (동아대학교 교수)
- 박은진 (밀양소통협력센터장)
- 이승호 (UNIST 교수)
-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부대표)

사업명 : 안전한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 필요성
 -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윤병원의 응급실 폐쇄로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밀양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필요성이 있음
 - 권역 응급센터가 진주(국립경상대병원)에 있으나, 밀양시 도심에서 1시간 30분 소요되어 의료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
- 사업개요
 -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 고위험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환경을 구축하여 24시간 안심하고 응급 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용 마비의 앰을 통해 고위험 산모가 현대 현대의 체중과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5kg의 하위와도 응급 출산이 가능하도록

사업명 : All-inclusive City

- 필요성
 - compact -> n분 도시 -> slow -> all-inclusive
 - 연령, 성별, 인종 간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교통체계 및 운영 방식 필요
 - 공공이동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필요
- 사업개요
 - 혼별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별 네트워크에 다수단(multi-modal) (e.g., 보행, 자전거, 전동 wheel chair, 유모차 등) 이용 가능한 형식 필요
 - 공공이동서비스(대중교통) 우선 네트워크를 위한 일방통행 도입, 공공이동서비스 요금 무료화



사업명 : 지역 공간 활용 생활 실험 - "Occupy Ghost Space"

- 필요성
 - (공간 공동화) 전통시장내 빈 상점, 일반 상가내 공실 -> 폐허, 쓸모없음
 - (마을 공동화) 정부의 대책없는 일방적인 청년 창업 독려와 왜곡된 창업 신화 -> 실패, 낙담, 자존감 저하
 - (소유의 공동화) 유희공간 활용자 부재, 데이터 부족 -> 공간과 생활의 불일치
- 사업개요
 - 시의 유희공간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내 무용 자원을 유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생활 실험 사업
 - 시가 공모하며 빈점포(활용을 원하는) 소유주들 모집; 1년에 6개월만 사용(약간의 공간 개조는 협의, 원상복원 원칙, 대여료: 1공간 6개월 24시간 300만 원)
 - 1) 공간과약(세부 조감도, 공간의 역사), 2) 모의창업 실험, 3) 청소년 지역 실험실을 진행하며 공간 활용도를 높임. 2045년까지 밀양의 유희공간 80% 활용
 - 당사자들이 모여 실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획
 - 느려지만 완전한 성취 연승으로 밀양만의 생활력 제도
 -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공간
 - 난류에 의해 난류중 허위 난류의 용도
 - 난류의 용도 및 위치 실험으로 용도들의 내러티브

사업명 : Value Producing Home

- 필요성
 - 도시 문제 해결: 밀양의 빈집 수는 880 호를 넘어섰으며 지방 소멸과 도심 슬럼화로 직결. 단순 월가나 임대차 아닌, 새로운 활용-순환 모델 필요.
 - 저원환경적 계약: 건설자재 가격 상승(원강-시멘트 약 25%↑)과 탄소중립 목표(2050 Net Zero)로 인해 신규개발보다 기존 자산 재활용 필요성이 확대.
 - 사회적 혁신: 빈집을 단순 거주가 아니라, 도시의 공공 인프라이자 공유자산으로 상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 정착 기반, 문화-문화-창업 자원으로 전환 가능.
 - 정책 연계성: 디지털 기반 순환경제, 유희자산 재활용, 주민 주도 리빙랩 운영을 강조. VPH (Value Producing Home)는 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실험.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밀양시 빈집 2-3채 (과월동)
 - 기간: 2025-2026년 (2개년)
 - 주관/협력: 지자체 + 지역대학 + 기술기업(AI, IoT, 분분체인, 나노???) + 시민단체
 - 주요 추진내용/실증 시스템 스텝
 - 실증 실험내용\실증 난류의 내러
 - 난류\내러: 난류제 + 지역대학 + 기술기업(VT, IoT) 플랫폼을(가?333) + 난류제
 - 난류: 2025-2026년 2개년

2-10-2. 밀양 전문가 워크숍 사진



우연한 참여를 통해 얻은 밀양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목소리 카드를 살펴보는 전문가



시민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제작한 밀양의 2045년을 담은 미래신용



밀양시의 현황을 담은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는 전문가들



밀양 전문가 워크숍 1일차 - 밀양의 압축 미래 도시상 논의



밀양 전문가 워크숍 1일차 - 밀양의 압축 미래 도시상 전체 공유



밀양 전문가 워크숍 2일차 - 밀양을 위한 사업 카드 제작 및 발표

2-10-3. 안동 전문가 워크숍 결과물

안동 사업
아이템 보기



정책 변화의 골자를 사업 카드 형식으로

전문가들은 1박 2일 동안 안동 원도심에 묵으며 바로 그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이 음성, 비디오, 포스터 등 여러 형식의 매체로 전달되었다. 전문가 참여자들은 팀별 토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 전문가들은 정책적 개입을 개별 사업 형식으로 구체화해 공유했다. 이를 종합하여 해당 도시의 압축 경로가 의논되었다. 특히 리빙랩 협력 기관의 주요 관계자는 지역의 맥락에 대한 전문가로 초청되어 토의 과정에서 실제로 안동의 맥락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인지 의견을 더했다.

참여 전문가 (가나다순)

구정하 ((주)디자인케어랩 대표)

김정섭 (UNIST 교수)

김태욱 ((주)이공이공 대표이사)

김희경 (동아대학교 교수)

양희진 (한동대학교 조교수)

엄현주 (인천대학교 조교수)

이승호 (UNIST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정 (안동시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업명: 지역사회 돌봄 복합 타운

□ 필요성

-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안동시 또한 이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함.
 -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자치단체 주도로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안동은 면 단위의 경우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나 면적은 넓고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도달하는데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업명: 안동시 1942 복합센터

□ 필요성

- 안동 중심지인 구안동역을 중심복합센터로 개발
- 교통결절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광역 교통의 요지로 개발하여, 외부에서 중심지로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시 내부에서의 이동으로 환승을 원활하게 지원
- 기존 순환버스 또는 순환 굴절버스와 연계로 KTX, 대학교, 주요 관광지와의 연결의 결절점 수행
- 기능 복합화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수행함으로써 공간효율성 증대

사업명: 안동 LOOP

□ 필요성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boundary 정의
- 교통망을 통한 발전 boundary 정의
- 인구과소에 대비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발전 boundary 정의
- 발전 boundary 내부와 주변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과 기능의 집중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명: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 필요성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하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가능
- 도심 내 반려동물 친화 공간의 부족
- 반려동물을 매개로 도시민의 정서적 복지 향상 필요

□ 사업개요

- 대상지: 안동시 생활체육공원 부지 리모델링; 예비원으로 반려동물 친화가로 조성
- 대안지: 안동시 생활체육공원 부지 리모델링; 예비원으로 반려동물 친화가로 조성

2-10-4. 안동 전문가 워크숍 사진



우연한 참여를 통해 얻은 안동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목소리 카드를 살펴보는 전문가



시민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제작한 안동의 2045년을 담은 미래신문



안동시의 현황을 담은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는 전문가들



안동 전문가 워크숍 1일차 - 안동의 압축 미래 도시상 논의



안동 전문가 워크숍 1일차 - 안동의 압축 미래 도시상 전체 공유



안동 전문가 워크숍 2일차 - 안동을 위한 사업 카드 제작 및 발표

2-11. 페스타

기획 의도

연구진은 지난 1년간 밀양과 안동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시민 참여 기반 혁신 모델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페스타를 기획하였다.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실험과 분석 결과가 실제 시민의 경험과 문제의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자 중심의 해석을 넘어 지역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행사는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발표의 장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보고 해석하며 보완하는 공개 검증의 자리로 설정되었다.**

특히 본 페스타는 시민, 전문가, 행정이 분리된 역할을 넘어 하나의 논의 구조 안에서 연결되는 접점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시민 참여는 개별 의견 수렴에, 전문가 논의는 자문이나 학술 영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정은 결과를 전달받는 실행 주체로 위치해 왔다. 페스타는 동일한 연구 성과를 공유한 상태에서 세 주체가 동시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를 실험함으로써, 향후 정책화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간 단계의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지방 소멸이라는 복합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축제 형식을 채택하였다. **참여 전시, 전문가 토론회, 시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내용을 쉽게 공유하고, 토론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사 운영 방식이 아니라, 어떤 참여 방식과 소통 구조가 시민의 공감과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으로서, 본 페스타를 연구의 종착점이 아닌 다음 단계로 확장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위치 짓는다.

참여 전시

참여 전시는 시민들이 현재 도시가 마주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련 포스터 전시를 통해 밀양과 안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시민 인터뷰 음성 재생과 목소리 카드를 통해 시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또한 서로 다른 미래 시나리오와 시민 워크숍에서 제작한 미래 신문을 전시해, 도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의 마지막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고,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직접 투표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개 토론

전문가 공개 토론은 Right-sizing을 주제로 한 두 명의 전문가 발제와 연구 참여 교수의 연구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지역,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현실 속에서 **Right-sizing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연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이후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민 워크숍

시민 워크숍은 전문가 논의를 시민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11개 사업을 유형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순서로 추진할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대상지와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깊이 검토하며 현실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11-1. 밀양 페스타 과정

참여 전시

내일의 밀양 소통 협력 페스타

투표 참여자 124명 : 밀양 시민 86명 + 밀양 외 38명

일시·장소: 2025년 11월 28~29일, 밀양소통협력센터[(구) 밀양대]



밀양의 현황을 보는 시민들



미래 신문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들

공개 토론

발제 :

국내 압축 사례 변은주(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진행 과정 이승호(UNIST 교수)

토론 :

(좌장) 이석환(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김희경(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윤주선(충남대학교 교수)
(토론) 김종성(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정섭(UNIST 교수)



국내 압축 사례 발표 중인 변은주 AURI 부연구위원



사업 아이템을 살피고 피드백을 남기는 시민들

2-11-2. 밀양 페스타 사진



시민 워크숍의 사진과 인용문을 담은 공중 전시물을 살펴보는 시민들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 중인 이석환 교수



밀양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목소리 카드를 살펴보는 어린이



정책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는 시민들



페스타 현장을 촬영 중인 KBS 방송국 제작진들



밀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

2-11-3. 밀양 페스타 전문가 토론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활 중심' 압축 전략

현재 행정 중심의 생활권 설정과 시민이 체감하는 활동권이 분절되어 있으며, 주민의 지역 애착으로 인해 인위적인 도시 압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형 개발 모델을 지양하고 실제 활동권을 반영한 **생활 거점 중심의 압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가교 역할을 할 **맞춤형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도시 재구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거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연결망 강화 및 네트워크 확보 전략

우수한 광역교통망이 오히려 대도시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빨대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와 환승 체계 등 내부 연결망이 취약해 생활권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통과형 이동에서 벗어나 역과 시내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잇는 **맞춤형 체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15분 도시 개념을 중소도시의 구심력 강화로 재정의하여 내부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대도시들의 연계 사이에서 양산과 같은 중소 도시는 빨대 효과가 오히려 인구만 빠져나가고 기능들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하는 것 당연하다.” (김회경 동아대학교 교수)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정주 생태계 조성

상급 학교 진학 단계마다 우수 인재가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대학과 청년 활동 간의 연계가 부족해 정착 동기가 약화되고 있다. 양적 인구 증대보다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적정 인구 유지**로 관점을 전환하고, 대학-지역을 묶는 **교육·정주 통합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단발성 사업을 넘어 일·주거·활동이 결합된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지역을 하나도 모르는...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서 지역을 알고 이 지역에서 내가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그것만으로도 대학의 역할이 있다.”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외곽 자원의 시내 유입을 위한 체류형 연계 설계

관광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외곽에만 머물다 떠나는 통과형 관광 구조 탓에 시내 지역 경제와의 연결성이 매우 낮다. 단순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동선-체류-소비'**가 시내까지 이어지도록 관광 자원 주변 콘텐츠를 패키지화하는 연계 설계가 핵심이다. 주요 거점 시설을 외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 외곽 자원의 파급력을 시내로 확산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밀양 시내를 방문해서 몇 시간을 머물면서 구경을 하시거나 또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연계 ... 그런 면에서 여러 거점 시설들이 외부 오시는 분들도 같이 소비할 수 있게”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

인구 대비 과도한 공공시설 건립은 향후 이용률 저하와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시설 운영을 뒷받침할 인력과 인프라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 재배치와 통합을 통해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립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운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민간이, 주민이 거점 시설을 관리 운영할 때 필요한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 개인적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들”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통합적 거버넌스 및 성과 체계 변화 필요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행정 내부의 강력한 칸막이 구조 탓에 부서 간 협업과 다학제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자체장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협업 중심의 연계형 시스템**으로 재설계하고, 빠른 피드백 시스템을 유연한 순환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행정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여 계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다학제적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은 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려면 잘 안돼요. 각 부서 간 연계가 안 될 확률이 안 될 확률이 99.5% 이상 됩니다.”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2-11-4. 안동 페스타 과정

참여 전시

안동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대 공동체 나눔행사

투표 참여자 188명 : 안동 시민 133명 + 안동 외 55명

일시·장소: 2025년 12월 12일-13일,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안동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시민들



사업 아이템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시민들

공개 토론

발제 :

해외 압축 사례 발표 : 송준환(일본 야마구치 국립대 교수)
국내 압축 사례 발표 : 변은주(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진행 과정 발표 : 이승호(UNIST 교수)

토론 :

(좌장) 김주일(한동대학교 교수)
(토론) 임서현(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송준협(국립경국대학교 교수)
(토론) 김준우(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섭(UNIST 교수)



미래 신문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들



전문가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2-11-5. 안동 페스타 사진



시민 워크숍의 결과로 제작한 다양한 미래 신문을 살펴보는 시민들



시민 워크숍의 사진과 인용문을 담은 공중 전시물을 살펴보는 시민들



작지만 행복한 미래 안동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촬영하는 시민



정책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착하는 어린이



페스타 전시물을 살펴보는 권기창 안동 시장



목소리카드를 읽고 의견을 작성하는 시민

2-11-6. 안동 페스타 전문가 토론 주요 내용

다핵 생활권 기반 네트워크형 거점 구조로의 전환

도시의 성장기에는 생활권 각각이 하나의 컴팩트한 생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신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생활권과 원도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원도심 재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선택적 비우기와 거점 간 네트워크 재편이 동시에 요구된다.

“안동은 앵커 도시라기보다는 문경, 예천과 수평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도시 내부에서도 읍면동 간 네트워크를 다시 봐야 합니다.” (김준우 대구대학교 교수)

구심력 강화와 내부 연결을 위한 도시 재구조

교통은 시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도시 서비스이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 조건이다. 지방 도시들은 면적이 넓고 도심과 외곽의 밀도 차이가 크므로 기존 노선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비효율이 두드러지며, **수요응답형 교통과 같은 유연한 이동권 보장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교통 체계 전환은 주민 인식과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지방 도시는 도시 규모와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선진 모델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생활 이동 구조가 청년 정주를 좌우

청년 정주 문제는 단순한 인구 유출이 아니라, 도시 확장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 구조와 이동 환경의 문제로 나타난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역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일상 이동의 불편이 누적되었다. 컴팩트한 거점 형성은 **청년과 학생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 비로소 작동한다.

“광역 교통은 좋아졌는데 터미널에서 대학까지 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도시 확장 정책의 결과입니다.” (송준협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압축은 산업과 일자리가 결합할 때 지속

Right-sizing은 공간을 재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산업과 일자리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같은 장기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은 공간 구조와 분리될 경우 실질적인 정주 효과를 만들기 어렵다. 거점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산업 활동의 결절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까의 문제와 그 공간에서 어떤 산업과 인재를 키울 것인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송준협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빈집 관리와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운영 방식 전환

원도심과 농촌 지역에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임대나 재생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행정적·법적 부담이 크다. **선택적으로 매입하고 비위 주차장이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도시 운영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다. 이는 점진적인 컴팩트화를 유도하는 관리 전략에 가깝다.

“임대 방식은 10집 중 3집만 가능하고, 1년 넘는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사는 게 낫습니다.” (권용대 안동시 도시건설국 국장)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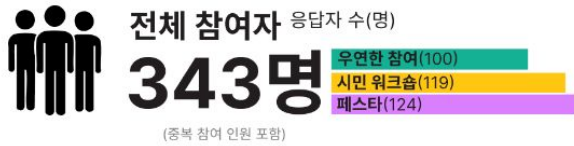
Right-sizing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는 서로 다른 부처와 법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합적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시민보다 오히려 행정과 정치가 인식 전환에 더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드러난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고 고민하려고 용기를 내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주일 한동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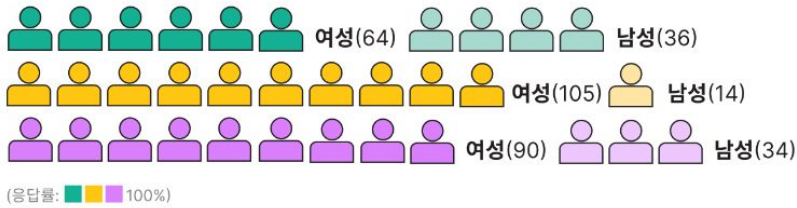
3. 리빙랩 참여 시민 통계

참여자 수, 성별, 연령, 직업, 장애 여부,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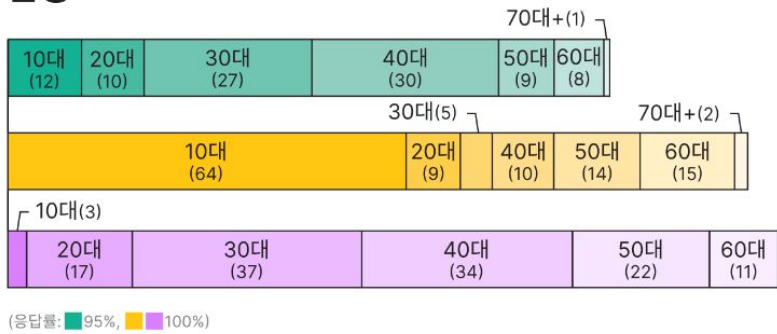
3-1. 밀양 리빙랩 시민 참여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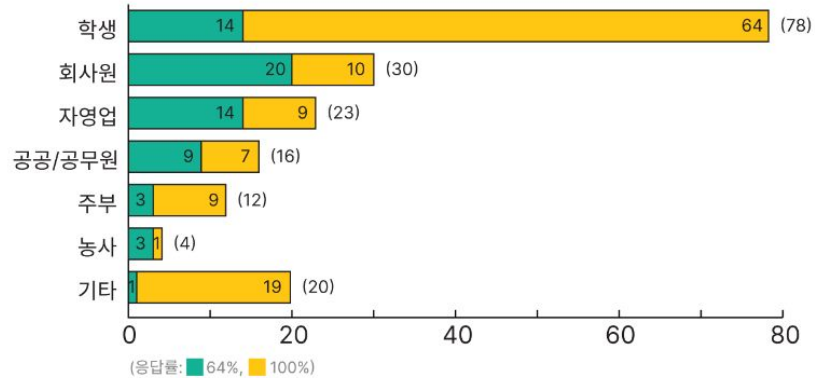
◆ 성별 응답자 수(명)



◆ 연령 응답자 수(명)



◆ 직업 응답자 수(명)



밀양 토박이부터 최근 정착한 시민까지 다양한 의견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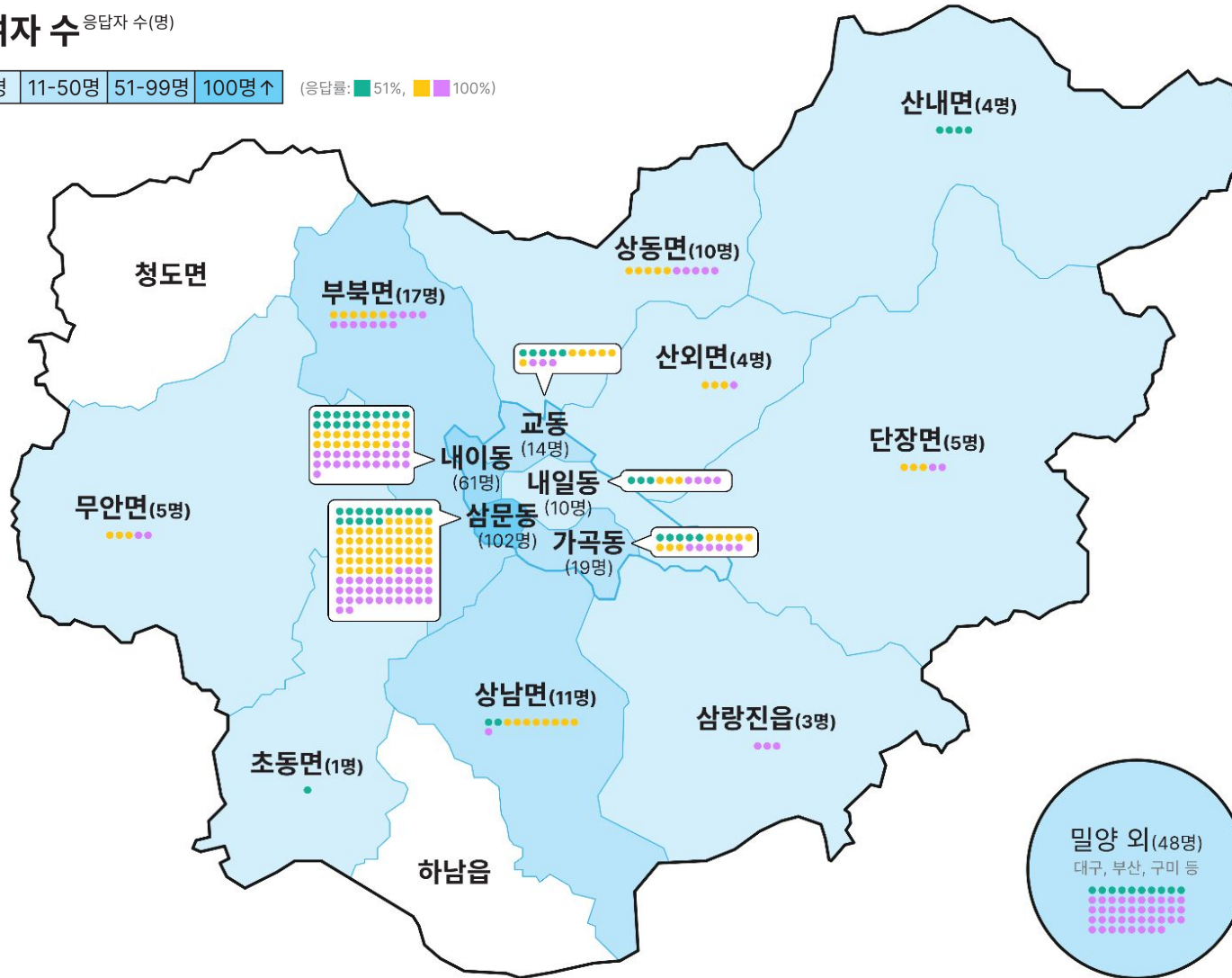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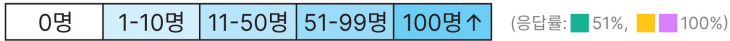
연구진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시민을 모객하였다. 협력 기관인 밀양소통협력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플레이어, 단체 및 유관 기관을 소개받았고, 연구진이 거리에서 진행한 ‘우연한 참여’에서 대화를 나눈 주민들을 초대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기관과 상점에 직접 찾아가 홍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청년, 소상공인, 최근 전입인, 장애인, 도시 외곽 주민, 아이를 키우는 주민 등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밀양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문의했다.

시민 워크숍 참여자 중 과반이 넘는 밀양외고 학생들은 우연한 참여에서 만난 교사의 제안으로 참여가 성사되었고,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의 지원으로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3-2. 밀양 리빙랩 시민 참여자 거주지

◆ 동네별 참여자 수 응답자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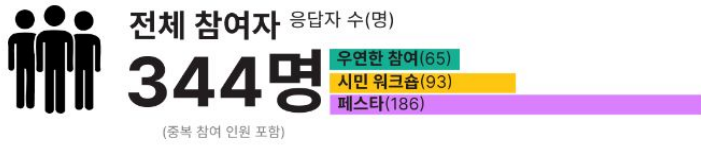
밀양 원도심 (구) 밀양대학교, 삼문동, 면 단위 등 도심과 외곽 주민의 의견을 두루 청취

1990년 대부터 개발된 주거 밀집 지역인 삼문동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원도심인 내이동 주민의 수가 뒤를 이었다. 밀양의 가장 큰 축제인 아리랑 대축제, 주말에 열리는 '느린 물결 마켓' 팝업 시장에 찾아가 우연한 참여를 진행해 의견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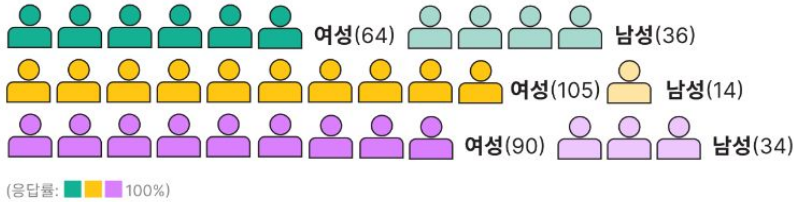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연결된 지역의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워크숍 참여자를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밀양 소통협력센터와 긴밀한 협력으로 리빙랩 과정에서 밀양을 향한 애정과 고민을 나누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페스타 참여자 중 밀양 외 지역 시민은 대체로 (1) 업무와 학업 등 이유로 밀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행정상 거주지가 다른 소위 관계 인구, (2) 대구, 창원 등 인접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다. 전시를 단순 관람한 인원은 참여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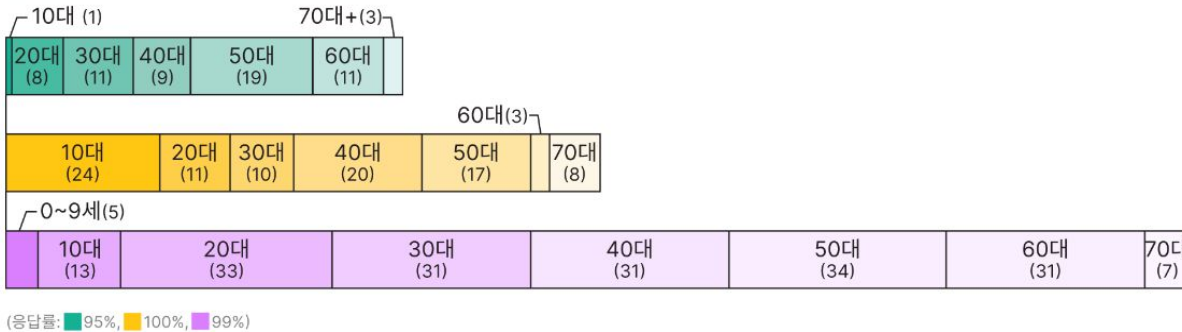
3-3. 안동 리빙랩 시민 참여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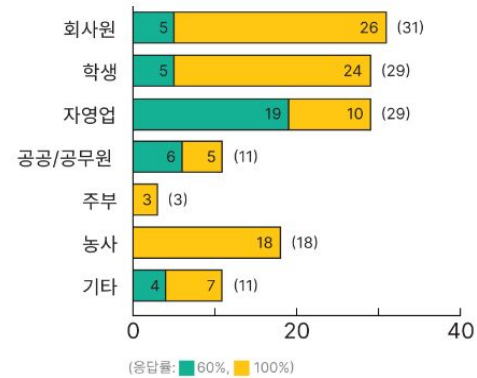
◆ 성별



◆ 연령



◆ 직업



안동 토박이부터 최근 정착한 이주민까지, 다양한 시민의 의견 청취

참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시민을 타깃으로 모객을 진행했다. 협력 기관인 안동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플레이어, 단체 및 유관 기관을 소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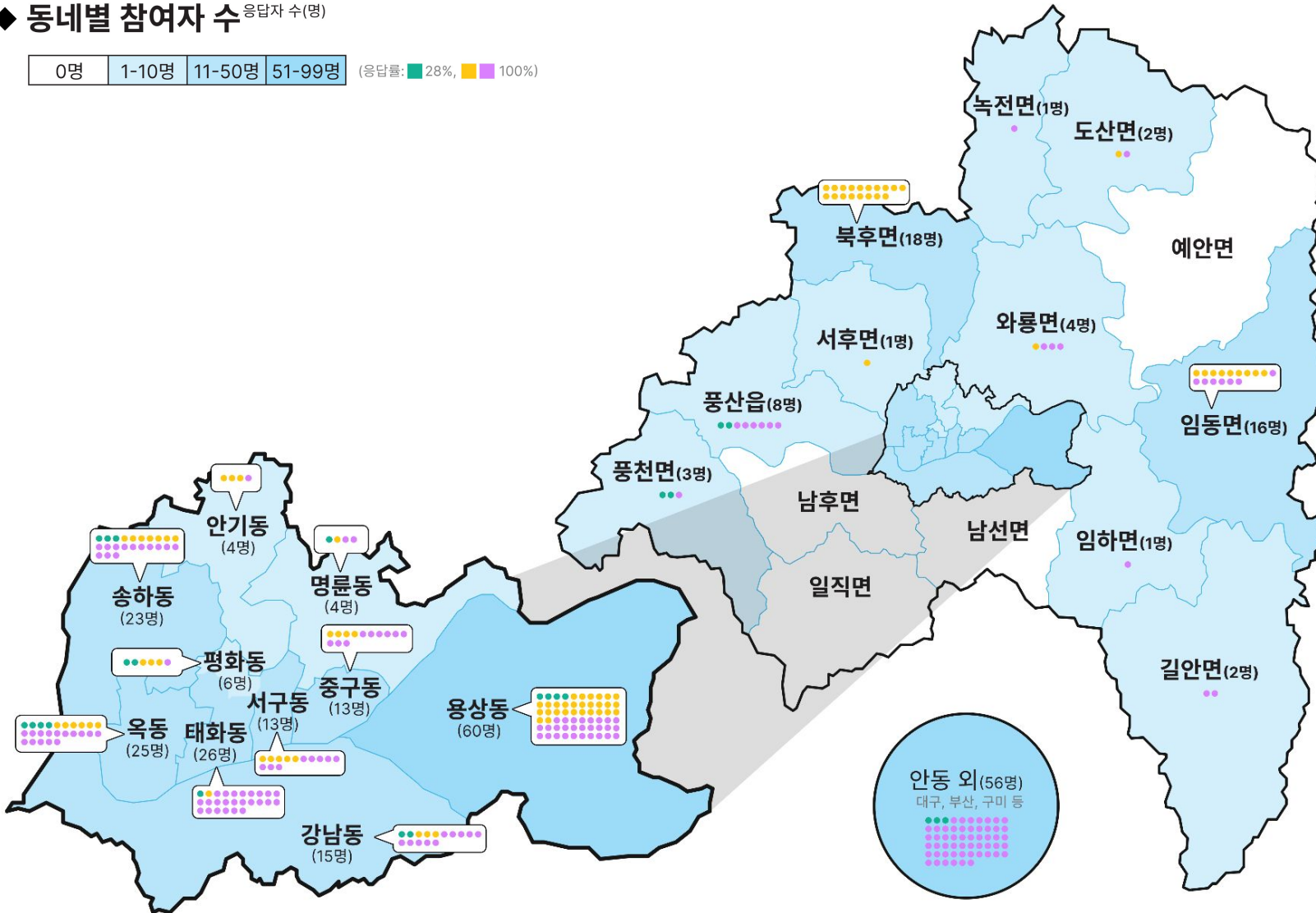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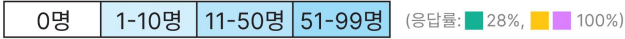
연구진이 거리에서 진행한 ‘우연한 참여’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을 초대하기도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기관과 상점에 직접 찾아가 홍보를 요청드리기도 하였다.

안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2030세대, 중고등학생과 그 부모님, 안동에서 창업한 자영업자, 먼 단위 농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모객을 진행했다.

장이 서는 날 참여자 그룹이 모이기 편한 일정으로 의도적으로 안동에 찾아 시민 의견을 파악했다.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도움으로 경증/중증 시각장애인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3-4. 안동 리빙랩 시민 참여자 거주지

◆ 동네별 참여자 수 응답자 수(명)



물리적으로 넓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도심과 외곽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청취

협력 기관인 안동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자문과 인적 네트워크 연결로 주요 거주지역과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분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인 용상동에 거주하는 참여자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북후면과 임동면 주민들은 연구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진행한 워크숍에서 만날 수 있었다. 면 지역 주민은 안동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액션 그룹 활동가를 중심으로 모객되었다.

페스타 참여자 중 안동 외 지역 시민은 대체로 (1) 업무와 학업 등 이유로 안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행정상 거주지가 다른 소위 관계 인구, (2) 대구, 의성 등 인접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다. 전시를 단순 관람한 인원은 참여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4. 도시의 과거-미래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밀양과 안동 시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 도시 쇠퇴, 압축 미래

4-1. 밀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분석

밀양 시민이 인식하는 부족한 삶의 질 요소

우연한 참여에서 만난 시민과 밀양 페스타에서 사업카드 피드백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해 (1) 밀양의 쇠퇴와 (2) 압축된 밀양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생존·생계 Subsistence	밀양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일자리 여건 이 주요한 제약으로 인식	이해·배움 Understanding	학교 축소 및 통학 부담 을 걱정하는 한편, 시외의 작은 학교의 폭 넓은 지원 을 좋은 기회로 긍정하기도 함	창조·생산 Creation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거나 창의적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언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음
보호·안정 Protection	야간·응급·특정 진료 상황 에서 밀양 내에서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움	참여·연대 Participation	행정·정책 관련,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느낌	정체성 Identity	밀양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면서도, 덧씌워진 부정적 도시 이미지 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느낌
애정·애착 Affection	조용한 환경과 익숙한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 을 느끼는 한편, 새로운 관계 형성에는 거리감과 제약 이 따른다고 봄	여가·즐거움 Leisure	아이나 청년이 즐길 여가·문화·놀이 공간 이 부족해 불편을 느낌	선택·자유 Freedom	생활과 정주에서 선택지의 폭이 좁아 , 더 다양한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인식

막스-니프의 인간 기본 욕구 이론을 활용한 분석

위 분석은 개발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니프(Manfred Max-Neef)가 제시한 **9개의 인간 기본 욕구 이론**을 활용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한하고 보편적인 반면, 이를 충족하는 ‘만족자(satisfiers)’는 사회·공간·제도적 맥락에 따라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쇠퇴·축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기본적인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본 이론을 분석에 활용한다.

연구진은 시민 발화를 욕구 모델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거나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위해 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이 언급하는 삶의 조건, 불안, 기대 등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렌즈로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발화가 특정 욕구 범주에 환원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현재의 도시 조건과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어떤 가능성과 한계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레임으로 활용된다.

본 분석 과정에서는 ChatGPT를 보조적 분석 파트너로 활용하였다. 코드 정리와 해석의 일관성 점검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판단과 해석의 책임은 연구진에게 있다.

4-1-1. 밀양에서 충족되지 않는 삶의 질 요소 분석

밀양 시민의 삶의 욕구별 인식 현황 분석

생존·생계 Subsistence

지역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 의료와 일자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상에서 불편과 제약이 발생한다고 인식한다.

보호·안정 Protection

야간·응급·특정 진료 상황에 이용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특히 아이 양육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 불안을 유발한다고 느낀다.

애정·애착 Affection

밀양의 한적함과 자연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한편, 원주민 중심의 익숙한 관계망 속에서 외부인과 이주민은 새로운 관계 형성에 거리감과 제약을 느낀다.

이해·배움 Understanding

학교 축소·소멸과 통합 부담에 대한 우려, 통학 거리와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자녀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인식이 나타나는 한편, 시외의 작은 학교가 제공하는 폭넓은 지원을 긍정적 기회로 보며 선호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참여·연대 Participation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여가·즐거움 Leisure

아이나 청년이 즐길 여가·문화·놀이 공간과 선택지가 부족해 불편을 느끼며, 밀양 내 일상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청소년과 청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창조·생산 Creation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거나 창의적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언급과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생존·불편·인프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집중되어 있다.

정체성 Identity

밀양을 깨끗하고 조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면서도 밀양 여중생 사건과 영화 밀양 등 특정 사건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인식이 공존한다.

선택·자유 Freedom

생활과 정주 과정에서 의료·교육·생활 기능의 축소로 선택지의 폭이 좁아져 통합 및 밀집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느끼며 더 다양한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시사점

시민들은 밀양을 당장 삶이 불가능한 도시는 아니지만 의료와 일자리, 교육과 이동이 악화될수록 일상이 점점 불편해진다고 인식한다. 특히 **의료·교육·생활 기능의 축소와 통합**으로 선택지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특정 선택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밀양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기존 주민 중심의 관계망 속에서 외부인 등과 새로운 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관계의 안정감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이와 청년을 중심으로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의 부족**을 일상에서 체감한다. **학교 축소와 통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시외의 작은 학교가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로 긍정**하는 양가성이 드러난다. 개인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더라도 특정 사건과 미디어 재현으로 형성된 **부정적 외부 이미지**가 도시의 의미와 자부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여긴다.

종합하면 **생활은 유지되지만 선택과 가능성이 점차 좁아지는 구조 속에서, 안정·관계·정체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균형 상태의 도시**로 인식된다.

4-1-2. 밀양의 쇠퇴와 압축 미래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분석

도시 쇠퇴에 대한 인식

청년이 머물 수 없는 지역이라는 공통된 진단

지역 쇠퇴의 주된 요인으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일자리, 문화, 관계망이 함께 작동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반복된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도 좀 있으면 그 청년들이 모이니까. 일자리가 농사나 공장 빼고는 없다 들었는데...” (30대 회사원)

“교육적인 부분이나 문화나 놓 수 있는 그런 부분들 [...] 특별히 젊은 층이 가는 그런 문화 시설은 아니거든요.” (40대 회사원)

의료·교통·교육 인프라가 지역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병원, 교통, 교육 문제는 편의의 영역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기준으로 인식된다.

“밀양에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 회사원)

“(주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도시 쪽으로 가요. [...]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밀양에서는” (40대 자영업자)

자연에 대한 애정과 대비되는 활력 전환의 한계 및 부정적 이미지

많은 시민들은 밀양이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정주하기에 좋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청년 유입이나 도시 활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이사가 온 이유가 이 친자연적으로 아이들도 성장을 하게 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학군을 버리고 온 거거든요” (30대 양육자)

“[밀양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밖에 모르고 밀양에 와본 사람은 없고...” (30대 양육자)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공존

시민들은 행정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본적 전환보다는 단기 또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머문다는 실망을 공유한다.

“밀양에 온다고 해서 다른 시보다 특별한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구를 증가하고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20-30대 자영업자)

압축 미래에 대한 인식

불가피한 전환으로서의 압축에 대한 제한적 수용과 미래 불안

일부는 제한적 기대를 보이지만, 일부는 압축 너머 도시 존속 자체에 대한 불안을 토로한다.

“인구가 감소되니까 학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현실을 반영한 건데...” (40-50대 학부모회장)

“근데 밀양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미국처럼. 이 촌 단위에 이렇게 투자해 봐야 인구는 계속 줄고 답이 없어요. 이거 다 버리는 돈이거든요. (40대 회사원)

압축 작동 위한 전제 조건인 교통·접근성·임대구조

압축은 열악한 교통, 보행, 주차 환경과 함께, 높은 임대료, 공실 등 상권 운영 구조 문제는 압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전제처럼 언급된다.

“밀양 상권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뭔가 안전한 도보길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주차장들이 없어서...” (30대 교사)

“공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려는 가계가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20대 사회복지사)

핵심 지역 선정에 있어 형평성과 배제의 문제

시민들은 핵심 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이동이 어려운 집단의 배제를 우려하며, 학교 압축 역시 불가피성 수용과 형평 문제 인식이 함께 나타난다.

“정책적으로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밀양 토박이)

“이렇게 되면은 그 시내만 학교가 있으면은 그 외곽에 있는 애들은 학교를 통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긴 하죠” (교사)

압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의 구조적 변화

일부 시민들은 압축이 의료 인력 수급이나 소비 방식 변화와 같은 외부 구조적 요인에는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며, 압축의 효과에 한계를 둔다.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 줘도 의사들이 4억, 5억 줘도 안 온다 카는데 얼마를 더 줘야 오겠습니까? (40대 회사원)

“상권은 솔직히 지[...] 인터넷 상권들을 선호하[서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40대 자영업자)

4-2. 안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 분석

안동 시민이 인식하는 부족한 삶의 질 요소

우연한 참여에서 만난 시민과 안동 페스타에서 사업카드 피드백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해 (1) 안동의 쇠퇴와 (2) 압축된 안동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생존·생계 Subsistence	당장은 유지되지만, 노년기·질병·응급상황 의 경우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형성되어 있음	이해·배움 Understanding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의 축소가 배움의 일상성을 흔들고, 교육 선택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로 겹쳐지는 상태	창조·생산 Creation	활성화·전환 시도가 종종 이뤄지지만, 메리트가 부족하거나 현실적 장벽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고 인식됨
보호·안정 Protection	시설은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제도·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 이라는 신뢰 약함	참여·연대 Participation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도 개인이 개입할 수 없다 거나 노력해봤는데 안된다고 여김	정체성 Identity	현재의 안동을 설명하는 언어보다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서만 의미화 되는 상태
애정·애착 Affection	가족·이웃·세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 되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재생산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	여가·즐거움 Leisure	여가 공간이 특정 세대에 편중되어 다세대적 즐거움이 사라졌다 고 봄	선택·자유 Freedom	이동·거주·노후·일자리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수용 해야 하는 구조로 인식

막스-니프의 인간 기본 욕구 이론을 활용한 분석

위 분석은 개발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니프(Manfred Max-Neef)가 제시한 **9개의 인간 기본 욕구 이론**을 활용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한하고 보편적인 반면, 이를 충족하는 ‘만족자(satisfiers)’는 사회·공간·제도적 맥락에 따라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쇠퇴·축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기본적인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본 이론을 분석에 활용한다.

연구진은 시민 발화를 욕구 모델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거나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위해 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이 언급하는 삶의 조건, 불안, 기대 등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렌즈로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발화가 특정 욕구 범주에 환원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현재의 도시 조건과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어떤 가능성과 한계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레임으로 활용된다.

본 분석 과정에서는 ChatGPT를 보조적 분석 파트너로 활용하였다. 코드 정리와 해석의 일관성 점검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판단과 해석의 책임은 연구진에게 있다.

4-2-1. 안동에서 충족되지 않는 삶의 질 요소 분석

안동 시민의 삶의 욕구별 인식 현황 분석

생존·생계 Subsistence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노년기·질병·응급 상황 시 먹고 사는 기반과 건강 유지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 접근성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참여·연대 Participation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세대 간 단절로 집단적 행동이 어려웠던 경험이 겹치며, '개인이 개입해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인식한다.

선택·자유 Freedom

이동·거주·노후·일자리 선택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교통·의료 접근성의 제약이라는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구조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삶과 직업의 선택지가 축소되어 결국 도시를 떠날 수 밖에 없다는 발화가 드러난다.

보호·안정 Protection

의료 시설은 존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제도와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약하다. 응급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대기·전문의 부족 등으로 보호의 기준이 '시설의 유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여가·즐거움 Leisure

여가 공간이 특정 세대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 사라진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도시의 여가 및 상권 구조가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사점

안동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생존과 보호의 불안, 관계 재생산의 어려움, 배움과 참여의 위축, 선택지의 구조적 제한**이 서로 얽히며 동시에 약화되는 상태로 나타난다. 일상은 당장 유지되나, **노년기·질병·응급 상황**에 접어들수록 먹고 사는 기반과 건강을 동시에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이 드러난다. 특히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보호의 감각은 시설의 유무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애정·애착 Affection

가족·이웃·세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며, 관계의 유지·재생산이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특히 지속적인 전출로 관계망이 점차 비어가므로 돌봄과 애착의 회복이 공공 또는 이웃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가 함께 드러난다.

창조·생산 Creation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만들어보는 창의적 활동에 대한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발화는 주로 생존·불편·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 인식에 집중되어 있다.

관계와 애착의 측면에서는 또래·자녀 세대의 지속적인 전출로 인해, **애착 관계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배움과 이해의 욕구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 축소 속에서 지속되기 어렵게 느껴지며, 도시를 떠나는 이유와 맞물려 언급된다. 또한 시민들은 도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나 변화 과정에 스스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이는 참여와 연대의 욕구를 제한한다.

이해·배움 Understanding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과 인프라 축소가 배움의 일상성을 흔들고, 도시를 떠나는 이유로 인식된다. 아이들이 결국 외지로 정착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편,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공존한다.

정체성 Identity

현재의 안동을 설명하는 언어는 부족하며, 도시에 대한 인식은 주로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서만 의미화 된다. '예전에는...'이라는 회고적 서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현재 안동의 모습이나 지향 가치, 정체성을 설명하는 언어는 부족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안동에서의 삶은 **제한된 일자리·의료·교통·교육 조건에 맞추어 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태**로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저하는 단일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들이 서로를 지탱하지 못한 채 연쇄적으로 약화되는 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4-2-2. 안동의 쇠퇴와 압축 미래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분석

도시 쇠퇴에 대한 인식

인구감소·공동화는 통계가 아니라 생활에서 체감

시민들은 쇠퇴를 담론으로 설명하기보다, 젊은층 부재·고령화·공실 같은 징후를 일상 관찰로 말한다.

“요새 입신 테스트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젊은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체감해요” (60대 약사)

“한 집 건너 예전에는 꼭 찻던 시내 거리가 이제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씩 다 임대를 적어 놔으니까 공실이 계속 나는 걸 보면 시내가 자꾸 빈다고 봐야죠.” (50대 자영업자)

인구·관계망·도시 기능은 서로를 밀어내는 상호 강화 악순환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는 단선 인과로 고정되지 않고, 또래 이탈, 기능 쇠퇴, 정주 매력 저하 등이 서로 맞물려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애들이 크면은 외지에서 공부하고 외지에서 자리 잡고 당연히 그러니까 인구 유출은 이제 가속화되고 애들은 점점 더 안 태어나겠죠.” (50-60대 자영업자)

쇠퇴 원인을 개인이 아닌 도시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

도시 쇠퇴를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 또는 인구감소 때문이 아닌, 일자리 구조·입지·제도적 제약 같은 구조적 문제로 개인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안동이라는 지역의 일자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이런 공기업 같은 그런 직종이 아니면은 일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30대 사업가)

“댐 때문에 공업시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일자리는 타 지역에 뺏기는...” (50-60대 자영업자)

의료·돌봄 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만족과 동시에 결정적 한계 인식

나름대로 큰 병원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심각한 상황에서의 신뢰·선택은 다른 기준으로 말한다(대도시 이동, 전문·응급의 한계 등).

“근데 안동에 정신의학과가 의원이 딱 한 개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약하려고 알아보셨는데 3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로 가서가지고” (40대 대학 강사)

압축 미래에 대한 인식

압축이 이미 불가피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

안동 시민들은 압축을 미래의 정책 선택지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인구 감소와 시설 소멸의 연장선상에 놓인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식하여, 축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말해진다.

“그냥 어차피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없어질 거고 차례대로. 지금 벌써 안동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폐교한 곳이 많거든.” (40대 자영업자)

압축이 가져올 생활 편의·효율에 대한 실용적 기대

도시 압축을 통해 주요 기능이 모일 경우 이동·통신·이용 측면에서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실용적 기대가 나타난다. 이 기대는 주로 고령자 일상과 교육 여건 등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시장 안 가고 마트로 가는데 굳이 시장 규제 이렇게 크게 놔두는 바에는 옆에 공원까지 만들어서 애들 데리고 시장도 왔다가 나중에 공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죠)” (30대 자영업자)

일상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될 때 수용 가능

압축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교통·통학·통원·응급 대응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일일이 데려다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버스가 매일 그런 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60대 부부)

“일정 거리에 모여있는 건 좋은데, 그 병원이 몇 개인가보다 믿고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대학 교수)

자칫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할 수 있다는 회의

일부 시민들은 압축이 일자리, 인력, 산업, 보상 등 지방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험과 불편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사실 응급 상황이 많단 말이지...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40대 대학 강사)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50-60대 강사)

5.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업 및 우선순위

밀양과 안동을 위한 사업 아이템과 시민이 뽑은 사업 우선순위

5-1.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총 11개의 사업 아이템

압축 핵심 Compact Core

도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핵심축을 선정하고 무분별한 외곽 개발 및 확장 억제

압축 핵심 Compact Core

단계적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해천-석정로 녹지축 조성 도심 활성화 전략
해천 녹지축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도심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빈 집, 빈 점포 등 도심 유휴공간을 시민이 함께 혹은 주도로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빈집을 사회·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빈집을 재활용하여 밀양의 공공 인프라이자 공유 자산으로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시민이 주도적으로 빈 공간을 모의 창업과 지역 실험의 공간으로 전환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구) 밀양대 주거 타운
외국인, 학생, 청년, 학령기아구 등 사회통합형 주택 구) 밀양대 캠퍼스 연계

생활·돌봄 Life & Care

의료, 주거, 문화, 보행환경 등 일상생활 기반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돌봄 Life & Care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교위험 인산부 24시간 응급 대응 전화 행복대-밀양병원 원격 의료 협진 시스템

밀양 성곽 및 강변 둘레길 조성
밀양의 옛길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길로 전환

빈집을 전환한 외국인 전용 주택
내일·내이동 곳곳의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주택 조성 밀양 내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지역민과의 교류 지원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편리한 교통으로 도시 곳곳이 연결되어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도심 활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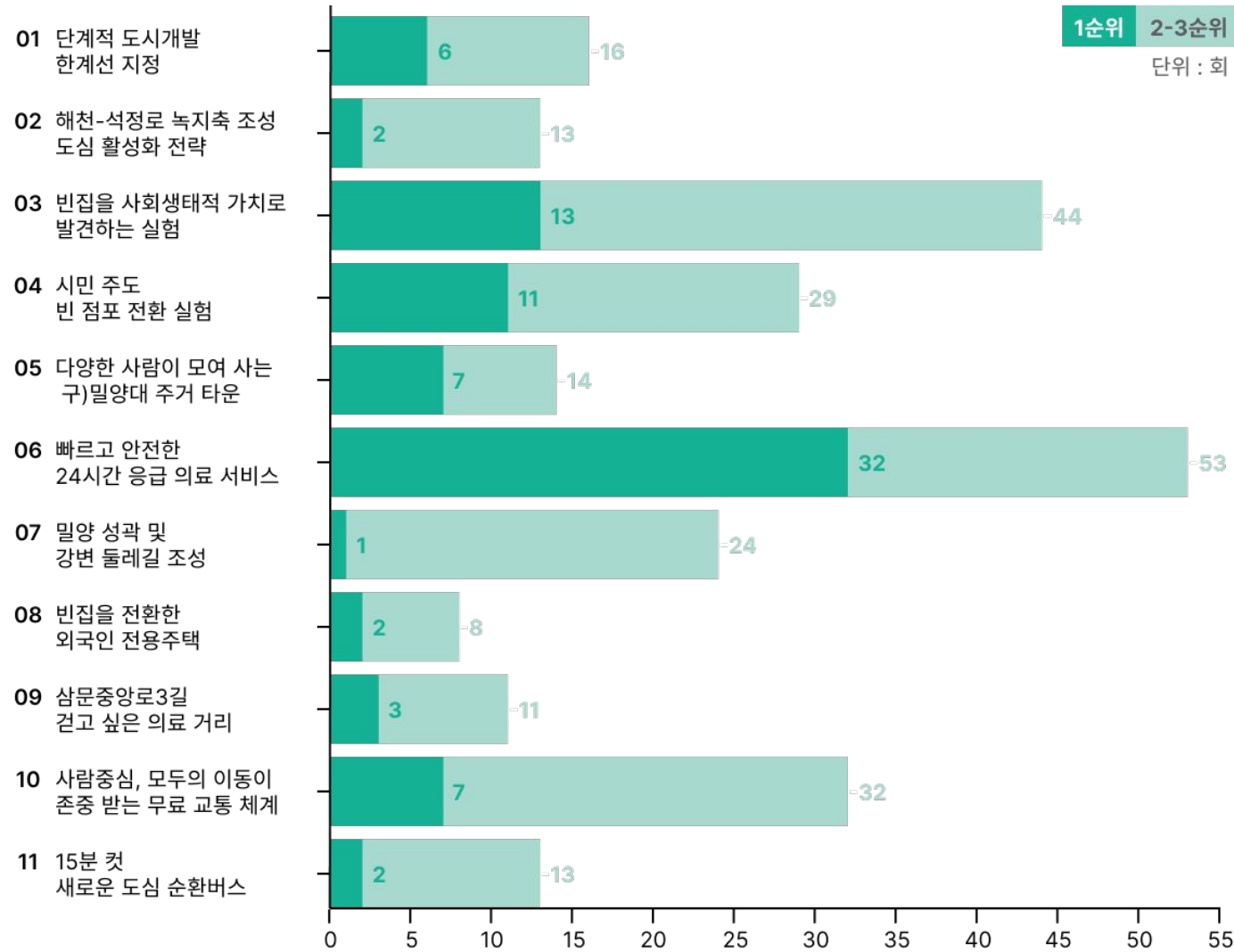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15분 컷 새로운 도심 순환버스
급행과 순환버스로 이어지는 편리한 대중교통망

사람중심, 모두의 이동이 존중 받는 무료 교통 체계
연령·성별·장애 등 다양성을 아우르는 교통 체계

5-2. 밀양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1/3) - 종합 분석

발굴된 11개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순으로 3개를 선정하는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밀양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86명의 의견을 분석했다. 다음 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횟수와 2·3순위 선택 횟수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시민들의 1순위 선택 비중이 높은 사업

생활 돌봄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공간 전환 (03) 빈집을 사회 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공간 전환 (04)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공간 전환 (05)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구)밀양대 주거 타운(공동)

여러 순위에서 선택되어 누적 선택이 많았던 사업

공간 전환 (03) 빈집을 사회 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생활 돌봄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이동 순환 (10) 사람 중심, 모두의 이동이 존중받는 무료 교통 체계
공간 전환 (04)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최우선 사업

밀양 시민은 **공간 전환**과 **생활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3번(빈집을 사회 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4번(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6번(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사업은 1순위 선택 횟수와 누적 선택 횟수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집중 선호 사업

5번 사업은 누적 선택은 낮지만, 1순위로 원하는 사람이 많아 특정 집단에게 선호되는 **집중 선호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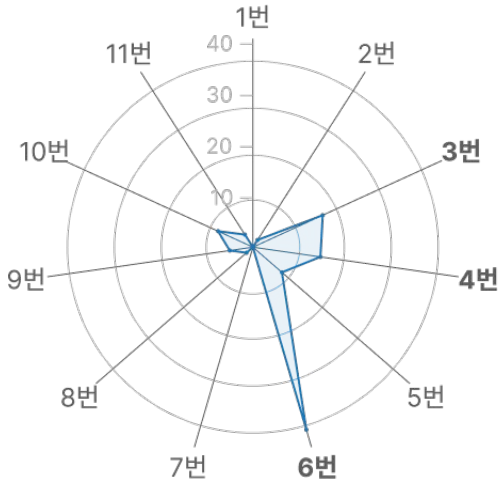
폭넓은 지지 사업

10번 사업은 1순위 선택 비중은 낮으나 누적 선택이 많아 **폭넓은 지지 사업**으로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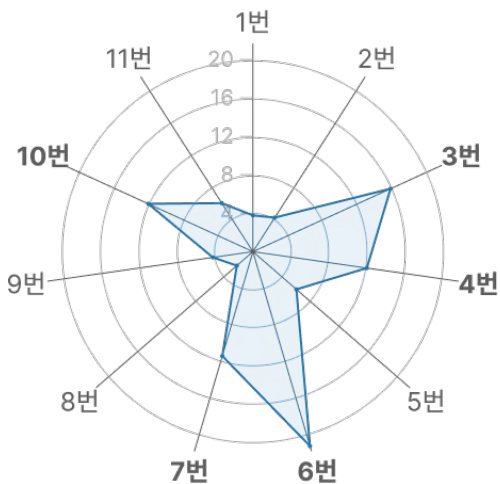
5-2. 밀양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2/3) - 거주 지역별 분석

전체 응답자 중 밀양에 거주한다고 표기한 86명은 동 지역 거주 시민 61명과 읍면 지역 거주 시민 25명으로 파악된다. 다음 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비율과 1·2·3순위 누적 선택 비율(합산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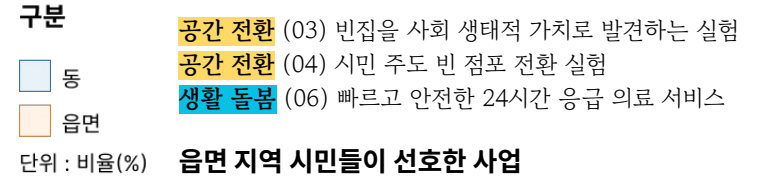
거주지역별 사업의 최우선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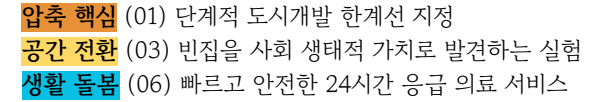
거주지역별 사업의 전반적인 선호도



동 지역 시민들이 선호한 사업



읍면 지역 시민들이 선호한 사업



거주 지역별 사업의 우선순위

도시 지역인 동 지역과 준도시·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은 생활환경, 이용 시설, 인구 밀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우선하는 사업 아이템이 다를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3번과 6번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동 지역 거주자의 16%와 읍면 지역 거주자의 20%는 3번 사업을, 동 지역 거주자의 21.4%와 읍면 지역 거주자의 18.7%는 6번 사업을 선택했다. 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새로운 공공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필요성과,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안전한 일상에 대한 요구가 밀양 전반에서 공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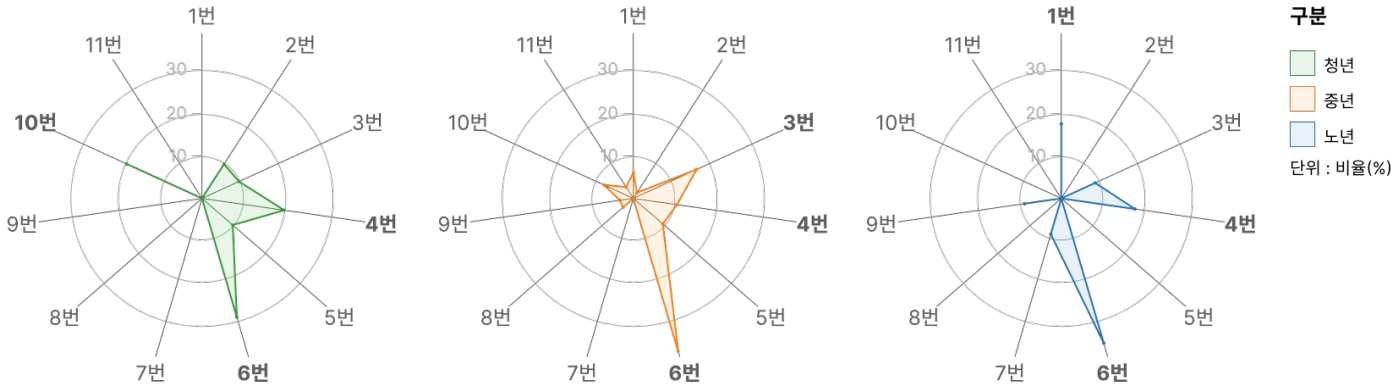
한편, 4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시민 주도의 실험과 창업,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특성으로 인해 동 지역 거주 시민들로부터 12.1%의 지지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상업·생활 기능이 밀집한 동 지역의 공간 구조와 시민 참여 기반이 이러한 실험적 활용 방식과 잘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번 사업은 무분별한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성장 관리 전략이라는 점에서 읍면 지역 거주 시민들의 12%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밀양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3/3) - 연령대별 분석

전체 응답자 중 밀양에 거주한다고 표기한 86명은 청년층(29세 이하) 10명, 중년층(30-59세) 65명, 노년층(60세 이상) 11명으로 파악된다. 다음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비율과 1·2·3순위 누적 선택 비율(합산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연령별 사업의 최우선 선호도



청년층이 선호한 사업

- 생활 돌봄**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 이동 순환** (10) 사람중심, 모두의 이동이 존중받는 무료 교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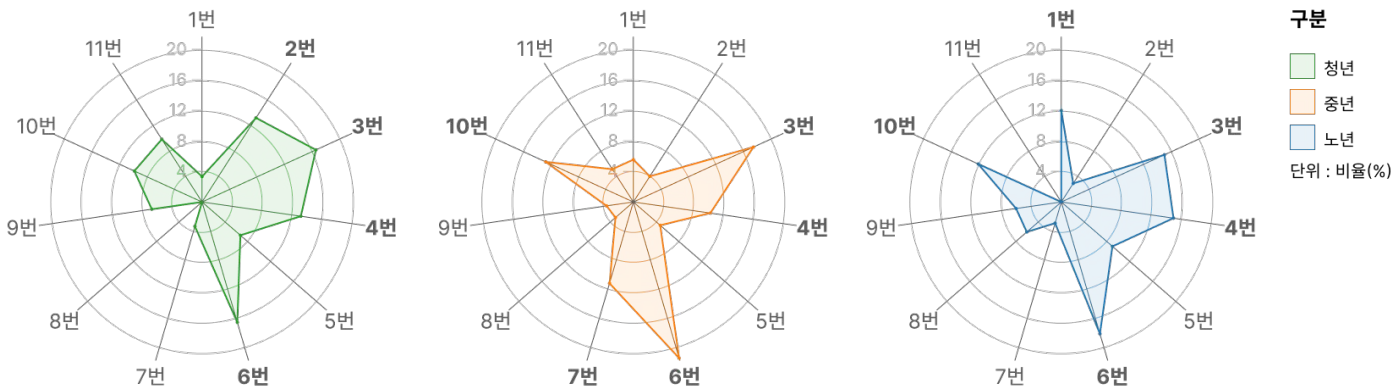
중년층이 선호한 사업

- 공간 전환** (03) 빈집을 사회 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 생활 돌봄**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노년층이 선호한 사업

- 공간 전환** (04)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 생활 돌봄**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연령별 사업의 전반적인 선호도



연령별 사업의 우선순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은 생활 방식과 관심사 등의 차이로 인해 우선하는 사업 아이템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층은 중년층과 노년층과 달리 20%가 10번 사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상 이동 서비스 제공이 일상적인 이동 빈도가 높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년층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3번 사업을 17.5%가 지지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전환해 일자리·창업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성이 가족 돌봄과 지역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중년층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6번은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청년층에 비해 중년층(38.5%)과 노년층(36.4%)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와 골든타임 보장에 대한 요구가 중·노년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년: 0대, 10대, 20대 / 중년: 30대, 40대, 50대 / 노년: 60대 이상

5-3. 밀양 페스타 개별 사업 아이템 피드백

총 11개 사업 아이템



총 124명의 시민참여 밀양 86명 + 밀양 외 38명



총 275개의 정성 피드백 (접착식 노트)



5-3-1.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11)

01. 단계적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카테고리 1. 압축 핵심 Compact Core



#도시계획 #도시개발

문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시 외곽 지역의 택지와 산단 개발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이미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도시를 계획할 수 있을까?

핵심내용

1.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 북쪽의 교통, 서쪽의 나노산단, 남쪽의 밀양역 부근을 분기점으로 도시개발한계선 지정
2. 도시개발한계선 이내 개발·기능 집중
3. 주요 간선별 계획축 지정
 - 녹지축 조성 사업과 의료·돌봄·복합지구 등의 계획축 기준 도심 재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진행

페스타 시민 피드백

무분별 확산보단
알차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밀양 외 지역 40대

말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삼남면 50대

무분별한 도시 공간
확산 방지

삼랑진읍 40대

도시개발 한계선
안에서 핵심 →
비핵심 →
자연공간, 공원

무안면 50대

중간중간 공원 등
휴게 공간 넣어서,
여백의 미를 주시면
좋겠다. 공원
공간이 계획 안되면
나중에 새로 하기
힘들어서 ...

무안면 50대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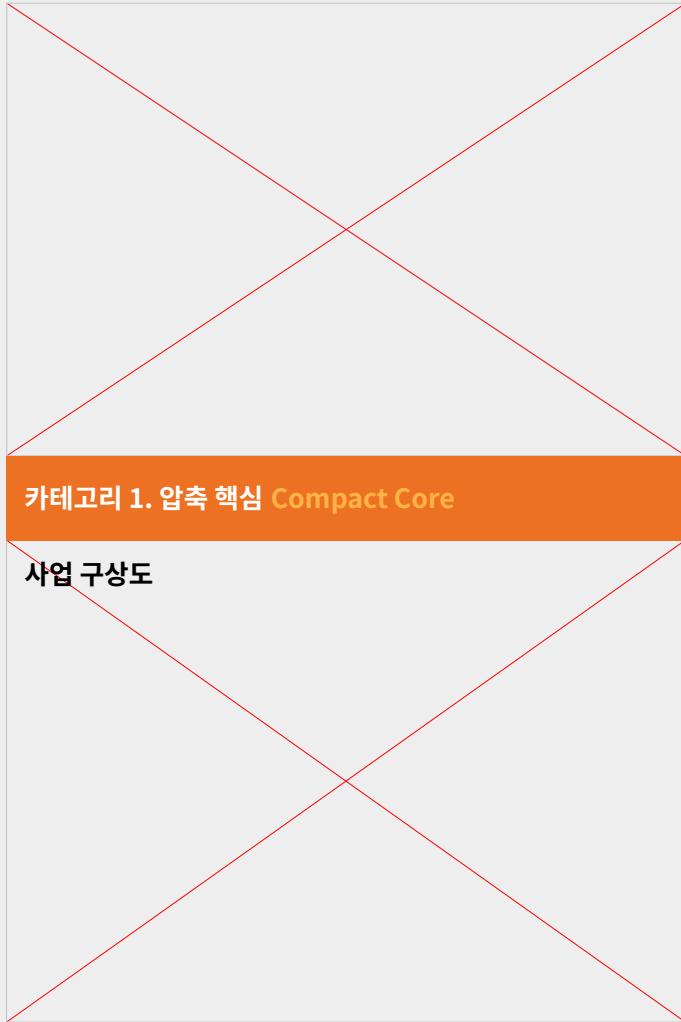
- 1년차: 도시개발한계선과 도시 외곽지역 개발 제한
- 1-15년차: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및 도심 주거 활성화
- 15년차 이후: 국가산단 입주 완료 후 단계별 도시 지역 확장 검토

기대효과

- 무분별한 도시 공간 확산 방지를 통해 도심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
- 단계적 도시개발 유도를 통해 적합한 소도시 성장 관리

5-3-2.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2/11)

02. 해천-석정로 녹지축 조성 도심 활성화 전략 해천 녹지축 중심으로 살아나는 원도심



카테고리 1. 압축 핵심 Compact Core

사업 구상도

#녹지 #보행 환경

문제

밀양대학교 이전과 인구 감소로 원도심 내 빈집,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대효과

- 녹지축 연계로 생활권 확장
- 마을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문제 예방

핵심 내용

1. 해천 중심의 녹지축 조성
 -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공실 밀집 지역을 정비·전환해 해천을 중심으로 주변 500m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녹지공간 조성
 - 녹지축을 활력 거점으로 주변 빈집과 빈 점포의 점진적 개발 유도
2. 보행교 건설을 통해 도보 이동 보장으로 생활권 확장
 - 녹지축과 삼문동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
 - 밀양강 북쪽 녹지축과 연계해 생활권 확장과 지역 활성화 도모
3. 민·관 협력 관리로 주민 주도적인 활동 및 마을 관리 모델 구축
 - 녹지축 환경 개선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운영을 민관이 협력해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축제, 플라마켓 등 주민 주도 행사 운영으로 원주민이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문제 예방

페스타 시민 피드백

다양한 업종의 점포를 (소품/독립서점 등) 빈 상가에 임대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나이동 30대

해천이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밀양의 흔적, 기억이 많은 곳이어서 도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라 생각해요.
나이동 20대

원도심 활성화로 상권을 활성화. 주민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부북면 50대

해천 및 강은 삶의 질을 높여 준다.
밀양 외 지역 20대

도시내 자전거.걸기 느낌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삼량진읍 60대

5-3-3.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3/11)

03. 빈집을 사회·생태적 가치로 발견하는 실험 빈집을 재활용하여 밀양의 공공 인프라이자 공유 자산으로



문제

밀양의 빈집이 880호를 돌파했다(2025, 공공데이터포털). 빈집은 애물단지라는 관점을 전환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밀양의 소중한 공공 자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기대효과

- 빈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창업을 위한 기반 확대
- 주민 주도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년·다문화·취약계층을 포용
- 탄소배출량 감축 및 순환경제 촉진, 21세기형 느려도 충분한 삶 모델 제시

핵심 내용

1. 민·관·학 협력으로 빈집 2~3채 파일럿 테스트
 - 초기 약 2년 간 지자체, 지역 대학, 기술 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시범 리모델링 후 더 큰 규모의 실험 추진
2. 빈집 재생을 넘어 새로운 순환경제형 주거 모델 구축
 -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주거
 - 지역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리모델링
 - 공유 공간으로 운영 (공유주방, 도서관, 회의실 등)
 - 자립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비용 절감 (태양광, 빗물 정화 등)
 - 리빙랩(주민주도정책참여실험),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활동 지원
3. 성공사례 기반으로 도시 단위로 확산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



페스타 시민 피드백

구시내(해천거리) 빈집 상권으로 복구. 부산대(밀캠) <-> 연결하여 청년친화거리 조성하면 굿!

삼문동 10대

빈집이 많을수록 도시가 슬럼화되기 쉽다고 생각. 빈집도 채우면서, 일자리 창출 + 커뮤니티 형성 + 관계인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듯.

삼문동 30대

빈집이 흙물이 아닌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으로 인식되면 좋겠어요.

내이동 20대

공간을 활용해 공유 오피스, 세트장, 공/화방 같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외 지역 20대

세대간 또는 연령대 공유 공간이 있다면 좋을 듯 하다.

내이동 50대

#빈 공간 #순환 경제

5-3-4.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4/11)

04.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시민이 주도적으로 빈 공간을 모의 창업과 지역 실험의 공간으로 전환



문제

도심에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창업이 과도하게 이상화되어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커지는 점은 밀양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빈 점포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대효과

- 시민이 직접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지역과 지역 문제에 관심 갖기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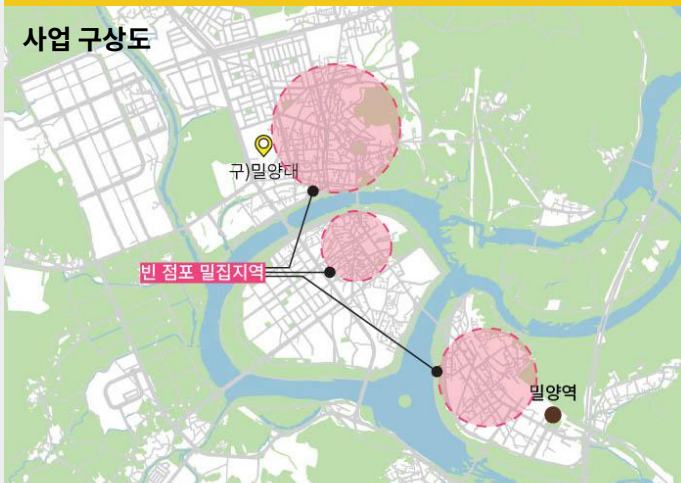
- 1년차 상반기: 시범사업(10개 공간) / 빈 상가 소유주 공모 공간활용 기획
- 1년차 하반기: 상가별 게릴라 팝업 혹은 생활실험
- 2~6년차 : 사례공유, 발전방안 모색

핵심 내용

1. 밀양 시민이 만드는 빈 공간 데이터 구축
 - 시민이 직접 공간의 역사와 세부 조감도를 포함해, 지역 내 빈 공간 정보를 직접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
2. 밀양 시민과 청년 대상으로 모의 창업 실험 진행
 - 사업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판매 연습을 통해 신중한 창업 관점 습득하며 스스로 훈련
 - 빈 점포를 연중 6개월만 300만 원에 대여
3. 청소년 지역 실험실 운영
 - 빈 공간에 모여 밀양과 관련해 리빙랩(주민주도정책참여실험) 진행
 - 업종·권역별로 지역 주민을 1주일에 5명 만나서 기록하기
 - 빈 공간을 찾아내고, 공간의 역사 스토리텔링 및 해결 방안 찾기
 - 지역 문제 발굴하기

카테고리 2.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사업 구상도



페스타 시민 피드백

밀양 인구수가 줄어들고 빈 점포가 늘어나 청년 위주의 모의창업실험 필요할 것 같음.

삼문동 60대

점포는 소비기반이므로 자체 인구조로 활성화는 부족합니다. 관광 및 생산 기반 조성 후 2차로 진행되는 것이 맞을 듯.

밀양 외 지역 50대

창업 아이디어는 많다. 대도시와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가 문제다. 건물주를 설득해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낮춰야 한다.

내일동 30대

고향은 밀양이지만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리가 되면 일하며 배운 것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험하고 사업화 하고 싶어요.

부북면 30대

시민이 주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

가곡동 40대

#빈 공간 #사회 실험 #시민 주도

5-3-5.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5/11)

05.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구)밀양대 주거 타운 외국인, 학생, 청년, 학령기가구 등 사회혼합형 주택 구)밀양대 캠퍼스 연계



카테고리 2.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사회적 혼합 #도심 주거

문제

밀양 구도심에는 외국인 근로자, 청년, 학생, 학령기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구도심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들을 아우르는 활력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대효과

- 구도심 정주인구로 도심 활력 증진
- 다문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

핵심 내용

1.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평수의 주거 공간
 - 대학생, 청년,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이 거주 가능한 다양한 평수의 100 세대 규모 주거 단지 구축
 - 외국인 근로자 10% 이상 입주 비율 확보, 단기/중장기 유연한 임대 가능
2. 토지 임대부 사업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
 - 밀양시가 토지를 대여해주면 민간사회적기업이 주택을 건설해 집값을 적절하게 제공
3. 골목 재생 프로그램 & 밀양대 캠퍼스 주변 녹지, SOC와 연계
 - 구도심 골목 재생(밀양캠퍼스 동문, 동가리의열거리, 해천, 밀양성곽둘레길)에 연계해 재생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거 공간 마련
 - 밀양대 캠퍼스 녹지 조경과 연계해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
 - 도서관, 카페 등 공유 시설 활용

페스타 시민 피드백

다문화 구조의 수용과 공존을 위한 필요. 이에 따른 문화 융합을 위한 사회교육 공동체 의식 활동을 위해 주거 시설의 고민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밀양 외 지역 50대

도심 속에 넓은 밀양대가 좀 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내주세요.

삼문동 60대

밀양대 주변 구도심이 텅텅 비고 있다. 엉뚱한 곳에 세금 그만 사용하고 이곳에 투자 좀 하자.

내일동 50대

외국인 거주자, 청년 등 현재 밀양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 제공. 그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부북면 50대

빈 점포를 활용. 밀양에 있는 불답볶음면 공장을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

삼문동 40대

5-3-6.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6/11)

06. 빠르고 안전한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응급 도움 전화 경북대-밀양병원 원격 의료 협진 시스템



문제

최근 밀양은 응급 의료 공백을 겪으며 안전한 일상이 위기에 놓였다. 인근 도시와 연계하여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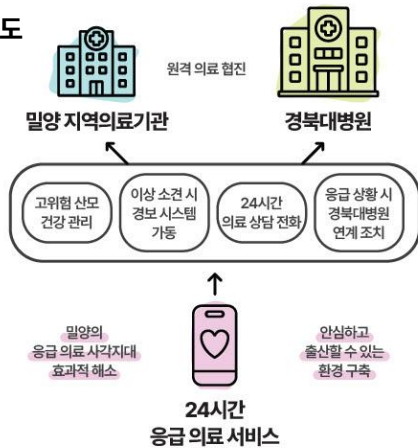
- 밀양의 응급 의료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응급 의료 접근성 개선
-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핵심 내용

1. 24시간 고위험 임산부 응급 도움 전화
 - 안전한 응급 출산을 위해 고위험 산모가 모바일 앱에 혈당, 혈압, 체중, 태아 심박수 등을 입력한 후, 이상 소견 시 경보 시스템 가동
 - 24시간 의료 상담이 가능한 응급 도움 전화 서비스를 구축하고, 응급 상황 시 경북대병원과 연계하여 조치
2. 경북대-밀양병원 원격 의료 협진 시스템
 - 밀양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경북대병원을 연계하여 지역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고 원격 의료 협진을 지원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조도



페스타 시민 피드백

응급의료체계는 필수!!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슬퍼요.
삼문동 30대

밀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아닌가 싶다. 가족들과도 밀양에서 행복하도록.
교동 20대

생명과 연결된 문제로 꼭 유지가 되어야 할 시설이다. 항상 내 가족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다.
삼문동 20대

응급24시 약국 필요해요.
삼문동 50대

시골마을에 응급시스템 중요. 장거리 이동 힘들.
내이동 30대

#의료 #네트워크

5-3-7.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7/11)

07. 밀양 성곽 및 강변 둘레길 조성 밀양의 옛길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길로 전환



문제

밀양은 차량 중심의 도로체계로 바뀌며 보행길과 생활권 연결성이 단절되었다. 밀양 곳곳의 옛길을 재해석해, 보행과 생활에 친화적인 길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기대효과

- 역사적 경관을 생활권 보행길로 전환해 쇠퇴된 도심 활성화
- 관광 자원화로 체류형 방문객 유도
- 다문화 교류 및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 도시 이미지 구축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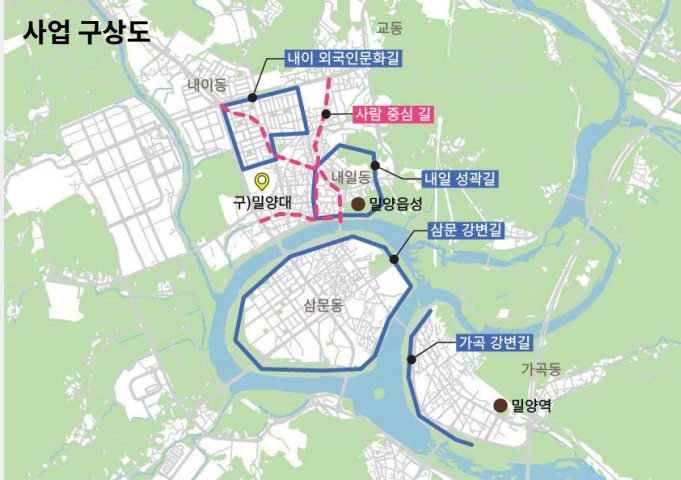
1. 사람 중심 길 조성 (5km)
 - 기존 왕복 2차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보행공간 확장과 안전성 강화
 - 인도를 넓히고 녹지공간과 가로등 등 도보 중심 생활축 형성
2. 생활권별 둘레길 조성 및 개선 (8km)
 - 내일 성곽길: 성곽과 연계한 역사 탐방 루트 조성
 - 내이 외국인문화길: 다문화 체험과 교류의 길 조성
 - 삼문 강변길: 수변 여가와 자연 체험의 길 조성
 - 가곡 강변길: 철도 역사권과 연계된 접근성 강화 루트 조성

추진 일정

- 1-2년차: 기본계획수립
- 2-6년차: 시범구간(내일동) 시공
- 6-10년차: 생활권 전체로 확산, 관광 및 상권 연계
- 10-20년차: 운영 관리 체계 확립 및 유지 관리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사람중심 #보행환경

페스타 시민 피드백

영남루-밀양읍성 둘레길 활성화로 내일동 전통시장도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구도심이 활기차게-

가곡동 40대

밀양의 최대 장점 강과, 자연, 산을 만끽할 수 있는 사업 추천

가곡동 40대

보행자 인도 부족 등 차량이 우선시 되어 생활되고 있는 느낌이다. 안전성이 보장되기 위해 꼭 필요할 것 같다.

삼문동 20대

둘레길을 걸으며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문동 40대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거 같음. 둘레길 조성이 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밀양 외 지역 50대

5-3-8.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8/11)

08. 빈집을 전환한 외국인 전용 주택 내일·내이동 곳곳의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주택 조성/외국인 정착 지원 및 지역민과의 교류 지원



문제

밀양은 외국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기대효과

- 밀양 내 주요한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 지역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다문화 친화도시로 성장

핵심 내용

1. 내일·내이동 곳곳에 외국인 전용 주택 30호 조성
 - 내일·내이동 저층 주거지 곳곳에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조성
 - 2-3년의 기간 동안 5개소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진행
 - 민간이 리모델링과 운영, 공공은 기반시설 및 보조 담당
2. 지역 사회 탐색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지역 생활 안내인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이미 정착한 외국인 - 새로 이주한 외국인 메이트 프로그램 운영
3. 생활권 단위로 외국인-내국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빈 공간 #사회적 혼합

페스타 시민 피드백

빈집을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형성. 외국인을 위한 축제 형성 하자.

삼문동 40대

이미 외국인 인구가 많은 상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그들을 위한 유용한 시설, 특히 주거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인구 성장을 꼭 우리 국민뿐 아니라 밀양에 살면서 그들이 소비하고 생겨나는 문화권도 유용할 것이다.

부북면 50대

외국인 여가생활
⇒ 외국문화 ↔ 한국, 밀양 문화 공간

삼문동 50대

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빈집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밀양 외 거주 40대

5-3-9.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9/11)

09. 삼문중앙로3길 걷고 싶은 의료거리 환자, 노인, 어린이 친화적 복합거점 조성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의료 #보행환경

문제

최근 밀양은 신삼문과 구삼문을 잇는 삼문중앙로 구역이 쇠퇴하며 보행 환경과 도심 활력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기대효과

- 의료 인프라,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 혁신
- 쇠퇴한 주거 구역과 보행 네트워크를 재생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 도시 중심부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지역 상권 활성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곳은 특히 보행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의료 기관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구역에 더욱 몰린 것으로 생각되니 더더욱.

내이동 20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체계가 잡혀있어야 아이도 낳고 50대 이상 진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면 30대

갈수록 교류가 적어지고 있는데 생활 활력을 위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커뮤니티 장려 필요.

삼문동 30대

의료 인프라가 더욱 확대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이동 50대

핵심 내용

1. 친환경적인 녹지축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 녹지축 양쪽에 적절한 밀도로 전략적 공공건물 배치
2. 1~3층 규모의 낮은 공공건물 세우기
 - 병원·약국·노인회관·환자호텔 등을 입주시켜 어린이와 환자 친화적 공간 조성
 - 공공 건축디자인공모를 통해 건축·사회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된 건물에 개인 병원 입주 유도
3. 활동적인 노년 활동과 교류 장려
 - 노인회관에 건강한 식단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 다양하고 활동적인 만남 기획(예: 반찬 공유 모임 참여하면 음식 할인 쿠폰 제공 등)

5-3-10.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0/11)

10. 사람중심, 모두의 이동이 존중 받는 무료 교통 체계 연령·성별·장애 등 다양성을 아우르는 교통 체계



카테고리 4. 이동 · 순환 Mobility & Circulation

사업 구상도



#교통 #사람중심

문제

인구감소, 고령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의 밀양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사람이 모여, 천천히 편안하고 안전하며 부담없이 이동가능한 밀양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효과

- 천천히 안전하게 원하는 수단으로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 가능
- 무상으로 핵심 생활권 구간 간 이동 서비스 제공

핵심 내용

1. 지자체 주도 대중교통 요금 무상화
2. 다양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핵심 구역 간 이동 네트워크 형성
 - 순환 Zone 1: 교동, 내일동, 내이동
 - 순환 Zone 2: 삼문동
 - 순환 Zone 3: 가곡동
 - 개별 순환 구간을 잇는 간선축 조성
 - 교량 건설
3. 다양한 이동 수단을 위한 길과 대중교통 우선 이동을 위한 일방통행 도입
 - 밀양의 평지 특성을 살려 보행, 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을 위한 길 확보
 -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 축소
 - 편도 일방통행 2차로로 구성

페스타 시민 피드백

무료교통 체계로 밀양시민으로써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을 우선에 둔다는 것이 생각되어서 또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면 자연스럽게 밀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삼남면 50대

노년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구도심으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같다.

내일동 50대

개인별 이동수단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

부북면 30대

전국 각지에서 언제든지 밀양의 필요성을 느껴 '한달살이', '일년살이'를 할 수 있도록 교통이 더욱 더 좋았으면 합니다.

밀양 외 지역 20대

5-3-11. '작지만 행복한 밀양'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1/11)

11. 15분컷 새로운 도심 순환버스 급행과 순환버스로 이어지는 편리한 대중교통망



카테고리 4. 이동 · 순환 Mobility & Circulation



#교통 #사람중심

문제

대중교통 노선의 비효율과 환승체계가 없는 점에서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밀양 내 주요 시설과 주거 구역을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노선을 만들면 어떨까?

기대효과

-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도시 내 이동 증가, 상권, 주민 건강, 활력 회복

페스타 시민 피드백

1시간에 1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기 힘들어 결국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삼문동 40대

교통이 가장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필요. 자전거 다니는 길도 만들어주세요.

삼남면 30대

순환버스 있으면 교통 편할 것 같음.

삼문동 30대

다양한 노선. 짧은 배차 시간. 택시나 자차 이동이 아니라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

내이동 30대

지방은, 시골은 자차 없으면 못산다...살게 해줄 수 있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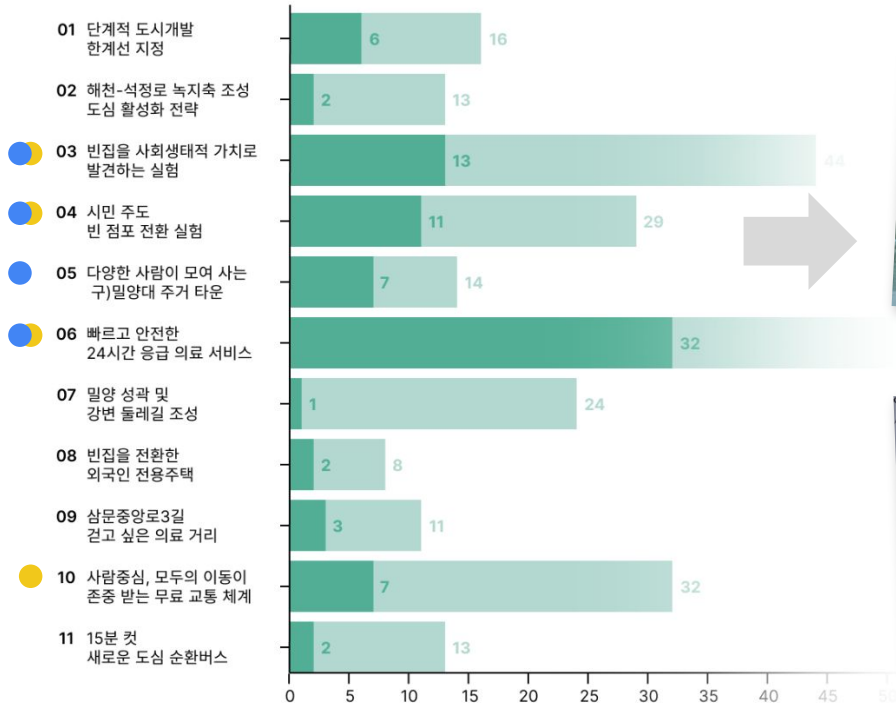
내이동 20대

핵심 내용

1. 15분 컷 순환 노선을 통한 생활 중심지 연결
 - 삼문동, 내이동, 내이동 등 생활 중심지 연결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보조
2. 주요 정류장 중심 간선급행버스 노선 운행
 - 밀양역-도심-행정타운-주거지 연결(남북 간선노선 또는 남북 순환선)
 - 시범 운행 후, 수요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시설 구축 검토
3. 이용 수요 및 서비스 수용성에 따라 교통약자 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 서틀형 차량 도입으로 교통약자 편의 향상
 - 버스 내 유모차, 보행 보조기구, 자전거 등 적재 공간 확보
 - 장기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자율주행셔틀 등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발전

5-4. 각 사업별 밀양 시민의 반응, 수용 조건, 충족되는 욕구 정성 분석

분석 대상 사업 선정



시민들의 1순위 선택 비중이 높은 사업 4개(파란 점 ●), 누적 선택이 많았던 사업 4개(노란 점 ●) 중 접착식 노트 참여와 내용이 풍부한 사업 3개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및 수용 조건 분석



참여 시민들이 FESTA에서 부착한 접착식 노트 위 의견을 크게 (1)사업에 대한 반응, 그리고 (2) 수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충족할 수 있는 시민의 욕구 확인



최종적으로 특정 사업이 적용되었을때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막스-니프(Max-Neef) '인간 기본 욕구' 9개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5-4-1.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밀양 시민 욕구 분석 (1/3)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3번 사업 아이템

- 빈집 방치는 슬럼화와 도시 붕괴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
“빈집이 많을수록 도시가 슬럼화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 빈집을 ‘방치된 문제’에서 ‘지역의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
“빈집이 흉물이 아닌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으로 인식되면 좋겠어요”
-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수단으로서의 빈집 활용에 대한 기대**
“빈집도 채우면서 일자리 창출 + 커뮤니티 형성”
- 관계 재생을 촉진하는 공유 공간으로서의 빈집에 대한 기대**
“세대간 또는 연령대 공유 공간이 있다면 좋을 듯 하다”
- 밀양다움을 살린 분명한 컨셉에 대한 선호**
“전통을 살린 문화, 생태와 어울리는 예쁜 공간”

- 지역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 프레임
- 사람이 모여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역 문제 완화를 기대하는 효과 지향
- 획일적 모델이 아닌 **'밀양다움'**이 분명한 컨셉으로 구현

생존·생계 Subsistence
보호·안정 Protection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이나 관리 문제를 넘어, 도시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불안 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 사업을 통해 보호 감각이 향상될 수 있다.
애정·애착 Affection 빈집 활용을 통해 사람의 기운이 돌아오고, 세대·외부인 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대된다. 이는 사람 간 연결과 정서적 온기 회복 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다.
이해·배움 Understanding 도시 맥락을 반영함으로써 도시를 이해·체험하는 장소 가 되어 도시에 대한 배움과 의미 전달의 장이 될 수 있다.
참여 Participation 빈집이 함께 사용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유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사회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의미 있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욕구로 해석 가능하다.
여가·즐거움 Leisure
창조·생산 Creation 새로운 실험과 창업의 기회가 되어, 새로운 가능성 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드러난다.
정체성 Identity 시민들은 빈집 재생이 어디에나 있는 개발 모델이 아니라, 밀양의 전통·자연·골목·농촌성을 반영하길 원한다. 이는 이 도시만의 정체성 을 명확히 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해석 가능하다.
선택·자유 Freedom

5-4-2.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밀양 시민 욕구 분석 (2/3)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시민 주도 빈 점포 전환 실험

시민이 주도적으로 빈 공간을 모의 창업과 지역 실험의 공간으로 전환

4번 사업 아이템

빈 점포가 일상적으로 체감되는 도시 문제라는 인식
“지나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많아 거리가 행한 느낌이 들었다.”

높은 임대료·보증금이 가장 현실적인 제약
“창업 아이디어는 많다. 대도시와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가 문제다.”

시민이 주축이 되어 시험하고 참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람
“시민이 주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

문화·예술·창의 활동을 통한 거리 변화에 대한 기대
“빈곳에 예술, 갤러리를 조성하여 밀양 알리기도 좋을 듯”

빈 점포 문제를 시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임대료·보증금 구조에 대한 실질적 조정

활용 방식이 상업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창의 등 실험적으로 열려 있을 것

생존·생계 Subsistence
임대료·보증금 문제를 시도 자체를 가능/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말한다. 이는 생계 유지와 직접 연결된 욕구다.

보호·안정 Protection

애정·애착 Affection

이해·배움 Understanding

참여 Participation
빈 점포 문제를 행정이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관여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 핵심은 ‘참여 기회’가 아니라 주체성이다.

여가·즐거움 Leisure
문화·예술·이색적 공간에 대한 기대는 ‘생계 해결’과는 다른 결의 언어로 나타난다. 이는 재미, 흥미, 도시에서 머무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다.

창조·생산 Creation
시민 주도라는 표현은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만들어보고,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빈 점포를 ‘완성된 가게’나 ‘수익 창출 공간’으로 요구하는 대신 시험, 실험, 창의적 시도가 가능한 공간으로 상상한다.

정체성 Identity

선택·자유 Freedom
임대인 위주의 임대 구조가 고정되어 있을수록 시민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임대 구조 변화를 통해 시도해볼 만한 선택지가 확대된다.

5-4-3.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밀양 시민 욕구 분석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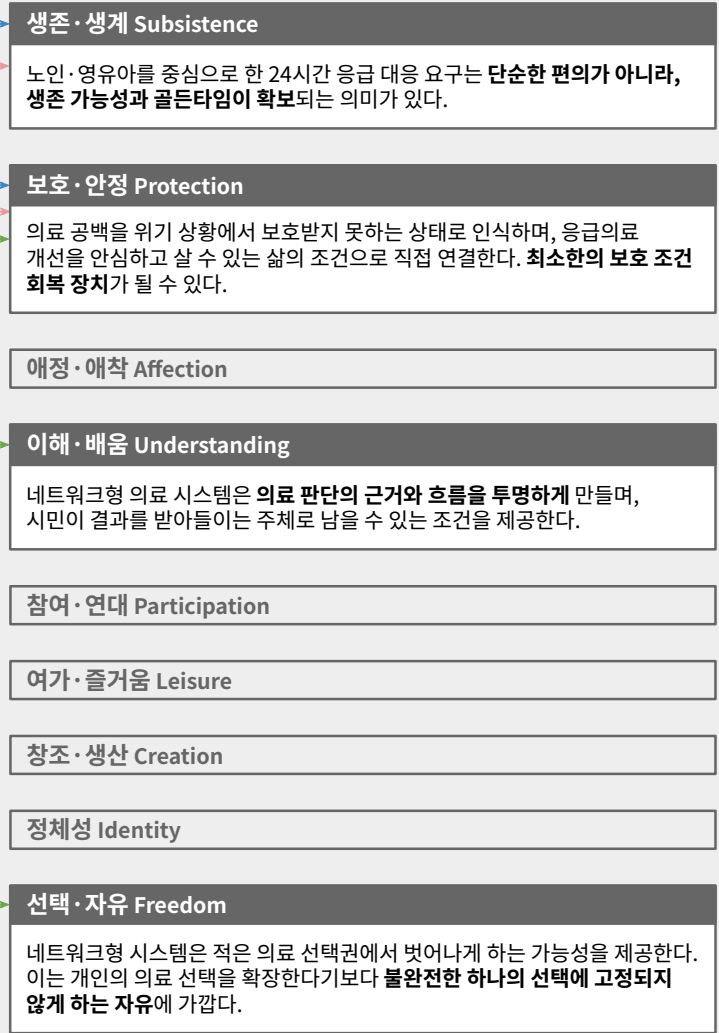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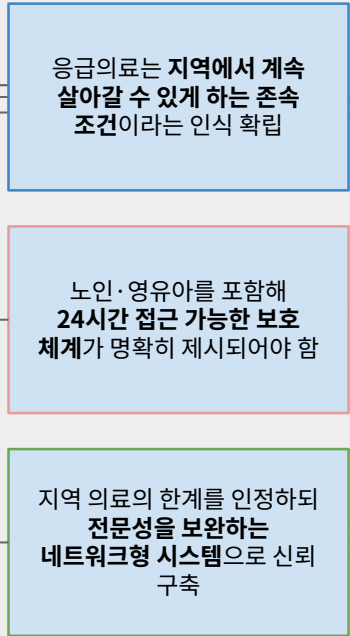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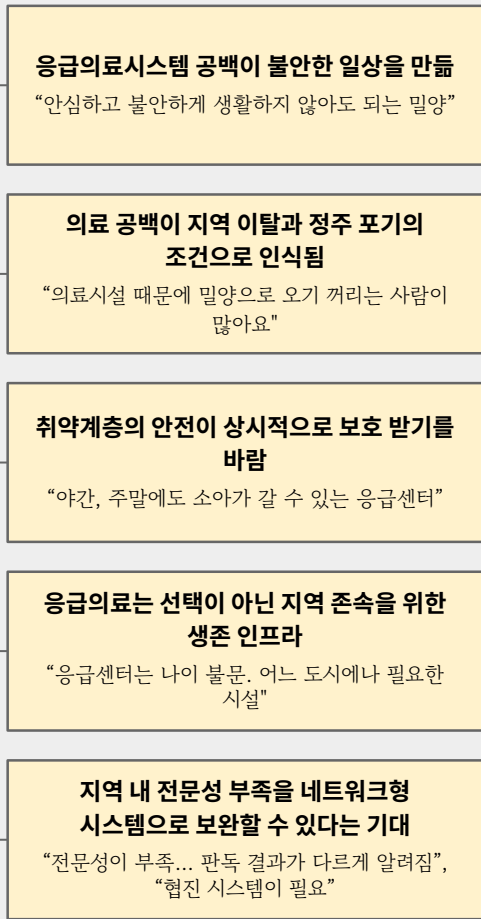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6번 사업 아이템



5-5.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총 13개의 사업 아이템

압축 핵심 Compact Core

도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핵심축을 선정하고 무분별한 외곽 개발 및 확장 억제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편리한 교통으로 도시 곳곳이 연결되어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도심 활력 회복

생활·돌봄 Life & Care

의료, 주거, 문화, 보행환경 등 일상생활 기반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빈 집, 빈 점포 등 도심 유휴공간을 시민이 함께 혹은 주도로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

압축 핵심 Compact Core

- 안동역 1942 복합센터**
(구)안동역을 교통·상업·숙박이 결합된 복합센터로 조성
-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10분마다 다니는 굴절버스와 그 노선 안쪽으로 모여 활력있는 안동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 외곽 주민의 이동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공공 이동 서비스
- 편리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도심 내 커뮤니티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설 연계형 이동 서비스 체계

생활·돌봄 Life &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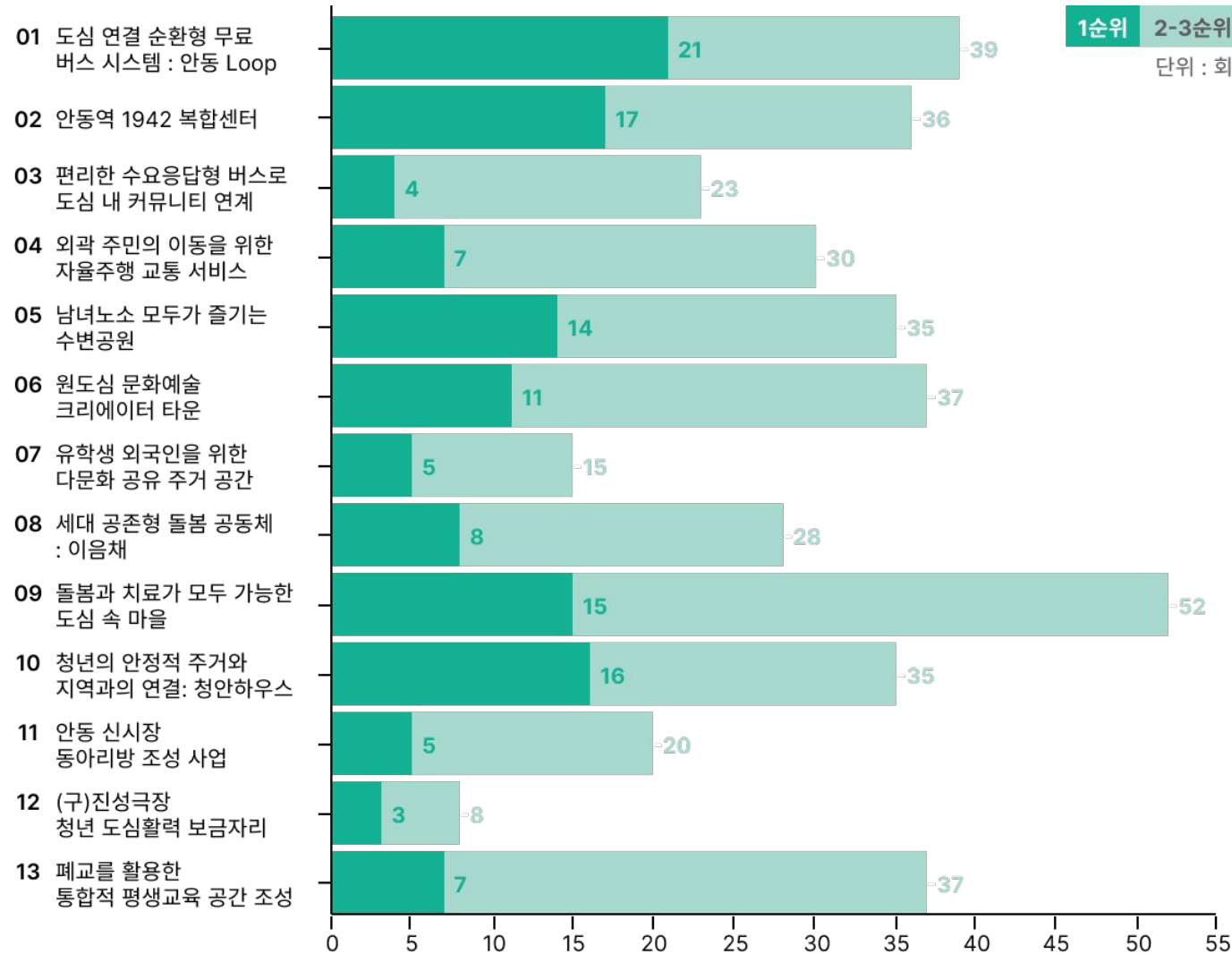
- 유학생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공유 주거 공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년 정착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주거 공간 조성
-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수변공원**
함께 걷고, 놀고, 쉬는 반려동물 동행형 수변 커뮤니티 조성
- 세대 공존형 돌봄 공동체: 이음채**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주거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노인 상호돌봄
- 원도심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타운**
다양한 창작자들이 거주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예술 타운
- 돌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의료·요양·주거가 하나로 연결되는 의료복합타운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 (구)진성극장 청년 도심활력 보금자리**
과거 극장을 청년 주거·문화 공간으로 재생
- 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배움, 여가, 교류, 돌봄이 한 곳에서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
대학가 및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청년 주거
- 안동 신시장 동아리방 조성 사업**
공실 점포를 시민의 취미·창작 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동아리방 조성

5-6. 안동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1/3) - 종합 분석

발굴된 13개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순으로 3개를 선정하는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중 안동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133명의 의견을 분석했다. 다음 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횟수와 2·3순위 선택 횟수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시민들의 1순위 선택 비중이 높은 사업

압축 핵심 (01)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압축 핵심 (02) 안동역 1942 복합 센터
공간 전환 (10)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
생활 돌봄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여러 순위에서 선택되어 누적 선택이 많았던 사업

생활 돌봄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압축 핵심 (01) 도심 연결 순환형 무료 버스 시스템 : 안동 Loop
생활 돌봄 (06) 원도심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타운
공간 전환 (13) 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최우선 사업

안동 시민은 **압축 핵심**과 **생활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번(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과 9번(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사업은 1순위 선택 횟수와 누적 선택 횟수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최우선 사업이다. 이는 외곽 확산으로 약화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 생활권 안에서 이동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함께 해결하려는 방향성이 시민의 공감을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집중 선호 사업

2번과 10번 사업은 누적 선택은 낮지만, 1순위로 원하는 사람이 많아 특정 집단에게 선호되는 **집중 선호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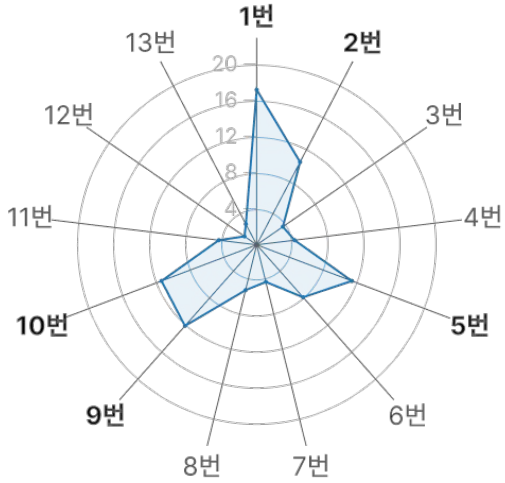
폭넓은 지지 사업

6번과 13번 사업은 1순위 선택 비중은 낮으나 누적 선택이 많아 폭넓은 지지 사업으로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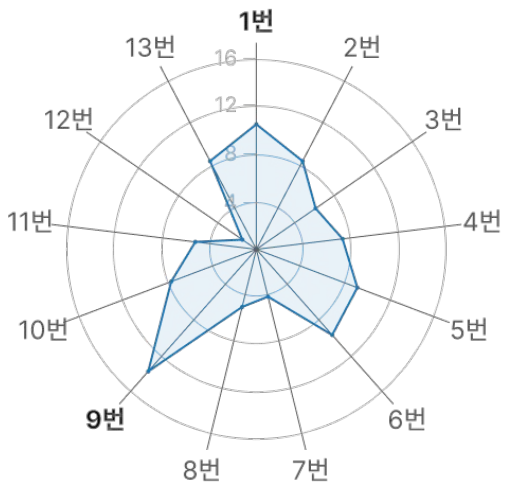
5-6. 안동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2/3) - 거주 지역별 분석

전체 응답자 중 안동에 거주한다고 표기한 133명은 동 지역 거주 시민 111명과 읍면 지역 거주 시민 22명으로 파악된다. 다음 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비율과 1·2·3순위 누적 선택 비율(합산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거주지역별 사업의 최우선 선호도



거주지역별 사업의 전반적인 선호도



동 지역 시민들이 선호한 사업

구분

- 동
 - 읍면
- 단위 : 비율(%)

- 압축 핵심** (01)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생활 돌봄** (05)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수변공원
- 생활 돌봄**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 공간 전환** (10)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

읍면 지역 시민들이 선호한 사업

- 압축 핵심** (02) 안동역 1942 복합센터
- 공간 전환** (10)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
- 공간 전환** (13) 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거주지역별 사업의 우선순위

도시 지역인 동 지역과 준도시·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은 생활환경, 이용 시설, 인구 밀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우선하는 사업 아이템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청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제공과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이라는 목표가 지역 전반에서 공감되는 이슈임을 보여준다.

구분

- 동
 - 읍면
- 단위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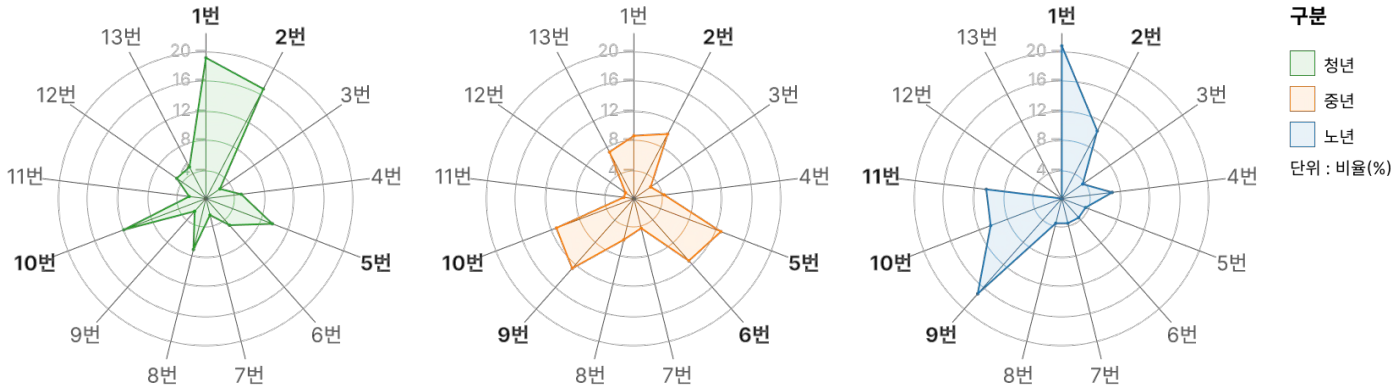
한편, 1번(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5번(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수변공원), 9번(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사업은 동 지역 거주 시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도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동 편의성, 여가 공간 확충, 의료·돌봄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특성이 동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과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번(안동역 1942 복합센터)과 13번(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사업은 읍면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거점 기능과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으로 인해 읍면 지역 거주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6. 안동 페스타에서 파악한 사업 아이템 내 우선순위 (3/3) - 연령대별 분석

전체 응답자 중 안동에 거주한다고 표기한 133명은 청년층(29세 이하) 39명, 중년층(30-59세) 64명, 노년층(60세 이상) 27명으로 파악된다. 다음 그래프는 각 사업 아이템별로 1순위 선택 비율과 1·2·3순위 누적 선택 비율(합산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연령별 사업의 최우선 선호도



청년층이 선호한 사업

- 압축 핵심** (01)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압축 핵심** (02) 안동역 1942 복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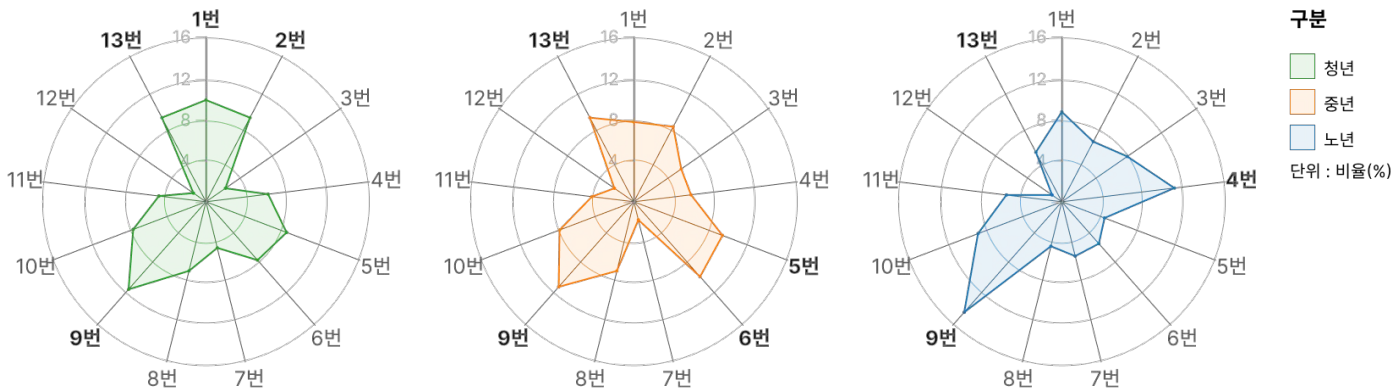
중년층이 선호한 사업

- 생활 돌봄** (05)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수변공원
- 생활 돌봄**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노년층이 선호한 사업

- 압축 핵심** (01)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생활 돌봄**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연령별 사업의 전반적인 선호도



연령별 사업의 우선순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은 생활 방식과 관심사 등의 차이로 인해 우선하는 사업 아이템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층은 20.5%가 1번, 18%가 2번 사업을 지지했으며, 이는 도심 내 이동 편의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구도심을 청년 활동·교류의 거점으로 재편하려는 방향이 청년층의 일상적 이동·활동 방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년층은 5번과 9번 사업을 각각 13.6%가 지지했다. 여가·휴식 공간 확충과 가족 돌봄·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특징이 중년층의 관심사와 연결된다.

노년층은 1번과 9번 사업에 각각 22.2%와 18.5%의 지지를 보였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도심 내 의료·돌봄 기능 집약이라는 두 사업의 핵심 특성이 노년층의 생활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년: 0대, 10대, 20대 / 중년: 30대, 40대, 50대 / 노년: 60대 이상

5-7. 안동 페스타 개별 사업 아이템 피드백

총 13개 사업 아이템



총 186명의 시민참여 안동 133명 + 안동 외 53명



총 381개의 정성 피드백 (접착식 노트)



5-7-1.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13)

01. 도심 순환 안동 Loop 및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10분마다 다니는 굴절버스와 그 노선 안팎으로 모여 활력있는 안동



카테고리 1. 압축 핵심 Compact Core



#무료 교통 #집중 유도

문제

외곽 난개발로 인해 바깥으로 계속 넓어지고, 도심의 인구 밀도가 떨어지고 있다.
안동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내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축을 설정하여 그 내부와 주변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과 사람들이 모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추진 일정

- 1년차: 노선 정의 및 시민 의식 조사
- 2년차: 차량 구입 및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 3년차: 사업 운영 점검 및 관리

기대효과

- 순환형 교통망을 통한 도시 기능 축으로 압축도시 정책 구현
-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로 시민 이동권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이동수단이 적은
고령층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동 외 지역 20대

교통 활성화가 곧 도시를
살린다. 어디든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 있게 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진 안동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서구동 20대

이게 복지다.

용상동 20대

전면 무료 탄소
중립도시 탄생

송하동 50대

순환식 버스 운영은
안동살면서 늘
생각한 것인데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상동 50대

핵심 내용

1. 순환 노선을 중심으로 도심 집중 유도
 - 안동병원, 옥동, 신시장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시 교통 순환 축 설정
 - 순환 지역 내부와 보행권으로 도시 중추 기능 집적
2. 도심 순환 굴절버스 도입
 - 기존 순환노선(2, 2-1)을 개선해 대형 굴절버스를 운행하는 순환망 구축
 - 굴절버스 외관에 홍보용 디자인을 부착하여 도시 브랜드 강화
 - 10분 간격 운행으로 기다림 최소화
3. 안동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요금 부담 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는 무상 대중교통 운영
 - 이동 비용 감소로 도심 방문 및 소비 증가 기대

5-7-2.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2/13)

02. 안동역 1942 복합센터 (구)안동역을 교통·상업·숙박이 결합된 복합센터로 조성



카테고리 1. 압축 핵심 Compact Core

사업 구상도



#교통 중심지 #복합센터

문제

1942년에 개통한 안동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거점이었던 (구) 안동역 일대 상권은 KTX 안동역 조성으로 기존 역 폐쇄, 터미널 이전으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안동 도심과 경북 북부 주요 도시, 안동 내 읍·면 지역을 편리하게 연계하고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해 안동 구도심을 '머무는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해 (구) 안동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복합 거점이 필요하다.

추진 일정

- 1~3년차: 복합 센터 건립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 4~10년차: 복합 센터 완공 및 주변 KTX 및 버스 터미널과 연계 구축

기대효과

- 지역 주민 대상 도심 활성화 및 관광 인구 유치로 지역 활력 증대
- 외부 관광객과 시민의 이동 효율을 높여 지역 접근성 강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원도심 활성화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시너지 효과 기대!

태화동 20대

남녀노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 안동역이 그랬던 것처럼...

용상동 20대

외부 관광객들이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내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함.

옥동 40대

안동에도 즐길 거리가 생겨 외지를 나갈 필요가 없기를 바래 기대치 ↑

서구동 40대

중장년층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임동면 40대

핵심 내용

1.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복합 센터 구축
 - 교통, 커뮤니티 센터, 상업·업무 시설, 호텔 등을 한 공간에 결합
 - 지하: 광역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장
 - 지상: 커뮤니티 센터, 상업 시설, 업무 시설, 코워킹스페이스, 호텔
2. 시외 및 광역 교통 중심지로 개발
 - 시 내부에서의 환승을 원활하게 지원
 - 외부에서 안동 중심지로의 유입 지원
 - 기존 순환버스 또는 굴절버스와 연계해 KTX역, 대학교, 주요 관광지와 연결해 주는 중심지
 - 장기적으로 터미널 재이전 검토

5-7-3.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3/13)

03. 편리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도심 내 커뮤니티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설 연계형 이동 서비스 체계



문제

병원, 평생교육원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을 방문할 때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개인 차량 의존도가 높아진다. 초고령사회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이동이 필요한 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 평생교육원, 병원, 생활체육시설 등 목적지, 이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특정 시간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형 교통 서비스 운영
- 초·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교통 운영 체계와 연계한 디지털·교통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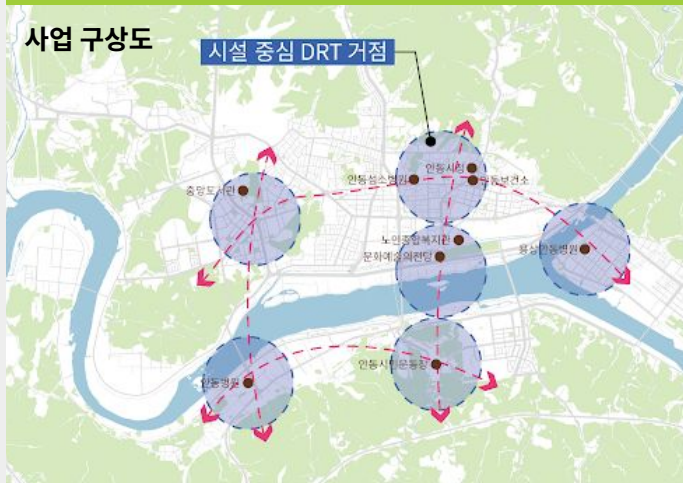
추진 일정

- 1단계(1~5년차): 커뮤니티 연계형 모빌리티 실행 전략 수립
- 2단계(6~10년차): 커뮤니티 시설 연계형 DRT
- 3단계(11년차~): 초·소형 자율주행 기반 DRT

기대효과

- 병원 등 인근의 시설에 편리하게 방문 가능한 이동 서비스로 도시 전반의 이동 접근성 개선
- 커뮤니티 시설 운영과 연계하여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2. 이동·순환 Mobility & Circulation



#수요응답형 버스 #저상 자율주행

페스타 시민 피드백

지금 살고 있는 동네도 교통이 불편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로 인해 교통이 안정화 되어가는 중.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부른 장소로 온다는 장점.(근처 정류장)

안동의 지역 30대

경쟁과 인구 축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의 그물이 튼튼한 곳들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연대와 공감, 배려와 돌봄이 중요!

강남동 50대

대중교통 없는 동네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임동면 40대

수요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안동시 활성화까지 수직 상승될 듯 안동은 교통이 제일 문제...

서구동 20대

고령사회에 반영한 교통

녹전면 60대

5-7-4.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4/13)

04. 외곽 주민의 이동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공공 이동 서비스



문제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여 이동이 어렵다. 버스는 운영 비용 대비 이용객이 적어 손익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읍·면 농촌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다.

추진 일정

- 1년차: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권역 정의
- 2년차: 자율주행자동차 구입 및 운영 방안 마련
- 3년차: 사업 운영 점검 및 관리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모델 확립
-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 첨단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로 스마트 도시 이미지 향상

핵심 내용

1. 수요응답형 스마트 이동 서비스(DRT) 구축
 -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의 교통 행태를 기반으로 주요 목적지를 연계하되, 이용자가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신교통 서비스 도입
2. 중·소형 자율주행 차량 운영
 - 12인승 규모 등 수요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수요 응답형 이동 서비스 제공
 - 승객 하차 후 다음 수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고 승용차 의존 문제 해소
3.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 사전에 목적지 특정하는 등 이동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카테고리 2. 이동 · 순환 Mobility & Circulation

사업 구상도



#외곽지역 #자율주행 차량

페스타 시민 피드백

비도심 마을권의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

용상동 20대

도시의 축소화(집약화) 진행된다면... 기존 주거지역(농사짓던 지역)까지의 이동수단 마저 필요할듯

안동 외 지역 30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저녁 활성화 되기 좋음.

태화동 10대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기회평등 제공

송하동 50대

요즘 버스 순회가 너무 줄었어요.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용상동 60대

5-7-5.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5/13)

05.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수변공원 함께 걷고, 놀고, 쉬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행형 수변 커뮤니티 조성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반려동물 친화 #휴식 공간

문제

안동 도심을 흐르는 낙동강변은 생활 체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기에 다소 부족하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용이 저조한 체육시설을 공존형 휴식 공간으로 전환해 강변을 모두에게 열린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 강변 공원의 방문 증가와 주변 도심 상권 활력 증진
- 반려 동물과의 교류를 통한 시민 삶의 질과 건강 향상
- 친환경·생태적 도시 이미지 강화 및 선진 반려 문화 조성

핵심 내용

1. 생활체육공원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반려동물 친화 공원으로 조성
 - 이용률이 낮은 생활체육시설을 반려동물 친화형 수변 공원으로 재편
 -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운동 공간, 산책로 등 다기능 공간 조성
2. 강변 공원 내 문화·교육·여가 복합 공간 연계
 -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카페·오토 캠핑장 등 다양한 여가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 이용 환경 조성
3. 남녀노소 모든 시민의 일상이 함께하는 강변 공원 재편
 - 인구구조 변화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세대·가구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친수 공간으로 중장기적 리모델링 추진

페스타 시민 피드백

한강 공원까지는 아니지만 낙동강변 활용이 너무 낙후된 상황. 노인인구 집중 말고 정말 세대 남녀노소 반려 모두 가능하게 절실.

옥동 40대

강변 너무 좋음.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도시에는 없는 차별점 두어 다시 오고 싶은 안동을 만들어 주세요.

서구동 20대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은데 아이와 놀 수 있는 공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수변공원 좋아요.

용상동 30대

인구가 정주하기 위해선 머무를 이유가 필요함. 안동은 놀거리가 너무 없음.

명륜동 30대

가까운 곳에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구동 40대

5-7-6.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6/13)

06. 원도심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타운 다양한 창작자들이 거주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예술 타운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예술창업 #도심 활성화 #유희공간

문제

안동 원도심은 공동화와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심 내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 공간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창출이 요구된다.

기대효과

- 도심 내 유희공간 재이용을 통한 활력 증진, 일자리 창출, 관광 자원화
- 지역 청장년 정착 지원 및 도심 정주환경· 서비스 제고
- 다양하고 특색있는 생활 공간 조성으로 연계로 원도심 장소 브랜드 강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워케이션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안동 외 지역 30대

스토리텔링시 만들어주세요.

용상동 60대

문화는 물 흐르는 것과 같아서 문화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

중구동 40대

예술인들이 창작한 활동들이 공간에 제한이 없는 SNS 등을 통해 안동을 알릴 수 있다.

중구동 40대

원도심은 관광특구로 개발합시다. 옥동, 용상은 주거 특화로 하구요.

태화동 30대

핵심 내용

1. 유희 공간을 이용해 예술·문화 공간 조성
 - 전통시장, 마을, 도심의 유희 공간을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하여 문화·예술·창작가 공간으로 재이용
 - 직주락 기능을 연계한 도심 문화 생활권 공간 조성
 - 예술 창작촌(문화예술)
 - 골목상권
 - 리부트 타운(전통시장)
 - 크리에이터 타운(청년 창업)
 - 일상 타운(청년 주거)
 - 비일상 타운(취미, 동아리, 생활 예술)
2. 라이프스타일 재구조화와 연계한 정주 환경 개선
 - 지역 청장년 창작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도심 정주 환경과 서비스 제고

5-7-7.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7/13)

07. 유학생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공유 주거 공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년 정착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주거 공간 조성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회 혼합 #공유 주거 #문화교류

문제

유학생 증가와 청년 정착 수요에 비해,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청년 교류를 통한 원활한 지역 정착을 도와 글로벌 인재 유입과 정착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 내용

- 빈집, 유휴 부지 리모델링으로 20~30세대 중소 규모 다문화 공유 주거 공간 조성
 - LH 또는 경북개발 공사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 내 대학생, 국내 청년, 외국인
 - 유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공유 주거 공간 마련
- 국제 교류를 위한 특화 공간 조성
 - 다문화 공유 주거 공간 내 공유 주방, 스터디룸, 소셜 라운지, 한국 문화 체험 공간 등을 통해 국제 교류의 창구 마련
-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영어·한국어 교환 프로그램
 - 문화 교류 행사

페스타 시민 피드백

비싼 월세 부담에서 탈출하여 맘껏 공부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주택 문제가 최우선인 듯. (경국대 주변도 활성화 해주세요)

길안면 60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키'는 결국 외국인 주민 유치임. 노동자로서의 대상이 아닌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독려 필요함.

안동 외 지역 30대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공간과 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등 다양한 체험 주거 복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정착해 살기 좋은 안동으로

안동 외 지역 30대

다문화 거주환경이 많이 있으면 인구 감소가 안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태화동 10대

추진 일정

- 1~2년차: 기본계획 수립, 수요 조사,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3~6년차: 시범 운영, 국제 교류 프로그램(언어 교환, 문화체험) 시행
- 7~11년차: 2~3개소 확충, 다문화 교류 커뮤니티 구축, 1주 안정화
- 12~17년차: 4개소 전체 조성, 대학·지자체·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 18~21년차: 아동 글로벌 청년 거점으로 정착,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국제 류 허브로 발전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 및 청년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한 도심 정착률 향상 및 지역 이탈 방지
- 국내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간 국제 교류로 글로벌 역량 강화·네트워크 연결
-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 글로벌 청년 거점 도시 이미지 구축

5-7-8.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8/13)

08. 세대 공존형 돌봄 공동체: 이음채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주거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노인 상호돌봄



문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신혼 부부는 육아 부담을, 고령자는 노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을 통합해 세대 간 상호 지원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모델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 도심 유휴 부지 또는 도시재생 지역을 이용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주거 공간
 - 약 50~70세대의 세대 공존형 주택 (청년·신혼/고령자 각각 25~35세대)
 - 일상 돌봄과 의료가 연계되어 있는 고령자 돌봄 시설
- 상호 돌봄 체계와 공유 공간 만들기
 - 육아 돌봄 시설: 공동 보육실·어린이집·방과후 돌봄교실
 - 고령자 돌봄 시설: 데이케어센터, 건강관리실, 커뮤니티케어실
 - 공용 커뮤니티 공간: 마을 카페, 공동 부엌, 프로그램실

추진 일정

- 1~3년차: 기본 계획 수립, 유휴부지 확보, 설계 및 인허가, 시범 사업
- 4~5년차: 1차 완공, 육아·노인 돌봄 통합 운영
- 6~10년차: 2차 단지 조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착, 운영 매뉴얼 구축
- 11~15년차: 지역 내 확산, 3차 단지 건립, 사회적기업·복지기관 협력 강화
- 16~20년차: 돌봄 공동체 모델 확산, 세대 공존형 주거·돌봄 정책 확대

기대효과

- 청년·신혼을 위한 저렴한 주거와 육아 돌봄 지원
-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와 일상에서의 돌봄과 의료 연계 서비스
- 세대 교류 및 상호 돌봄
 - 청년: 고령자의 디지털 교육 및 생활 지원
 - 노인: 아이 돌봄 참여 및 생활 멘토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돌봄 #주거 #세대 융합

페스타 시민 피드백

일을 하고 싶는데, 아이들 걱정으로 못하는 상황.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듯.

태화동 30대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서로 필요를 보완하는 상생형 정책이라고 생각함.

명륜동 40대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돌봄이 중요

태화동 30대

세대공존을 통한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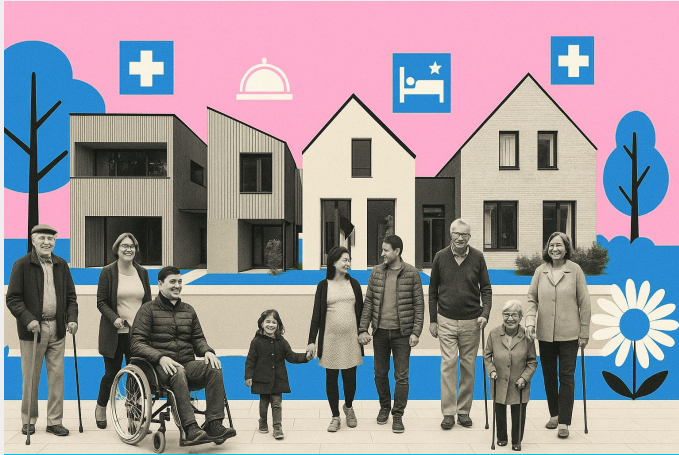
태화동 40대

안동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과 앞으로 안동을 이끌어 갈 젊은 신혼들의 힘이 필요해보임.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안동 외 거주 30대

5-7-9.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9/13)

09. 돌봄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도심 속 마을 의료·요양·주거가 하나로 연결되는 의료복합타운



카테고리 3. 생활 • 돌봄 Life & Care

사업 구상도



#의료 #돌봄 #주거

문제

고령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낮고 대중교통도 미흡해 도심·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압축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돌봄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 도심 내에 의료, 재활, 돌봄 기능을 직접시켜 생활권 안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 및 해결
- 주거·돌봄·의료 결합한 실버타운에서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 유지 지원
- 폐교 등 유희부지를 활용해 도시 공간 이용의 효율 증진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유 공동체 기반 강화

핵심 내용

1. 도심 유희 부지를 활용해 의료 복합타운 조성
 - 다양한 진료과가 집약된 의원 및 지역 사회 돌봄을 위한 시설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데이케어센터, 재가요양 시설 등)을 집적시켜 복합 타운 구성
 - 입주 의원은 주치의 사업과 스마트 원격 의료 등과 연계해 시민의 일상적 건강과 돌봄을 담당
2. 공공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건립
 - 고령의 읍·면 지역 주민의 도심 이주를 독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성 증진
3. 복합 타운 이동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공공 교통을 위한 거점지를 마련해 의료 복합타운과 구도심의 돌봄 복합 타운으로의 방문을 용이하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

페스타 시민 피드백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의 돌봄 책임이 늘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굳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이웃끼리 서로 보살피는 문화가 형성되길~

강남동 50대

고령화 때문에 힘든 농촌에 꼭 필요합니다.

와룡면 50대

1인 노인분들이 많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태화동 30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 필수적. 지역의 돌봄수요를 지역에서 충당하도록!

안동 외 지역 30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옥동 50대

5-7-10.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0/13)

10.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과의 연결: 청안하우스 대학가 및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청년 주거



카테고리 4.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청년 주택 #커뮤니티 #빈 집

문제

안동에는 국립대가 있지만 청년들이 머무를 만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광역교통시설로부터 대학까지의 이동이 불편해 외지 학생들의 통학이 어렵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필요하다.

추진 일정

- 1~2년차: 기본 계획 수립, 부지 조사 및 확보, 사업 타당성 검토
- 3~5년차: 시범단지 1~2개소 조성
- 6~10년차: 총 5개소 조성
- 11~19년차: 10개소 완공,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및 연기 강화 운영 성과 평가, 청년 주거·교류 모델 정착

기대효과

-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제공해 도심 유입 확대
- 공유 공간 기반의 동아리·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교류 강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주거공간 안정이 첫번째 정착순위 1등이라 생각함.

태화동 50대

행복 주택 위치 부적합. 교통편이 전무함. 지금 추진 지역이 상당히 적합합니다. 교통. 인프라 ok

옥동 40대

청년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안동 외 지역 30대

청년 유출 심각ㅠㅠ 역량있는 청년! 안동에서 Happy하게

풍산읍 40대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 위해 타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상동 60대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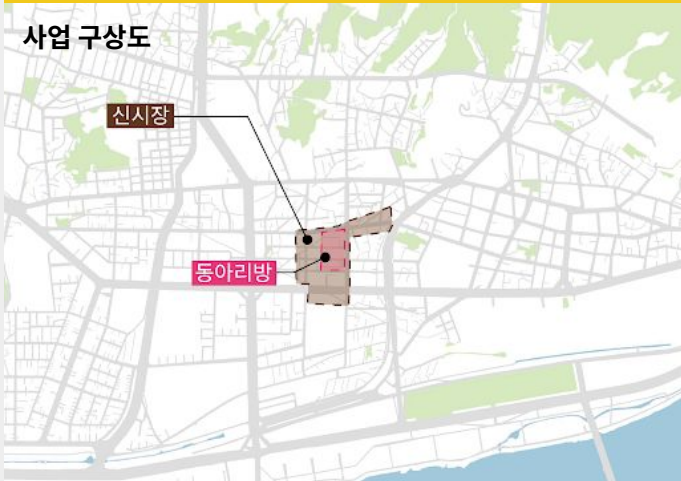
1. 빈집, 유휴 부지를 활용한 중소 규모 청년주택
 - 도심 및 주변부에 10개소(20~30세대) 공급
 - 지자체·LH·경북개발공사 협업으로 안정적 공급 추진
2.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이 있는 생활 주거
 - 주거 공간: 개인실(욕실·침실), 공용 주방, 세탁실, 다목적 라운지
 - 공유 시설: 커뮤니티 라운지, 다이닝 홀, 스터디룸, 코워킹 스페이스, 동아리실, 취미 공간, 옥상 정원·야외 텃밭
3. 지역과 연결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마을 카페형 공유 공간: 입주자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 소규모 행사장/갤러리: 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입주자가 돌아가며 운영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봉사 및 축제 참여, 영화·요리·스포츠 소모임

5-7-11.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1/13)

11. 안동 신시장 동아리방 조성 사업 공실 점포를 시민의 취미·창작 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동아리방 조성



카테고리 4.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공실 #문화 공간

문제

안동 신시장은 상인과 고객의 고령화와 온라인 상거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한편 도심 전반에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전통시장을 새로운 형태의 시민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진 일정

- 1년차: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권역 정의
- 2년차: 자율주행자동차 구입 및 운영 방안 마련
- 3년차: 사업 운영 점검 및 관리

기대효과

- 기존의 전통시장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시민 공간으로의 단계적·지속적 변화
- 신시장 내 시민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페스타 시민 피드백

20대로서 안동은 커뮤니티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에 동감!
너무 변화가 많고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생길지도...?

서구동 20대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왜 활용 안함? 청년사업 지원하여 활성화해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

서구동 20대

일과 운동 외에 즐길거리가 없는 안동을 위해 필요. '여가 시간에 술, 운동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동아리방 필요.

용상동 30대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추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용상동 20대

안동시내 대역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ㅠ

옥동 20대

핵심 내용

1. 시장 내 공실 점포 리모델링 및 동아리방 조성
 - 공실 및 저렴한 임대 점포를 활용하여 시민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2. 마을 관리회 사를 통한 사업 운영 및 관리
 - 문화·소통 역량을 보유한 마을 관리 회사 선정 및 운영·관리 위탁
 - 시민 동아리와 안동시 사이의 소통 및 의견 조율
 - 시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 설계 및 인테리어, 동아리 활동 지원
3. 비상업적 시민 동아리 중심 운영
 - 개인 레슨 등 상업행위 금지, 동아리 결과물을 지역 축제 내 판매 허용
 - 월세 및 전기세를 부담하며 자율 운영

5-7-12.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2/13)

12. (구)진성극장 청년 도심활력 보금자리 과거 극장을 청년 주거·문화 공간으로 재생



카테고리 4.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청년 주거 #창업 공간

문제

한때 원도심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이었던 (구)진성극장은 지금은 이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이다. 유휴 공간을 청년 주거와 문화·창업 거점으로 재생해 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핵심 내용

- 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주거·문화 공간 조성
 - 소형·공유형 청년 임대주택 제공
 - 소극장·갤러리 등 문화 활동 공간 조성
-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참여형 문화·축제 복합 공간으로 재생 및 활동 추진
 - 청년 문화·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 상권과 협력해 도심 재생·커뮤니티 활동 확장

페스타 시민 피드백

옛 극장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중장년을 위한 자리도 있으면 좋겠음.

안동 외 지역 40대

청년들이 안동에 남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머물게 해주세요.

용상동 20대

무궁무진한 청년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옥동 30대

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요. 화장실과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좁은 원룸에 그만 살고 싶어요.

20대 용상동

문화 활성화를 통한 관광인 유입

안동 외 지역 20대

추진 일정

- 1년차: 기본 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주민·청년 의견 수렴
- 2년차: 설계 및 리모델링 착공, 국비·지방비 확보
- 3년차: 청년 주거단지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 완공
- 4년차~: 입주자 모집 운영, 청년 창업 프로그램 문화 행사 연계, 지속적인 사업 운영 점검 및 관리

기대효과

-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
- 저렴하고 매력적인 청년 주거 공간 제공
-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
- 청년·상인·시민 간 소통과 협력 확대

5-7-13. '작지만 행복한 안동'을 위한 개별 사업 아이템 (13/13)

13. 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배움, 여가, 교류, 돌봄이 한 곳에서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문제

안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통폐합과 통합 운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교육·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 공간을 평생교육 및 복지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 고령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고립 완화, 세대 간 교류 촉진
- 유휴공간 재생으로 도심 활성화 및 접근성 높은 복합 거점 확산

핵심 내용

1.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
 - 구시가지, 옥동, 용상동 등 3개 권역에 폐교를 활용하여 복합 거점 조성
 - 용상동권: 대학·체육시설 접근성 양호, 건강·운동·디지털 기초 학습 중심
 - 옥동권: 신시가지 수요 흡수, 평생학습·문화·동아리 거점
 - 구시가지권: 원도심 재생 연계, 세대 공존형 문화·여가·마을 대학 기능
2. 통합형 프로그램 및 평생 교육 공간
 - 배움: 마을 대학, 은퇴 설계, 문해, 스마트폰 및 AI, 건강 교육
 - 교류: 동아리실, 작은 공연·전시, 카페
 - 여가/건강: 실내 운동실, 실내 정원 및 치유 프로그램
 - 포용/안전: 경사로, 안전 설비, 안내 창구 구축
3.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령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고립 완화, 건강 증진, 세대 간 통합 촉진
 - 유휴 공공자산의 가치 재생,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력 회복 및 주변 상권 파급 효과

카테고리 4.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사업 구상도



#유휴공간 #평생 학습 #문화 공간

페스타 시민 피드백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살기 위한 규칙을 세우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오겠죠.

안동 외 지역 40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의 기대

서구동 40대

빈 공간을 활용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쓴다는 게 멋진

안동 외 지역 20대

폐교 활용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시도 모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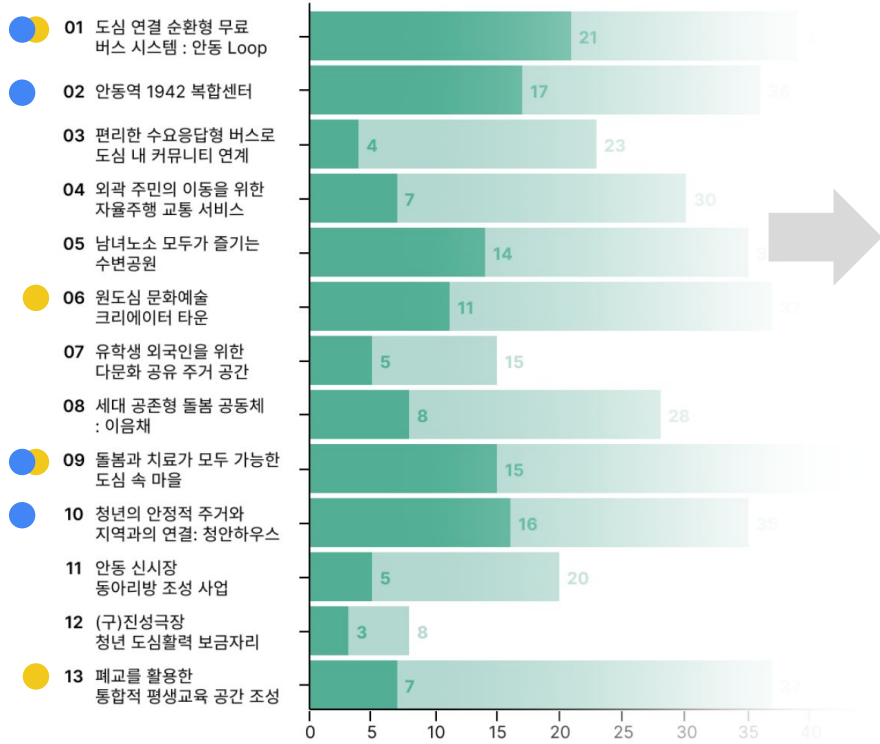
풍산읍 40대

농번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심심하셔서 일을 찾아서 고생하십니다ㅠㅠ 손녀의 입장에서지만... 재미있는 장소가 많이 생긴다면, 노후도 즐겁지 아닐까

옥동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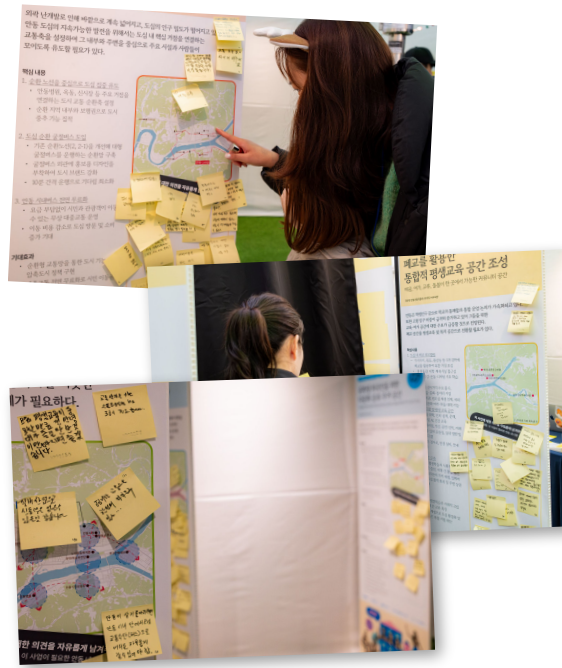
5-8. 각 사업별 안동 시민의 반응, 수용 조건, 충족되는 욕구 정성 분석

분석 대상 사업 선정



시민들의 1순위 선택 비중이 높은 사업 4개(파란 점 ●), 누적 선택이 많았던 사업 4개(노란 점 ●) 중 접착식 노트 참여와 내용이 풍부한 사업 3개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및 수용 조건 분석



참여 시민들이 FESTA에서 부착한 접착식 노트 위 의견을 크게 (1)사업에 대한 반응, 그리고 (2) 수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충족할 수 있는 시민의 욕구 확인



최종적으로 특정 사업이 적용되었을때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막스-니프(Max-Neef) '인간 기본 욕구' 9개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5-8-1.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안동 시민 욕구 분석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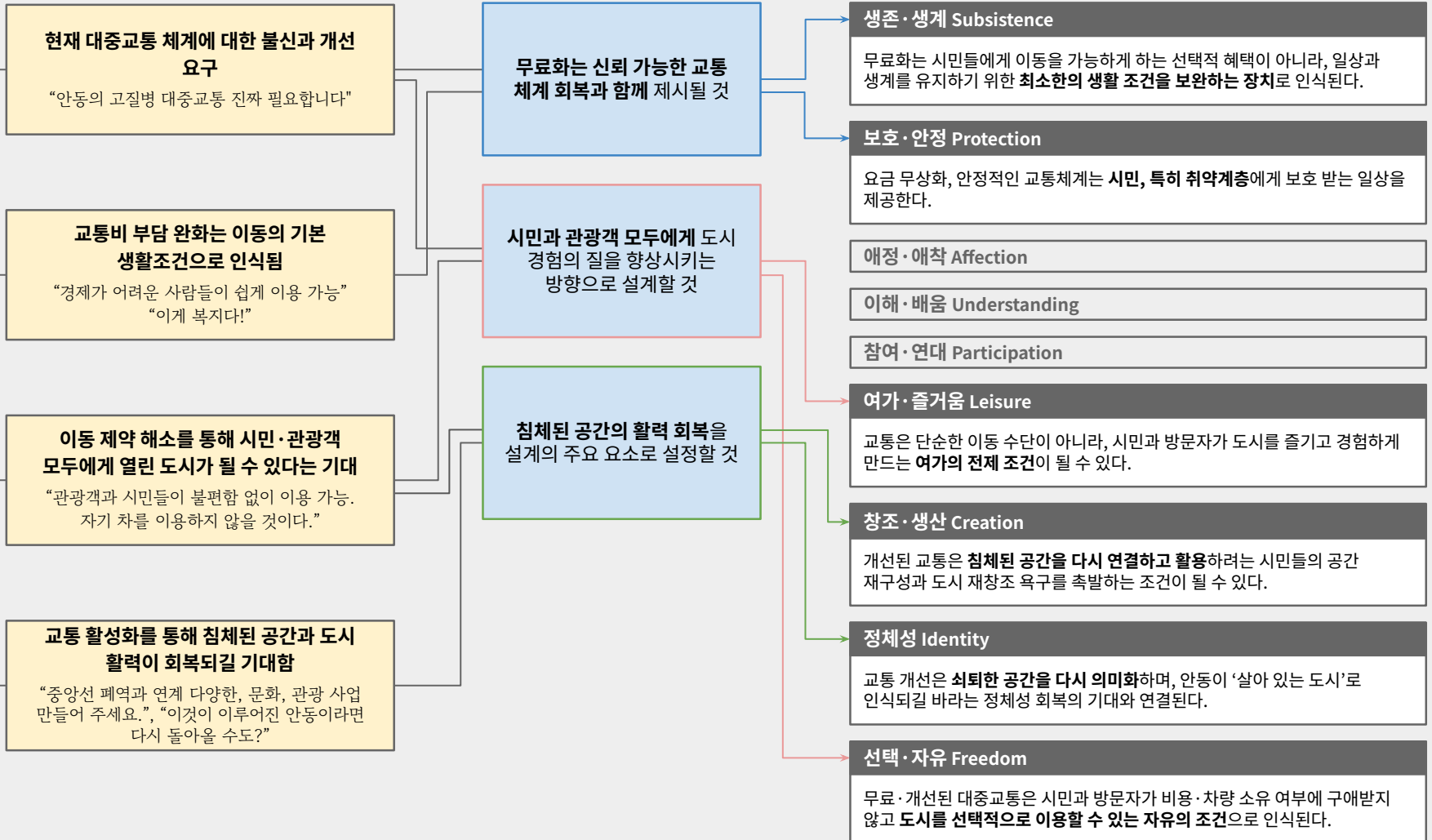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1번 사업 아이템



5-8-2.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안동 시민 욕구 분석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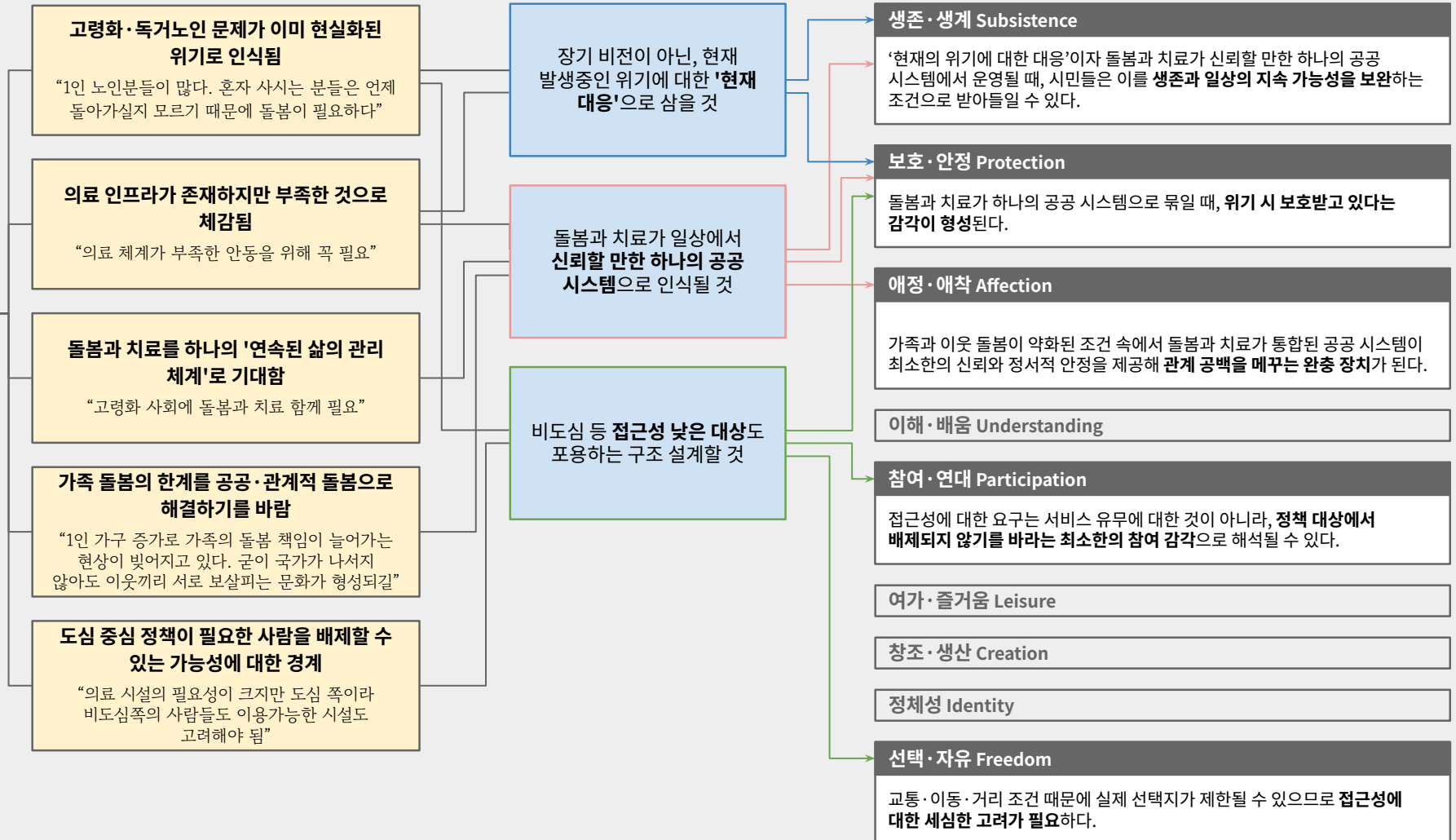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9번 사업 아이템



5-8-3. 각 사업별 사회적 수용 조건과 충족되는 안동 시민 욕구 분석 (3/3)

①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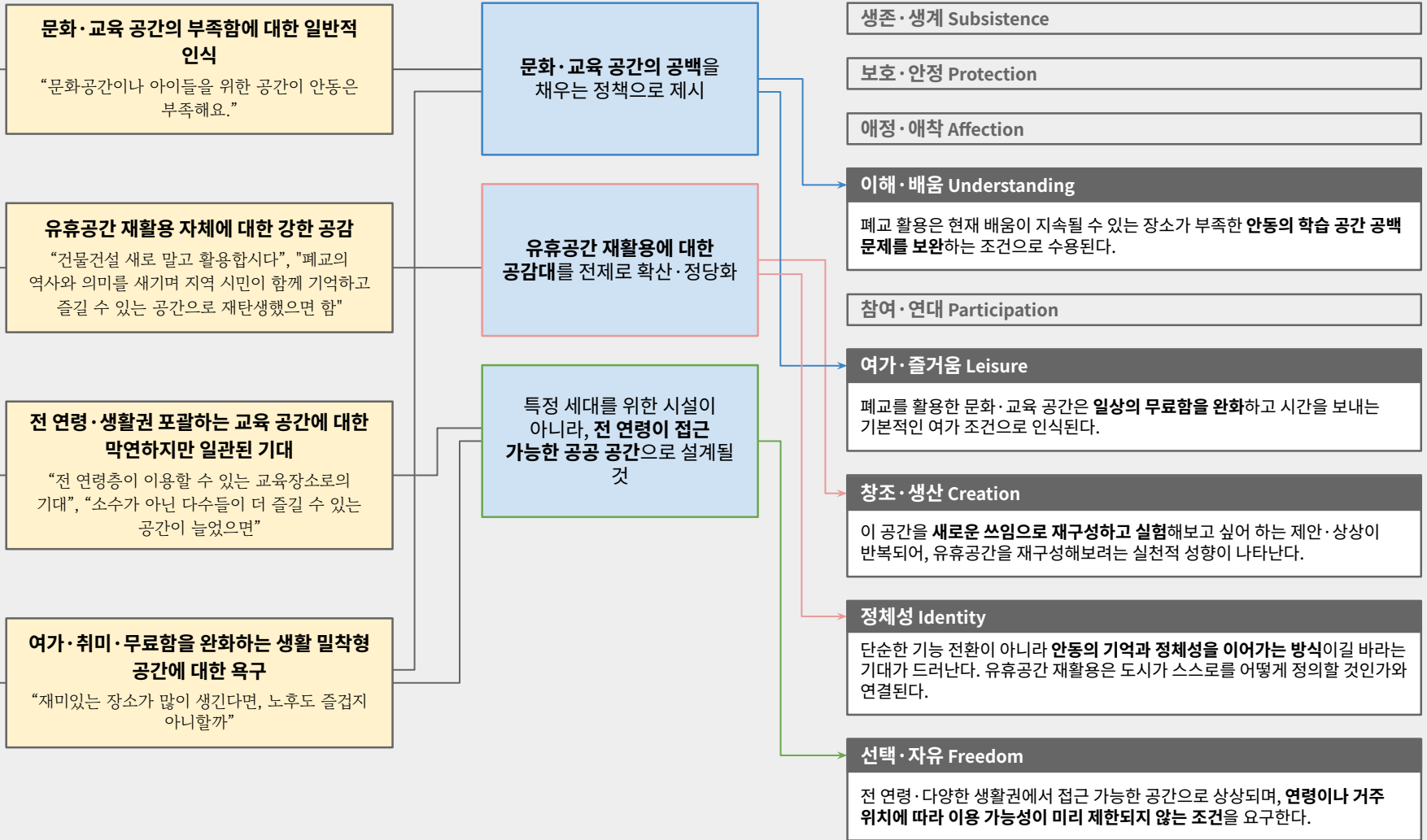
② 시민의 수용 조건

③ 충족하는 시민의 욕구 Max-Neef 인간 기본 욕구 모델 적용 해석

공간 전환 Adaptive Reuse

폐교를 활용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배움, 여가, 교류, 돌봄이 한 곳에서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13번 사업 아이템



6. 연구 결과 및 시사점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2)

도시 맥락의 차이를 넘어 수립된 정책 범주

밀양과 안동에서 발굴된 정책 아이тем들은 각 도시의 인구 규모, 물리적 구조, 생활권 구성, 쇠퇴 양상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하여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두 도시의 정책 제안은 큰 틀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밀양과 안동에서 도출된 정책 아이тем들은 ‘압축 핵심’, ‘이동 순환’, ‘생활 돌봄’, ‘공간 전환’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수렴된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조건이 도시의 개별적인 맥락을 넘어, 중소 도시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 구조와 정책적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과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리빙랩 방식이 인구 감소 시대 중소 도시의 정책 아이тем을 발굴하는 데 있어 유효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리빙랩 과정이 지역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분석 틀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성의 최소 조건으로서 의료와 돌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 시에서 주민들은 의료 공백과 돌봄 체계의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추상적 논의 이전에,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도시에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장된다. 의료기관의 축소, 돌봄 인력의 부족, 관련 시설의 운영 불안정은 인구 감소가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당장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의 확보는 모든 정책 논의의 선결 과제로 자리 잡는다. 의료와 돌봄은 선택적 복지나 부가적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가 기능하기 위한 최소 작동 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정책 개입이나 공간 전략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도시 구조 차이가 만든 정책 인식의 온도차

밀양과 안동은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으나, 도시가 축소를 경험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호의 차이라기보다, 각 도시가 축적해 온 인구 규모, 도시 공간 구조, 그리고 기능 분산의 정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밀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압축적인 도시 구조 속에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집 증가와 이에 따른 관리·활용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도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지의 공실화는 생활 환경의 저하뿐 아니라 안전, 경관, 지역 이미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체감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밀양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정리할 것인가가 도시 정책 논의의 주요한 출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안동에서는 도시 확장 과정에서 형성된 넓은 생활권과 분산된 기능 구조가 인구 감소 국면에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성장기에 조성된 주거지와 상업·공공 기능의 공간적 분산은 인구가 줄어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생활권 간 단절과 내부 연결망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에서는 기존에 확장된 도시 구조를 어떻게 재정비하고, 분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2)

행정 의사결정 구조와 리빙랩 성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아이템과 논의 구조가 일회성 실험이나 개별 제안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후속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현재의 행정 의사결정 구조는 법정 계획, 예산 편성, 사업 평가 등 명확히 구분된 절차와 주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험적 논의나 참여 기반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여유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리빙랩을 통해 축적된 정책 아이디어와 시민의 판단은 행정 내부에서 참고 자료로 소비되거나, 개별 부서 차원의 단편적 사업으로 분절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참여 기반 정책 설계는 반복 가능한 모델로 정착되기 어렵다.

제도화와 계획 체계 연계

참여 기반 정책 발굴 방식이 일회성 실험이나 보조적 수단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포괄한 계획 체계로 발전시키고 중장기 도시계획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의 핵심은 **참여 기반 정책 발굴의 결과물을 기존 계획 체계에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참여 논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계는 단일 시점의 반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참여 기반 정책 발굴은 도시의 상태 변화와 시민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참여 과정과 피드백 구조를 통해 계획과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운영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결국 참여 기반 정책 발굴 방식을 포괄한 계획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정책의 형성과 실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운영적 경로가 구체화될 때, 참여 기반 접근은 인구 감소 시대 중소 도시에서 정책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적인 계획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민참여 및 구체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나온 사업 아이템들은 현실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토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팀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사업 카테고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워크숍을 밀양에서 2회, 안동에서 1회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 사업 대상자인 시민들을 초청하여 사업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워크숍을 밀양에서 2회, 안동에서 1회 진행하였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된 사업 아이템이 완결된 안이기보다 시민의 일상 경험과 의견을 통해 재조정 되어야 하는 ‘열린 제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생활 맥락과 연결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워크숍은 시민에게 해당 도시에서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 조건을 현실화하는 핵심 과정으로 작동함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현실화된다면 연구의 결과물을 단순히 정치인이나 행정가, 전문가가 실행에 옮기기보다 시민의 참여로 고도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함께 행복한 밀양: 밀양 내 외국인 비율 5%,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밀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만들기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2026년 4월 3일, CC-BY-4.0